



2021.9.30.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전망

#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 Economic Forecast for 2022 and the Medium-Term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총괄 | 이정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작성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황중률·오현희·박선우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지원 | 엄상미 거시경제분석과 행정실무원  
박진우 거시경제분석과 자료분석지원요원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1. 9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  
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1. 9. 1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2021년 들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확대,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경제 또한 민간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확대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백신 접종률 격차 등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직도 큰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통화·재정정책의 정상화, 비대면 소비활동 활성화, 자동화 및 ESG 경영 본격화 등과 같은 급격한 경제 구조의 변화는 중기전망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금번 「2022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는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과 2021~2025년의 중기경제전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우선 2022년 국내경제는 실질GDP 3.0%, 명목GDP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민간소비는 백신 접종 확대와 소득 및 고용여건 개선으로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IT업종에 대한 투자 지속, 신성장 및 친환경 연관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토목건설의 부진이 예상되나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 수출은 내년에도 글로벌 교역과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향후 5년간(2021~2025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2~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전 5년간(2016~2020년, 2.6%) 대비 0.3%p 하락하는 것이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비해서는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폭 확대 등 완만한 고용회복과 함께 견실한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 -0.1%p에서 0.1%p 증가 전환하고, 자본의 성장기여도 또한 설비투자과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이전 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본 보고서가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 의원님들의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 요 약

### 1. 대내외 경제여건

-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가 선진국의 경기부양책과 백신접종의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 회복에 힘입어 2021년 중 전년대비 5.6~6.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2년에는 선진국경제가 2021년에 이어 회복세를 나타내며 세계경제가 4.3~4.9% 성장할 전망
    - 백신접종이 진전되고 있는 선진국경제는 경제회복세가 지속되나, 백신확보가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은 방역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계교역량도 2021년 8.3% 증가하고, 2022년에는 6.3% 증가할 전망(IMF)
  - 2022년에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기대물가 불안, 미·중 간 분쟁, 세계적인 부채증가세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
  
-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냄
  - 실질GDP는 수출 호조세와 설비투자 확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021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4.0% 성장
  -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3/4분기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는 재고가 감소하고 출하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경기회복 국면의 특징을 나타냄
    - 다만 2021년 3/4분기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 소매판매액이 줄어드는 등 경기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증대
  - 고용시장은 취업자수가 2021년 3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전환하고 고용률(15~64세)은 2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회복세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서비스물가의 점진적 오름세 등으로 2021년 4월 이후 2%대 중반을 넘어서는 상승세가 지속

## 2. 경제성장률

- 2022년 실질GDP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되며 3.0%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백신 접종 확대, 취업자 수 증가,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회복 흐름이 강화되며 3.3%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부진하겠으나,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이 늘어나며 1.9%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는 IT업종의 투자 지속, 신성장 및 친환경 연관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3.5% 증가할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며 4.2% 증가할 전망
  - 총수출(물량)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라 3.8% 증가할 전망
    - 총수입(물량)은 내수회복세 강화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4.7% 증가할 전망
  -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상에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한 수출 둔화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연될 우려
    -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

## 2021~2025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총생산	-0.9	4.1	3.0	2.5	2.3	2.2
민간소비	-5.0	3.0	3.3	2.3	2.2	2.1
설비투자	7.1	9.8	3.5	3.3	3.1	3.0
건설투자	-0.4	0.1	1.9	1.6	1.4	1.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3	4.2	4.0	3.8	3.7
총수출	-1.8	8.9	3.8	3.0	2.5	2.2
총수입	-3.3	7.3	4.7	3.6	3.1	2.8
경상수지(억달러)	753	824	705	627	565	520
상품수출(통관)	-5.5	20.3	4.2	3.1	2.5	2.4
상품수입(통관)	-7.1	24.9	3.4	3.3	2.6	2.5
취업자증감(만명)	-21.8	22.5	26.0	23.0	20.0	20.0
실업률	4.0	4.0	3.9	3.9	3.9	3.8
소비자물가	0.5	2.1	1.6	1.6	1.5	1.5
국고채금리(3년만기)	1.0	1.3	1.8	2.1	1.9	1.7
원/달러 환율(원)	1,180	1,126	1,121	1,153	1,138	1,130
GDP디플레이터	1.3	1.5	1.2	1.2	1.2	1.2
명목국내총생산	0.4	5.6	4.2	3.7	3.5	3.4

주: 2021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관세청

### □ 명목GDP 성장률은 2021년 5.6%, 2022년 4.2%로 전망

- 2022년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2021년보다 낮아짐에 따라 명목GDP 성장률이 하락
  - 2022년 명목GDP 성장률(4.2%) = 실질GDP 성장률(3.0%)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2%)
  - 2021년 명목GDP 성장률(5.6%) = 실질GDP 성장률(4.1%)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5%)

- 2022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교역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민간소비 등 내수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에 따라 2021년보다 하락할 전망
  - 내수 디플레이터의 경우 민간소비 디플레이터와 설비투자 디플레이터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원화강세로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
  - 교역조건(수출과 수입 디플레이터 상승률 차이)의 경우 2022년 국제유가 안정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 개선될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8% 성장 전망
  - 이전 5년(2016~2020년) 기간 대비 설비투자와 수출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
    - 수출의 성장기여도(%p): (2016~2020년)0.6→(2021~2025년)1.6
    -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p): (2016~2020년)0.3→(2021~2025년)0.4
  - 2021~2022년 기간 중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인 이후 2023~2025년 기간 중 코로나19 이전 성장경로로 접근할 전망
  
- 1인당 GDP(달러기준)는 2022년 36,600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 2021년과 2022년 1인당 GDP는 경제성장률 제고 및 원화가치 상승으로 각각 전년대비 10.6%와 4.6% 상승한 35,000달러와 36,600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률과 환율 전망치를 전제로 2025년 1인당 GDP는 사상 처음 40,000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전망
    - 이와 같은 1인당 GDP 전망은 우리 경제가 2025년까지 연평균 2.8%의 성장을 지속하고, 1.3% 내외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1,134원/달러의 환율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
    - 2025년 4만달러대 진입에 성공할 경우 3만달러대('17년 31,605달러) 진입 이후 8년이 소요

### 3. 민간소비

- 2022년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및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백신접종 진전으로 소비활동 및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3.3% 증가할 전망
  - 2022년에는 소득여건 개선으로 소비여력이 확대된 가운데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주체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활동과 소비심리가 개선될 전망
    - 2022년에는 경기회복세 및 기업 수익 개선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과 임금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득여건이 점차 개선될 전망
    - 또한, 가계의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 해외소비의 점진적 회복 등도 민간소비 개선에 기여할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중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21~2022년에는 소비활동이 회복되면서 3%대의 성장을 보일 전망
    - 중기적으로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부채부담, 시중금리 상승, 저출산 및 고령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4. 건설투자

- 2022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축이 완만히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 증가할 전망
  - 주거용건축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착공과 미분양주택의 감소, 비주거용건축은 서비스업의 회복에 따른 사무실과 창고 건축이 증가할 전망
  - 토목건설은 건설자재물가의 상승, 실질적인 공공SOC사업 규모의 정체 등으로 부진할 전망
  - 2021~2025년 건설투자는 주거용건축이 주도하며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
    -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수요억제 중심에서 주택공급량 확대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용건축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

- 3기 신도시(26.1만호)의 건설이 본격화되고,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6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서울 32만 호 등 수도권 약 61만호,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할 계획을 수립

## 5. 설비투자

- 2022년 설비투자는 IT부문 투자수요 지속과 함께 비IT부문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5% 증가할 전망
  -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파운드리 부문 투자 확대, 비대면 경제활동 보편화에 따른 관련 전자기기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IT부문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비IT부문에서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전통 제조업 부문에서의 신규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ESG 경영환경 지속에 따른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21~2025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4.5% 증가하며 지난 5년(2016~2020년, 연평균 3.4%)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반도체·인공지능(AI)·슈퍼컴퓨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부문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관련 IT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지속될 전망
    - 최근 기후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개별 산업부문에서도 친환경 설비확충을 위한 시설투자가 증가할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생산시설 투자 수요도 예상됨

##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022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 R&D투자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4.2% 증가할 전망

- 민간의 지식재산물투자는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R&D투자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이후 IT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도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R&D투자는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R&D 세제지원 확대도 증가세를 뒷받침할 전망
  -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영업활동과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수요가 늘며 관련 투자가 증가할 전망
- 정부부문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R&D예산규모 확대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발주 증가 등으로 2021년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
- 2021~2025년 중 지식재산물투자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4.0%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2021~2022년 중에는 대내외 경기회복세 지속과 기업실적 호조, 정부 R&D예산 확대에 힘입어 R&D 투자가 연평균 5%를 상회할 전망
  - 2023~2025년 중에는 정부의 R&D예산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R&D투자의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되며 연평균 3.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국내총생산대비 ICT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7. 대외거래

- 2022년 수출(통관기준)은 세계경제성장과 교역량 증가세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전년대비 4.2% 증가할 전망
  - 2022년에는 세계경제성장과 세계교역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물량 회복과 일평균수출액 증가 등 양호한 수출증가세를 보일 전망
    -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6,423억달러, 상품수입은 3.4% 증가한 6,039억달러를 각각 기록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8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수출물량은 해외수요 확대와 일부 품목의 공급차질 완화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되고 수출단가는 전년도 높은 증가율에서 큰 폭 둔화될 전망
- 일평균수출액은 2020년 18.8억달러에서 2021년 22.6억달러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23.4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수출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 제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상품 다각화 등으로 양호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상품수출(통관기준)은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6.5%를 기록하여 이전 5년(2016~2020년) 기간 중의 0.1% 감소(20년 제외 3.0% 증가)에서 증가 전환할 전망
- 2022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며 2021년(824억달러)보다 축소된 705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율 둔화 폭이 수출증가율 둔화 폭에 비해 크게 나타나면서 2021년(721억달러 전망)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된 737억달러 전망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본원소득수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
  - 한편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1년 4%대 중반을 기록하고 이후 서비스수지 적자 폭 확대 등으로 하락하며 2025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낼 전망

## 8. 고용

- 2022년 전체 취업자수는 경기회복과 서비스 소비활동 회복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업황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6만여 명 증가할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백신 접종 확대와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활동이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늘며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주요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가동률이 상승하며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장기간의 침체와 건설수주액 증가에 따른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청년층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고 실업률은 2021년 4.0%에서 소폭 하락하여 3.9%를 기록할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고용은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연평균 22.5만여명(0.8%) 증가할 전망
  - 향후 5년 기간 중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15~64세 연령층의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며 노동공급의 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전망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실질GDP성장률이 연평균 2.8%로 성장하며 완만한 고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이전 기간(연평균 3.8%)보다 소폭 상승하여 연평균 3.9% 수준이 될 전망

## 9. 소비자물가

- 2022년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 개선에 따라 서비스물가의 상승세가 확대되나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1.6% 상승할 전망
  - 2022년에는 민간소비 확대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근원물가가 상승할 전망
    -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명목임금 상승폭 확대 등도 소비자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석유류 등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제한될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5년(1.1%)에 비해 높은 1.7%를 기록할 전망
    - 수요측면에서는 2022년부터 실질GDP갭이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수요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될 전망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부족, 중국발 수출가격 상승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입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

## 10. 금리 및 환율

- 2022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경기회복세와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2021년 1.3%보다 높은 1.8%로 상승할 전망
  - 건조한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주체의 자금수요 증가, 정책금리의 상향 조정이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2021~2025년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국내외 경제성장세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정상화 됨에 따라 연평균 1.8%를 나타낼 전망
    - 2021~2023년 중에는 경기 상승과 정책금리 상승에 따라 2023년에는 국고채금리가 2.1%까지 상승할 것이나, 2024~2025년 중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둔화로 인해 하락할 전망
- 2022년 원/달러 환율은 건조한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2021년 1,126원보다 소폭 낮은 연평균 1,121원 전망
  -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의 건조한 성장세와 경상수지흑자기조, 국내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선진국과 금리 차의 확대가 하락요인으로 작용
  - 2021~2025년 중 원/달러 환율은 국내경제 성장과 외국인 국내채권투자자금의 유입으로 연평균 1,134원을 나타내겠지만 국제금리가 높아지는 2023년에는 상승할 전망
    - 2023년에는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로 일부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의 유출이 예상됨에 따라 1,153원을 기록할 전망

## 11. 잠재성장률

□ 2021~202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2~2.3% 수준을 나타낼 전망

-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부진했던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상승하고 자본의 기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며 연평균 2.3%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 %p): 노동 0.1, 자본 1.3, 총요소생산성 0.9
  -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생산인구증가세 둔화, 실업률 상승 등에도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이전 5년 기간(-0.1%p)에 비해 증가 전환(0.1%p)
  -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총고정투자가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이전 5년(1.5%p) 기간에 비해 소폭 하락한 1.3%p에 그칠 전망
  -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0.9%p)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이전 5년(1.2%p) 기간에 비해 0.3%p 하락할 전망
-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완만한 고용회복과 견실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세계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완화될 전망
  - 2020년 중 총고정투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불구하고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주력 업종의 수출 호조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임
  - 2021년 이후 총고정투자는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 등으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증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정투자 확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어온 가파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실질GDP갭은 2022년부터 증가 전환되며 양(+)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에서 벗어날 전망
  - 2020년을 저점으로 2021년까지 소폭 음(-)의 갭이 유지되었으나 2022년부터 양(+)으로 전환된 이후 2025년까지 양(+)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측 물가하방압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소비활동 제한 등으로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며 실질GDP갭 소폭 음(-)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22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민간소비 및 고용 회복과 견실한 투자 증가세 유지 등으로 2025년까지 양(+)의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됨

# 차 례

## 요 약

### I. 대내외 경제여건 / 1

1. 세계 경제여건 .....	3
가. 최근 세계경제 동향 .....	3
나.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물가 전망 .....	6
다. 불확실성 요인 .....	8
라. 국제유가 .....	11
2. 국내 경제여건 .....	17
가. 경제성장률 추이 .....	17
나. 경기 국면 진단 .....	18
다. 내수와 수출 여건 .....	19
라. 고용과 물가 여건 .....	21

### II.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 25

1. 경제성장률 .....	27
가. 2022년 전망 .....	27
나. 중기 전망 .....	31
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	32
2. 민간소비 .....	36
가. 2022년 전망 .....	36
나. 중기 전망 .....	41
3. 건설투자 .....	51
가. 2022년 전망 .....	51
나. 중기 전망 .....	56

4. 설비투자 .....	59
가. 2022년 전망 .....	59
나. 중기 전망 .....	64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71
가. 2022년 전망 .....	71
나. 중기 전망 .....	74
6. 대외거래 .....	80
가. 2022년 전망 .....	80
나. 중기 전망 .....	88
7. 고용 .....	90
가. 2022년 전망 .....	90
나. 중기 전망 .....	95
8. 물가 .....	100
가. 2022년 전망 .....	100
나. 중기 전망 .....	104
9. 금리·환율 .....	108
가. 2022년 전망 .....	108
나. 중기 전망 .....	113

### Ⅲ. 잠재성장률 / 117

1.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	119
2. 투입요소별 중기 전망 .....	124
가. 총노동투입 .....	124
나. 생산자본스톡 .....	130
다. 총요소생산성 .....	133

###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 139

1. 미국 .....	141
가. 최근 경제동향 .....	141
나. 미국 경제전망 .....	144

2. 중국 .....	147
가. 최근 경제동향 .....	147
나. 중국 경제전망 .....	150
3. 유로지역 .....	152
가. 최근 경제동향 .....	152
나. 유로지역 경제전망 .....	155
4. 일본 .....	158
가. 최근 경제동향 .....	158
나. 일본 경제전망 .....	161

## 표 차례

[표 1] 2021~2025년 국내 경제전망 .....	29
[표 2] 명목GDP성장률 전망 .....	30
[표 3]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2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	32
[표 4] 3기 신도시 개황 .....	55
[표 5] 공공기관 주도 도심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계획 .....	57
[표 6] 실질설비투자 .....	59
[표 7]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현황 .....	65
[표 8] 산업별 실질설비투자 추이 .....	68
[표 9] 정부의 R&D비용 관련 세액공제 .....	73
[표 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	83
[표 11]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	84
[표 12] 총수출과 총수입 증감률 전망(국민계정) .....	86
[표 13] 경상수지 전망 .....	87
[표 14] 중기 수출 전망 .....	89
[표 15] 주요 고용변수 중기 전망 .....	99
[표 16]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 가격 전망 .....	103
[표 17]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	122
[표 18] 노동투입 결정 변수 추이 및 전망 .....	126
[표 19] 자본투입 추이 및 전망 .....	130
[표 20]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	142
[표 21] 미국 행정부의 경제전망 .....	146
[표 22]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	150
[표 23] 유로지역 주요거시경제지표 추이 .....	155
[표 24]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	161

## 그림 차례

[그림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	3
[그림 2]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	4
[그림 3] 로이터상품지수 및 브렌트유가 추이 .....	5
[그림 4] 컨테이너운임 추이 .....	5
[그림 5]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5
[그림 6] OECD 선행지수 추이 .....	5
[그림 7]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	6
[그림 8] 주요 국제기구의 교역량 전망 .....	6
[그림 9]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 전망 .....	7
[그림 10]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격차 .....	7
[그림 11]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	7
[그림 12] 미국과 OECD선진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7
[그림 13] 백신접종 진전도에 따른 확진자지수 추이 .....	8
[그림 14] 미국 기대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10
[그림 15] 세계 비금융기업부채와 가계부채비율 추이 .....	10
[그림 16] 미국 주가의 위험지수 추이 .....	10
[그림 17] 미국의 금융상황지수 추이 .....	11
[그림 18] 국제유가 추이 .....	12
[그림 19] 원유의 수요와 공급 추이 및 전망 .....	13
[그림 20] 주요국 이동성 지수 추이 .....	14
[그림 21] 전체 항공기 운항횟수 추이 .....	14
[그림 22] 상업용 항공기 운항횟수 추이 .....	14
[그림 23] OPEC, 비OPEC 생산량 추이 .....	15
[그림 24]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 생산량 .....	15
[그림 25] 미국 원유 생산량 및 WTI 가격 .....	16
[그림 26] 미국 미가동 유정 및 시추기 수 .....	16
[그림 27] 실질GDP 성장률 추이 .....	17
[그림 28] 소비, 투자, 총수출 증가율 추이 .....	17
[그림 29]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 .....	18
[그림 30] 명목GDP성장률 추이 .....	18

[그림 31]	경기 순환변동치 추이 .....	19
[그림 32]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	19
[그림 33]	소매판매액 추이 .....	20
[그림 34]	고정투자 추이 .....	20
[그림 35]	수출입 증가율 추이 .....	21
[그림 36]	일평균수출액 추이 .....	21
[그림 37]	취업자수 증감과 고용률 추이 .....	22
[그림 38]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	22
[그림 39]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	22
[그림 40]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추이 .....	22
[그림 41]	실질GDP 성장률 전망 .....	27
[그림 42]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	28
[그림 43]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	31
[그림 44]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	31
[그림 45]	실질GDP 지출부문별 중기 전망(5년 단위 평균) .....	32
[그림 46]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	33
[그림 47]	민간소비 추이 .....	36
[그림 48]	형태별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	36
[그림 49]	준내구재 판매 추이 .....	37
[그림 50]	대면서비스 생산 추이 .....	37
[그림 51]	가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추이 .....	38
[그림 52]	명목 및 실질임금 추이 .....	38
[그림 53]	국내 신규확진자수 및 이동성 지수 추이 .....	39
[그림 54]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40
[그림 55]	국내 출입국자수, 비거주자 국내소비, 거주자 해외소비 추이 .....	41
[그림 56]	민간소비 중기전망 .....	42
[그림 57]	예금은행 가계대출 추이 .....	43
[그림 58]	예금은행 기업대출 추이 .....	43
[그림 59]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43
[그림 60]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에 따른 실질소비의 영향 .....	43
[그림 61]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추이 .....	44
[그림 62]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추이 .....	44
[그림 63]	주요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	45
[그림 64]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	46
[그림 65]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	46

[그림 66]	미국의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47
[그림 67]	일본의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47
[그림 68]	공종별 건설투자 추이	51
[그림 69]	건설용 생산재물가상승률 추이	52
[그림 70]	건설용 생산재물가와 토목건설증가율 추이	52
[그림 71]	주거용건축 기성액 추이	52
[그림 72]	비주거용건축 기성액 추이	52
[그림 73]	연도별 상반기 아파트 착공 추이	53
[그림 74]	주거용건축 수주 추이	53
[그림 75]	미분양주택 추이	54
[그림 76]	공장 및 창고 수주 추이	55
[그림 77]	사무실 및 점포 수주 추이	55
[그림 78]	정부의 SOC예산 추이	56
[그림 79]	건설 관련 물가 추이	56
[그림 80]	중기 건설투자 전망	57
[그림 81]	중기 SOC 예산(안)	58
[그림 82]	설비투자지수 추이	60
[그림 83]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60
[그림 84]	10대 수출 품목 증가율 추이	61
[그림 85]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61
[그림 86]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62
[그림 87]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	62
[그림 88]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62
[그림 89]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62
[그림 90]	국내 친환경차 내수 및 수출 추이	63
[그림 91]	세계 전기차 보급대수 전망	63
[그림 92]	국내 철강 생산량 추이	64
[그림 93]	세계 철강수요 전망	64
[그림 94]	중기 설비투자 전망	65
[그림 95]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66
[그림 96]	고정자본투자 대비 설비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67
[그림 97]	자본재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71
[그림 98]	투자주체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72
[그림 99]	R&D 투자와 기업매출액 추이	72
[그림 100]	국내 산업별 소프트웨어 지출 규모 및 소프트웨어 지출 전망	73

[그림 101]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지출 추이 .....	74
[그림 102]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	75
[그림 103]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GDP대비 비중 추이 ...	75
[그림 104]	지식재산생산물투자/고정자본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	76
[그림 105]	연구개발투자의 GDP대비 비중 및 특허출원수 추이 .....	77
[그림 106]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	77
[그림 107]	정부 R&D예산 추이 및 계획 .....	78
[그림 108]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	79
[그림 109]	국내 및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	79
[그림 110]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신장률, 수출 추이와 전망 .....	80
[그림 111]	수출금액, 물량, 단가 증가율 추이 .....	81
[그림 112]	주력 수출제품의 수출금액, 물량, 단가 증가율 추이 .....	81
[그림 113]	일평균수출액 추이와 전망 .....	82
[그림 114]	지역별 수출 비중 변화 .....	84
[그림 115]	무역수지 전망 .....	85
[그림 116]	교역규모 전망 .....	85
[그림 117]	코로나19 전후 재화와 서비스 수출 추이 .....	86
[그림 118]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 추이 .....	87
[그림 119]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	89
[그림 120]	전체 취업자 수 및 실업률의 월별 추이 .....	90
[그림 121]	산업별 취업자수 월별 증감 추이 .....	91
[그림 122]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증감 추이(1~7월 중) .....	92
[그림 123]	월별 코로나19 확진자수 및 취업자수 증감 추이 .....	93
[그림 124]	국내 서비스소비지출과 서비스업 고용 증감 추이 .....	93
[그림 125]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	94
[그림 126]	중기 취업자수 증감 전망 .....	95
[그림 127]	노동 인구구조 변화 .....	96
[그림 128]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추이 및 전망 .....	97
[그림 129]	보건복지고용 분야 및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	97
[그림 130]	60세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	98
[그림 13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	99
[그림 132]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	100
[그림 133]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	100
[그림 134]	품목별 서비스물가 상승률 .....	102
[그림 135]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수준전망CSI .....	103

[그림 136]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	103
[그림 137]	석유류제품과 국제유가 상승률 .....	103
[그림 138]	소비자물가 증기 전망 .....	104
[그림 139]	글로벌 제조업 공급업체 납품시간 추이 .....	105
[그림 140]	중국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	105
[그림 141]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108
[그림 142]	국고채금리 추이 .....	108
[그림 143]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	109
[그림 144]	명목GDP 추세의 변화 .....	109
[그림 145]	전국아파트가격과 가계대출 추이 .....	110
[그림 146]	신용레버리지갭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갭 추이 .....	110
[그림 147]	회사채잔액 증감과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110
[그림 148]	관리재정수지와 국고채 발행액 추이 .....	110
[그림 149]	원/달러 환율 추이 .....	111
[그림 150]	외국인 국내주식 순투자 추이 .....	111
[그림 151]	한국국채와 일본국채 간 CDS프리미엄 추이 비교 .....	112
[그림 152]	외국인 국내채권투자 추이 .....	112
[그림 153]	선진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	112
[그림 154]	중기 국고채금리(3년 만기) 전망 .....	113
[그림 155]	중기 세계경제 전망 .....	113
[그림 156]	중기 세계소비자물가 전망 .....	113
[그림 157]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합과 국고채금리 전망 .....	114
[그림 158]	미국 정책금리와 국채금리 전망 .....	114
[그림 159]	중기 원/달러 환율 전망 .....	114
[그림 160]	세계경제와 통관수출 전망 .....	115
[그림 161]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투자수지 추이와 전망 .....	115
[그림 162]	투입요소별 잠재실질GDP성장률 기여도 .....	122
[그림 163]	실질GDP성장률과 잠재GDP성장률 .....	123
[그림 164]	실질GDP갭 추이 및 전망 .....	124
[그림 165]	총노동투입 추이 및 전망 .....	126
[그림 166]	15세 이상 생산인구 추이 및 전망 .....	127
[그림 167]	60세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	128
[그림 168]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129
[그림 169]	주당근로시간 추이 및 전망 .....	129
[그림 170]	총고정자본투자 증가율 추이 및 전망 .....	131

[그림 171]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	132
[그림 172]	중요소생산성 추이 및 전망 .....	133
[그림 173]	미국의 실질GDP 추이 .....	141
[그림 174]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추이 ...	143
[그림 175]	미국채금리 및 기간금리차 일별 추이 .....	144
[그림 176]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145
[그림 177]	미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146
[그림 178]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	147
[그림 179]	중국 산업별 경제성장률 추이 .....	147
[그림 180]	중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	148
[그림 181]	중국 주요 실물지표 추이 .....	149
[그림 182]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149
[그림 183]	중국 등록실업률 추이 .....	149
[그림 184]	중국 물가상승률 추이 .....	149
[그림 185]	주요 국제기구의 중국경제 전망 .....	151
[그림 186]	유로지역 GDP성장률 추이 .....	152
[그림 187]	유로 주요국 GDP성장률 .....	152
[그림 188]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	153
[그림 189]	유로지역 주요국 신규 확진자수 추이 .....	153
[그림 190]	유로지역 산업별 PMI 추이 .....	154
[그림 191]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	154
[그림 192]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	155
[그림 193]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	155
[그림 194]	유로지역 소비와 가처분소득 .....	156
[그림 195]	유로지역 가계저축률 추이 .....	156
[그림 196]	주요기관의 유로지역 2020년 및 2021년 경제전망 .....	157
[그림 197]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	158
[그림 198]	일본 부문별 성장률 추이 .....	158
[그림 199]	일본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	159
[그림 200]	일본 주요 실물지표 추이 .....	160
[그림 201]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160
[그림 202]	일본 실업률 및 비농업 취업자수 추이 .....	160
[그림 203]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	160
[그림 204]	주요 국제기구의 일본경제 전망 .....	162

## 박스 차례

[BOX 1]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전망 .....	34
[BOX 2] 온라인 판매 동향 .....	48
[BOX 3] ESG 경영전략 도입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증가 .....	69
[BOX 4] 관리물가 현황 및 전망 .....	106
[BOX 5] 코로나19 전후 고용 및 투자 전망 경로 비교와 시사점 .....	134

국회에산정책처





---

#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 경제여건
2. 국내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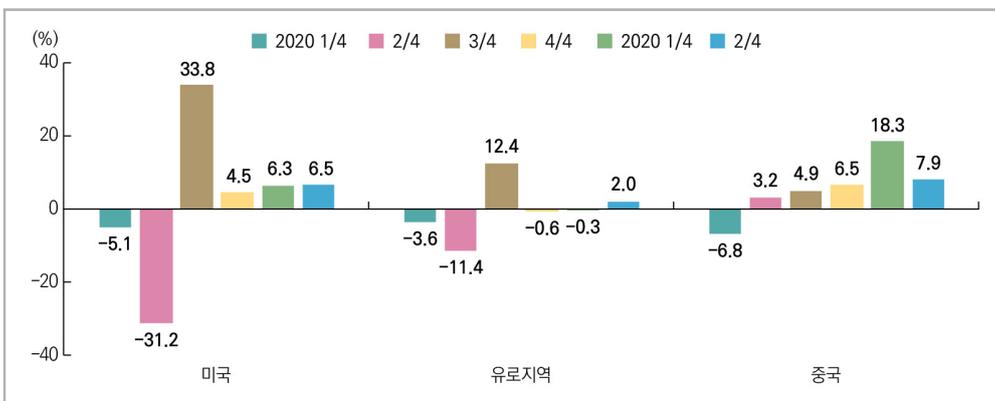
# I. 대내외 경제여건

## 1. 세계 경제여건

### 가. 최근 세계경제 동향

- 2021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보급과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
    - 미국경제성장률(전기대비, 연율, %): (‘20.4/4)4.5→(‘21.1/4)6.3→(2/4)6.5
    - 중국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0.4/4)6.5→(‘21.1/4)18.3→(2/4)7.9

| 그림 1 |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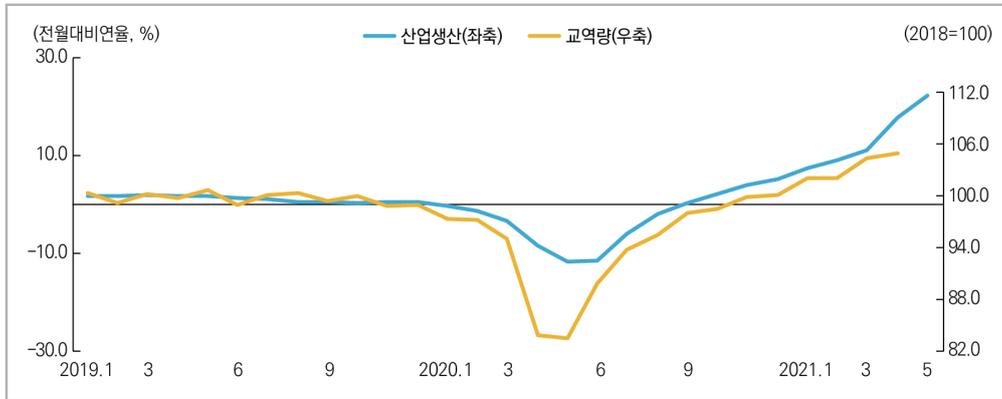


주: 전기대비연율(미국), 전기대비증가율(유로지역), 전년동기대비증가율(중국)

자료: US BEA, Eurostat, Bloomberg

- 세계교역량은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에 비해서는 침체의 골이 깊은 반면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미약
  - 백신접종이 선진국에서는 진전되고 있으나, 개도국은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국제적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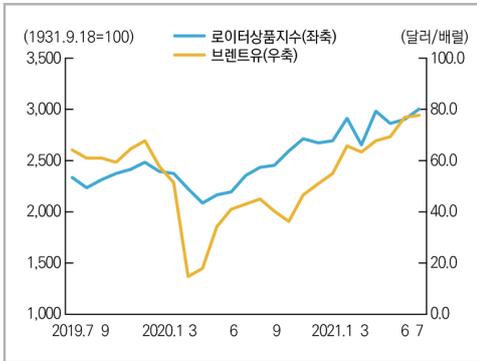
| 그림 2 |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주: 3개월 이동평균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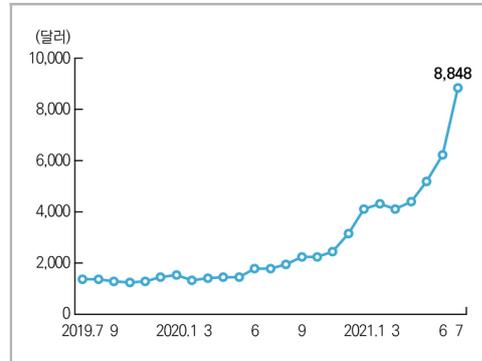
- 코로나19 충격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제적인 상품 및 서비스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제물가가 불안한 모습
  - 코로나19가 수요측면(수요패턴의 변화)과 공급측면(글로벌 공급망의 훼손과 투자 축소 등)의 양 방향으로 충격을 가한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가격의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양상
    - 글로벌 수요가 특히 가전을 비롯한 비대면 관련 제품에서 크게 나타나는 등 수요의 양상이 변화하고, 공급망 훼손으로 산업 곳곳에서 상품 및 서비스 수급의 불균형현상이 발생
    -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과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일부 상품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함에 따라 국제적인 비용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
    - 로이터상품지수(전년동월대비, %): (21.5월)32.4→(6월)32.0→(7월)27.8
    - 컨테이너운임(달러, 40피트기준): (21.5월)5,165→(6월)6,217→(7월)8,848

| 그림 3 | 로이터상품지수 및 브렌트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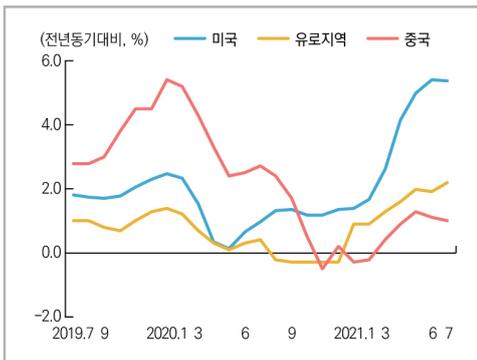
| 그림 4 | 컨테이너운임 추이



주: 40피트 컨테이너기준  
자료: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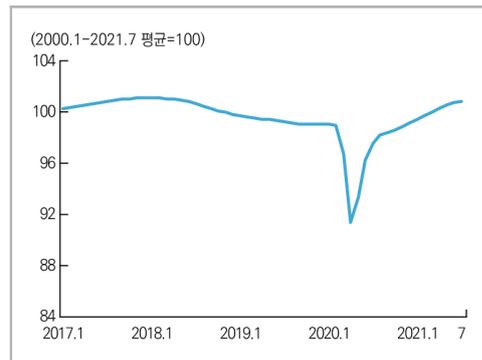
-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는 등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1.4%에서 7월에는 5.4%로 급등하고, 유로지역도 0.9%에서 3.0%로 상승
  - OECD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규모 3대 재정계획<sup>1)</sup>을 통해 경기부양과 미국경제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고, EU도 경기부양책<sup>2)</sup>을 추진하고 있어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 그림 5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 그림 6 | OECD 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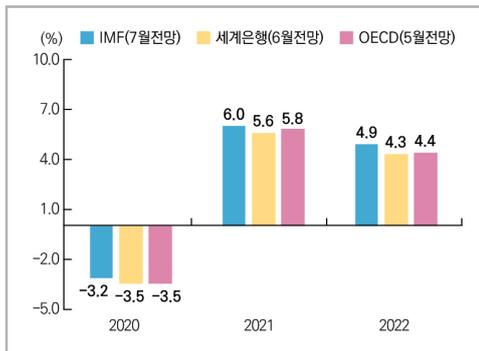
자료: OECD

- 1)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으로 10년 간 약 6조 달러(GDP의 28.7%)의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 중
- 2) EU는 소위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회원국에게 4년 간 총 7,500억 유로의 대출과 소득지원책을 수립

## 나.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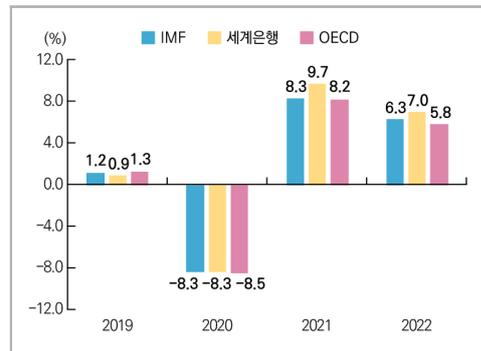
- 202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부양책과 백신접종의 진전에 따른 소비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IMF(7월 전망), 세계은행(6월 전망), OECD(5월 전망)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가 2021년 전년대비 5.6~6.0%, 2022년 4.3~4.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으나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호한 성장세로 판단됨
    - 백신접종의 진전과 선진국의 가계지원에 힘입은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면업종의 회복이 가장 큰 요인
  - 세계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계교역량도 2021년 전년대비 8.3% 증가하고, 2022년에는 6.3% 증가할 전망(IMF 전망 기준)

| 그림 7 |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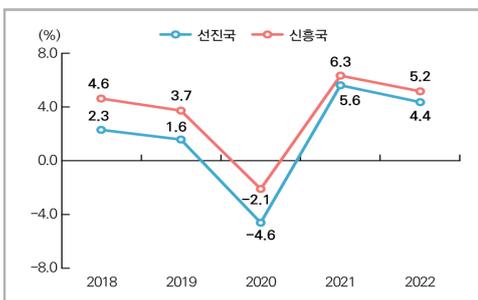
| 그림 8 | 주요 국제기구의 교역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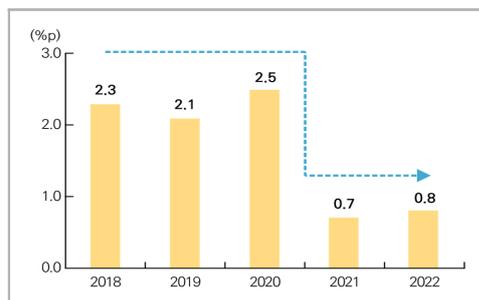
- 2022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축소될 전망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신흥개도국들이 수출을 동력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2022년 기간 중에는 그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이는 백신접종이 진전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충격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백신확보가 어려운 신흥개도국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최근 선진국에서 델타변이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추가 접종(3차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2022년에도 백신확보경쟁이 지속될 전망
- 신흥개도국들은 백신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신흥개도국의 방역 및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림 9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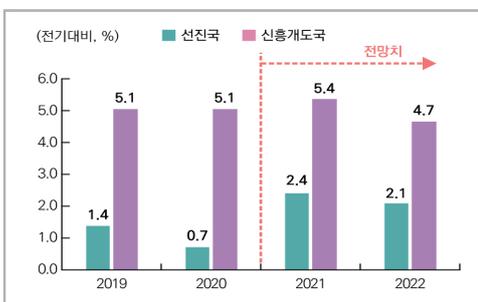
| 그림 10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격차



주: 경제성장률격차=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선진국 경제성장률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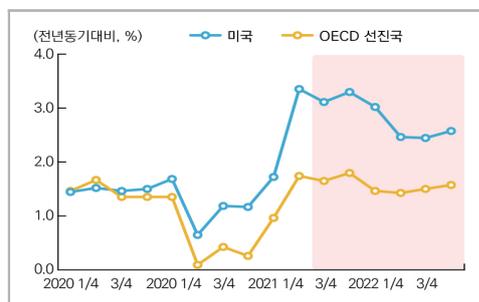
-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국제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하여 상승률은 둔화될 전망
  - 세계수입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 등 비용측면(생산비용)으로부터 물가압력은 지속될 가능성
    - 비용측면의 물가압력은 소비자물가 등에 반영되기까지 시차를 고려할 때 2022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그림 11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IMF

| 그림 12 | 미국과 OECD선진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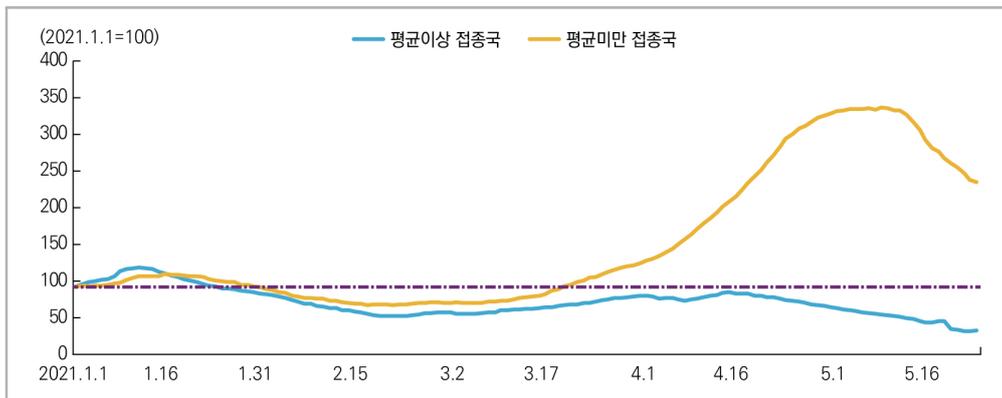
주: OECD선진국은 선진국의 중위값, 음영은 전망치  
자료: OECD

- 백신접종과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선진국에서 물가 상승률의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임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1년 전년대비 2.4%에서 2022년 2.1%로 0.3%p 하락하는 데 비해 신흥개도국은 2021년 5.4%에서 2022년 4.7%로 0.7%p 하락할 전망(IMF)

#### 다. 불확실성 요인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백신 보급 격차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 백신의 확보와 접종이 부진한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확진자 수가 크게 높은 상황

| 그림 13 | 백신접종 진전도에 따른 확진자지수 추이



주: 36개 선진국과 147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100만명 당 확진자지수(2021.1.1일=100 기준)의 7일 이동평균. 모든 국가의 평균 백신접종 진전도를 기준으로 2개 그룹(평균초과와 평균미만)으로 분류한 후 확진자 추이를 지수화

자료: 세계은행

-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의 통제에 실패하는 경우 백신효력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
  -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세계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
  - 델타변이바이러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가 모두 변이바이러스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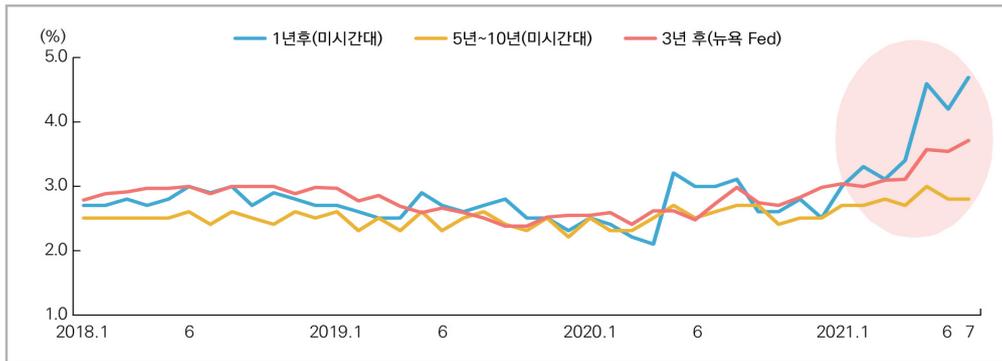
- 무역부문에서 시작된 미·중 간 분쟁이 첨단기술·자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미국과 중국 간 긴장으로 양국 자본시장의 연계성이 악화
    -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게 미국 첨단기술이 포함된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도 기술적 자립을 추구<sup>3)</sup>
    - 미국 자본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도 반독점 혹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자본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sup>4)</sup>
  - 세계 1, 2위 경제규모를 가진 미·중 간 긴장의 고조는 불확실성을 상승시키고 국제적인 기술과 투자의 교류를 감소시켜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
  
- 글로벌 공급망 복구의 지연으로 병목현상이 조기에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 기대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 공급망 복구 지연으로 병목현상이 장기화된다면 기대물가를 자극하여 세계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미국의 재정지출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점,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기대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세계 명목GDP의 24.8%, 2019년 기준)이 크다는 점에서 세계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3) 9.1일자 홍콩에서 발간되는 South China Morning Post지는 미국이 미·중 간 무역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군사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던 것을 무역분쟁 발생 후 2020.12월까지 수출통제항목을 4,500개 이상으로 늘렸으며, 이 중 약 1,900개(42%)가 과학기술도구라고 보도

4) 2020.12월 통과된 해외기업책임법은 미국 자본시장에 상장한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자본시장 내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였음. 특히 미국 자본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해 중국정부가 동사 정책에 개입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를 요구(2022년 회계연도 시행).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미국 자본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을 통제하기 시작. 하나의 예로 지난 6.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형 배차서비스업체인 중국기업 디디추싱에 대해 동기업이 보유한 대량의 데이터가 미국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앱다운로드 금지 등 규제와 조사를 개시

- 만약 기대물가의 상승으로 미국 물가가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tapering)의 속도를 올리거나 조기 금융긴축을 단행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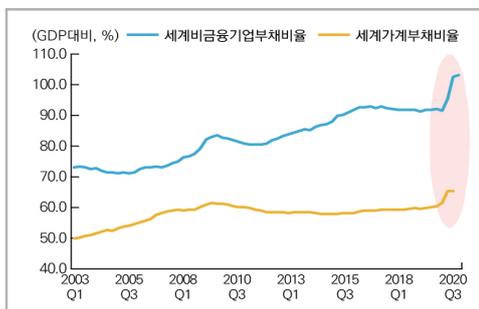
**| 그림 14 | 미국 기대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뉴욕 Fed, 미시간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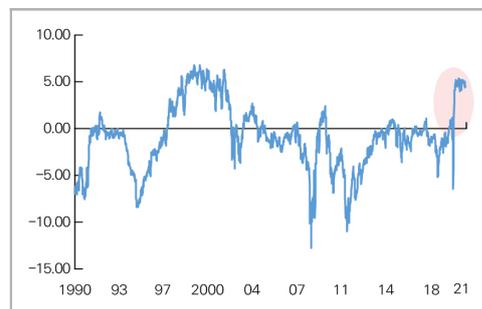
- 세계적인 부채증가세와 미국의 높은 주가가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완화적 금융정책을 시행하여 2020년 동안 기업 및 가계 부채가 급증
  - 미국의 경우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주식가치(stock valuation)가 IT버블이 발생했던 2000년 초반과 유사한 수준

**| 그림 15 | 세계 비금융기업부채와 가계부채비율 추이**



주: GDP대비 비율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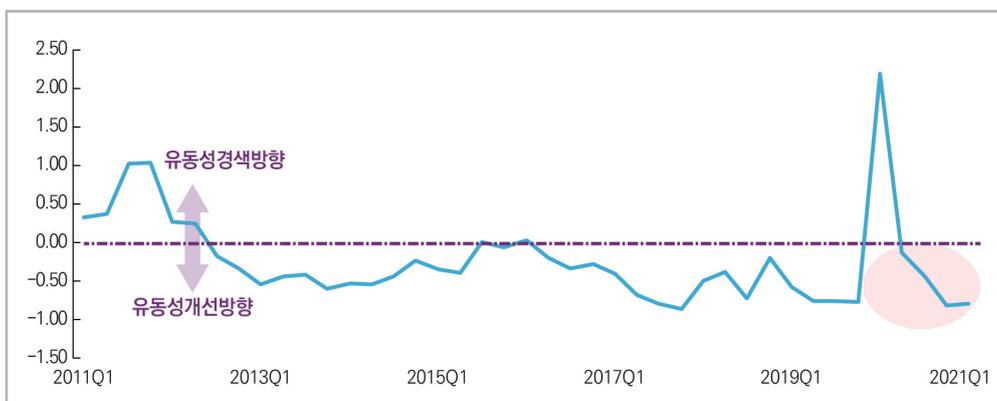
**| 그림 16 | 미국 주가의 위험지수 추이**



주: IMF는 기초경제여건 대비 상대적인 주가의 위험지수를 산출하였고, 위 그림은 표준편차에서 평균값을 차감한 것  
자료: IMF

- 세계적인 부채 증가 및 높은 수준의 미국 주가는 국제금융시장이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
  - 미국의 금융상황지수(IMF 산출)가 미국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이 미국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
  - 만약 물가불안을 우려하여 미국 연준이 금융긴축을 실행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

| 그림 17 | 미국의 금융상황지수 추이



주: 금융상황지수는 실물경제와 금융지표를 계량적으로 종합하여 도출한 지수로서 표준편차에서 평균값을 차감한 것. 0을 중심으로 높은 값일수록 금융시장 내 유동성사정의 경색, 낮은 값일수록 유동성사정의 호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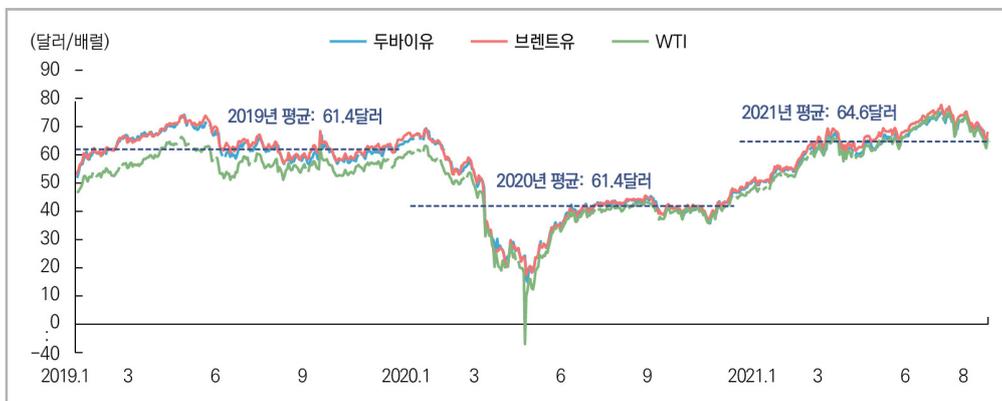
자료: IMF

### 라. 국제유가

- 국제유가는 2021년 상반기 중 수요가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7월 중순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하락
  - 국제유가는 2021년 들어 원유수요 회복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우디의 추가 감산 계획과 OPEC+의 감산 연장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
  - 또한,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백신보급 확대로 원유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 증가세 둔화 등으로 상반기 중 상승세를 지속하며 6월 중 배럴당 70달러를 상회

- 7월초 국제유가는 OPEC+의 합의 결렬로 원유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급등하였으나, 7.18일 감산완화 합의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8월 중 배럴당 66.5달러(3개 유종 평균)까지 하락
  - OPEC+는 8월부터 매월 일평균 40만 배럴씩 감산을 완화하여 연말까지 일평균 2백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
  - 또한, 7월 들어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각국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회복 지연 우려가 확대된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

| 그림 18 |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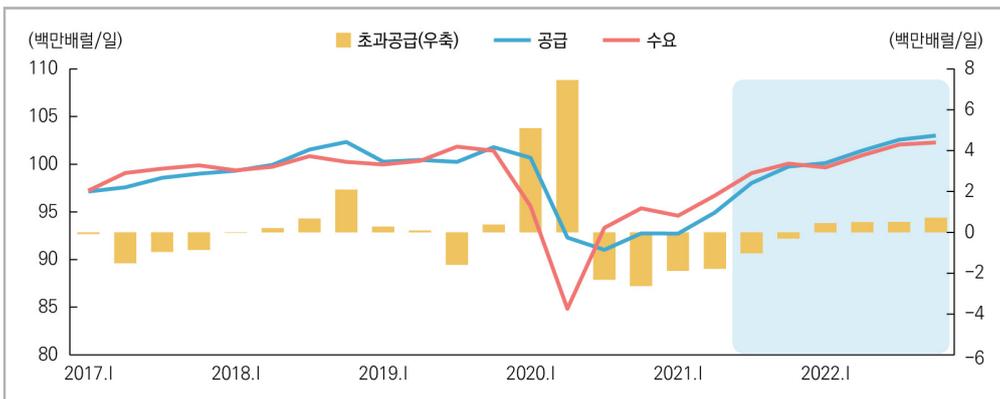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2022년 국제유가는 수요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OPEC+와 비OPEC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배럴당 60달러 중반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은 2022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중반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공급부족이 완화되면서 2021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주요 투자은행 평균 WTI 가격 전망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배럴당 65.3달러, 63.1달러,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배럴당 68.4달러, 66.9달러(\*21.8월말 기준)
    - EIA는 2021년 WTI와 브렌트 유종의 평균 가격을 배럴당 67.3달러 2022년 64.2달러로 전망(\*21.8월 기준)
    - IMF는 7월 「World Economic Outlook」 에서 2021년과 2022년 3개 유종 평균 유가를 각각 64.68달러, 63.02달러로 전제

- IHS Markit은 2021년과 2022년 브렌트유 가격을 각각 배럴당 67.5달러, 66.1달러로 전망(\*21.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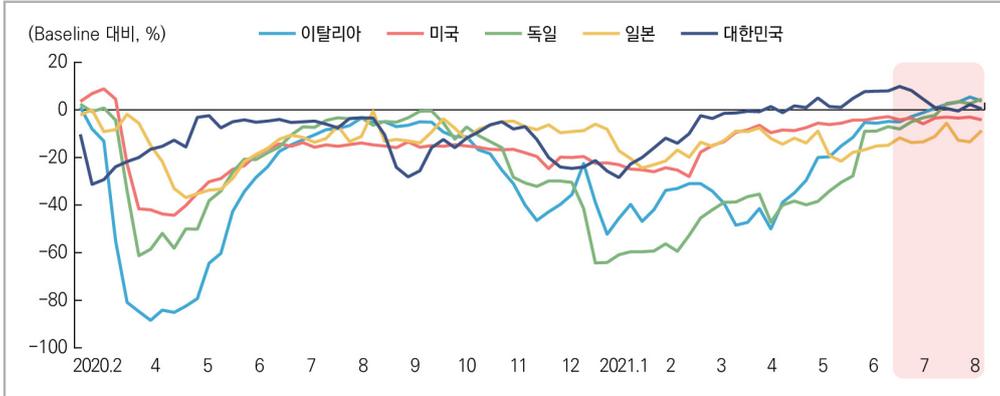
| 그림 19 | 원유의 수요와 공급 추이 및 전망



주: 2021년 3/4분기부터는 전망치  
 자료: EIA

- 2022년 원유 수요는 백신접종 진전과 경제활동 정상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세계경제 회복, 백신접종률 상승 및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백신접종률 상승 등으로 원유수요가 확대될 전망
    - OPEC은 8월 「Monthly Oil Market Report」에서 세계 석유수요가 2021년 중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 중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
    - EIA의 8월 「Short-Term Energy Outlook」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중 원유수요가 일평균 1억 257만 배럴로 예상되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4분기(1억 179만 배럴)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최근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확진자 수 증가가 수요회복을 제한할 수 있으나, 백신접종 진전 등으로 원유 수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확진자 수 증가에도, 주요국의 이동성 지수는 이전 확산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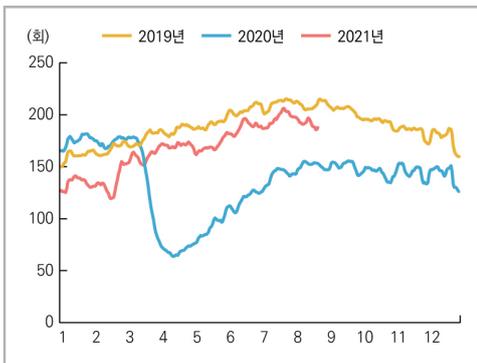
| 그림 20 | 주요국 이동성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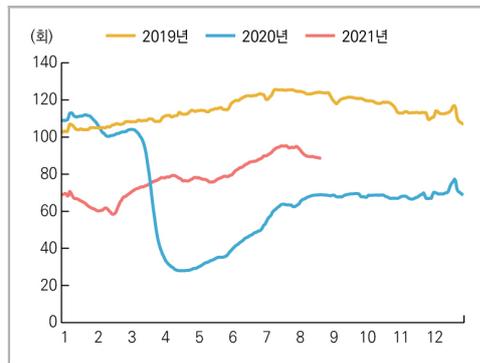
주: Baseline 은 2020년 1월 3일~2월 6일 기준, 주간자료  
 자료: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Index

-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인 항공기 운항건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2022년 중 운송용 석유수요의 증가가 예상
  - 전세계 상업용 항공기 운항횟수는 2020년 4월 중 2019년 대비 24.9%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 8월에는 2019년의 76.2% 수준으로 회복
  - 개인, 공공, 정부 부문의 항공기까지 포함할 경우 94.8%까지 회복

| 그림 21 | 전체 항공기 운항횟수 추이



| 그림 22 | 상업용 항공기 운항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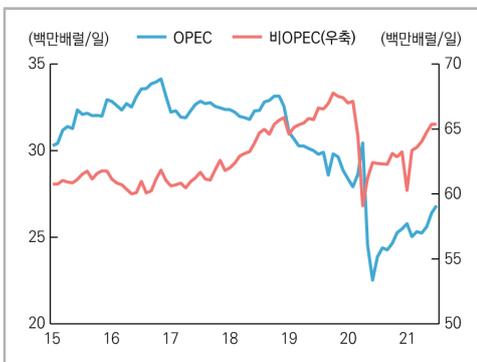


- 주: 1. 7일 이동평균  
 2. 상업용 항공기에는 상업용 여객기, 화물기, 전세기, 일부 상업용 제트기기가 포함되며, 전체 항공기에는 상업용 항공기 및 개인 항공기, 헬리콥터, 앰블런스, 정부 항공기, 일부 군사 항공기 및 드론이 포함

자료: Flightradar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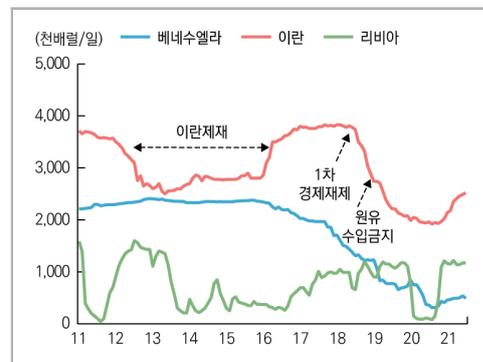
- 2022년 원유 공급은 OPEC+의 순조로운 감산 축소, 유가 상승에 따른 셰일오일 업체들의 생산 재개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OPEC+는 경제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감산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
    - 2021년 8월부터 일평균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 감산량인 580만 배럴 규모는 2022년 9월 모두 소진될 전망
    - 다만, OPEC+는 공급상황, 변이바이러스 확산, 이란 생산 재개 등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으로 감산량 조절 및 감산기간의 연장 가능성 등도 상존
    - 또한, OPEC의 감산 면제국인 리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원유생산 확대에 의한 공급 증대 가능성
    - OPEC의 감산 면제국인 리비아가 2020년 9월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란과 베네수엘라도 경제 체제 완화 등으로 향후 생산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림 23 | OPEC, 비OPEC 생산량 추이



자료: Energy Intelligence Group, Bloomberg

| 그림 24 |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 생산량



자료: Bloomberg

- 또한,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이 생산을 재개하면서 국제 원유의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
  - 미국의 원유생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유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원유 시추기 수가 급감하고 원유 생산량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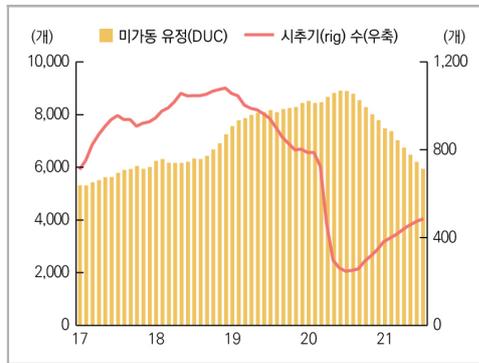
-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채산성이 향상된 셰일업체들이 생산을 점차 재개하여 2022년 중에는 생산량이 확대될 전망
- 2021년 1~5월 중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은 일평균 1,087.4만 배럴로 지난해 하반기 1,083.3만 배럴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의 원유 수요 회복세와 시추기수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생산 증가가 예상<sup>5)</sup>
- 다만, 투자자들의 수익환원 요구 등에 따른 보수적인 자본 운용<sup>6)</sup>, 화석연료 규제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 등으로 셰일업체들의 투자활동이 제약되어 생산증가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

| 그림 25 | 미국 원유 생산량 및 WTI 가격



자료: EIA, Bloomberg

| 그림 26 | 미국 미가동 유정 및 시추기 수



자료: EIA, Baker Huges

5) EIA는 2021년과 2022년 미국 원유 생산량을 각각 일평균 1,110만 배럴, 1,180만 배럴로 전망(「Short-Term Energy Outlook」, 2021.8)  
 6) 셰일업체 투자자들이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미국 셰일업계는 잉여 현금흐름이 발생해도 이를 부채상환, 배당금지급, 자사주매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자본투자 규모를 평균 40% 가량 감축(한국석유공사)

## 2. 국내 경제여건

### 가.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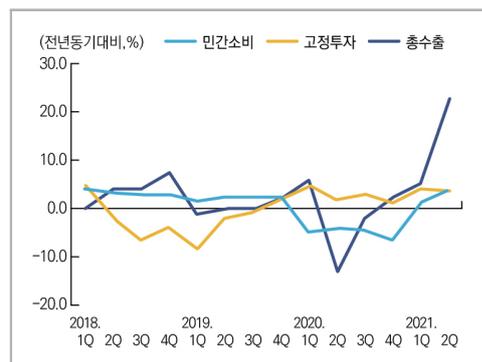
-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빠른 회복세를 나타냄
  - 실질GDP 성장률은 수출 호조 지속과 설비투자 확대, 민간소비 회복세 등으로 '21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4.0% 성장 ('20년 연간 GDP 성장률 -0.9%)
  - 총수출(GDP 물량 기준)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따른 해외수요확대로 IT 및 비IT제품이 모두 수출 호조세를 나타내며 '21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1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설비투자 또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6% 증가하면서 수출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
  - 민간소비는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지며 GDP성장률(-0.9%)을 크게 하회하는 5.0% 감소하였으나, '21년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임
    - 다만 7월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3/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제약될 가능성
  - 건설투자는 SOC예산 집행 축소, 건설자재 공급차질 등으로 토목건설이 감소하는 등 장기간의 부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 그림 27 | 실질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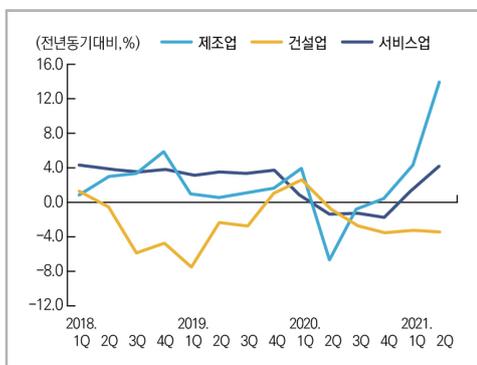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그림 28 | 소비, 투자, 총수출 증가율 추이



- 제조업의 경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율이 확대되었으며,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냄
- 건설업은 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함
- 명목GDP 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높아지며 2021년 전년동기대비 1/4분기 중 4.6%에서 2/4분기 중 7.6%로 상승

| 그림 29 |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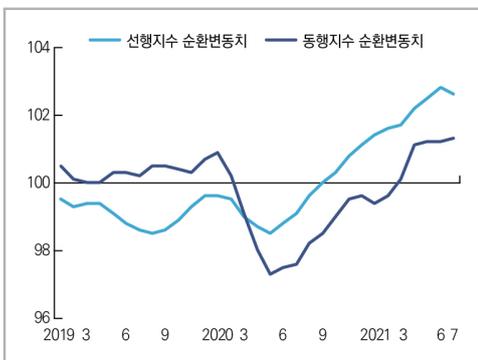
| 그림 30 | 명목GDP성장률 추이



## 나. 경기 국면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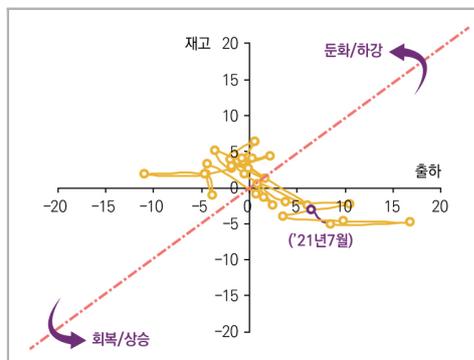
- 국내경기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 2/4분기 중에 경기저점을 형성한 이후 회복세를 지속
  -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9월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전개 상황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냄
  -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경기 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지표인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를 살펴보면, 2020년 3/4분기부터 재고가 감소하고 출하는 증가하는 전형적인 경기회복 국면의 특징을 나타냄

| 그림 31 | 경기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32 |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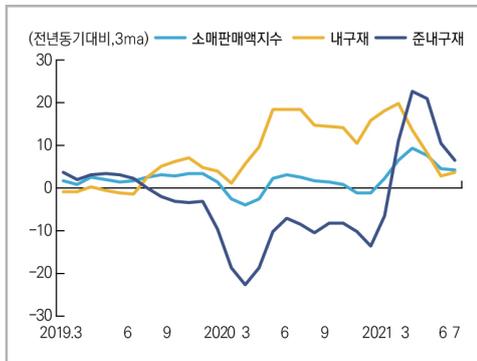


### 다. 내수와 수출 여건

- 소비는 2021년 2/4분기 중 예상외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3/4분기 중 코로나19 확산이 재연되며 조정을 받는 모습
  - 민간소비는 '21년 2/4분기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며 의복 등 준내구재,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 등이 늘어나며 전분기보다 증가 폭이 확대
    - 민간소비(계절조정 전기대비, %): (20.4/4분기)-1.3→(21.1/4분기)1.2→(2/4분기)3.5
  - 다만 3/4분기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는 조짐으로 실제 최근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7월 소매판매액의 경우 준내구재와 내구재 판매가 모두 줄어드는 등 감소
    - 소매판매액(계절조정 전기대비, %): (21.1/4분기)1.7→(2/4분기)2.7→(21.7월)-0.6
- 고정투자의 경우 건설투자는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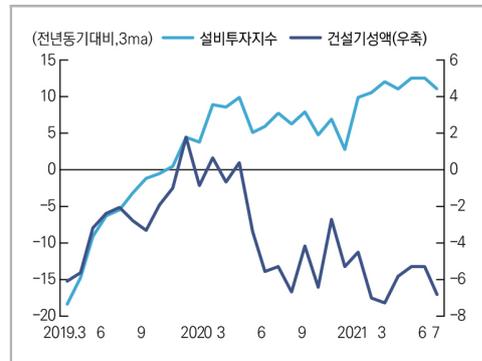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 격인 건설수주액은 개선세에 있으나, 아직 건설기성액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건설기성액(전년동기대비, %): (‘21.1/4분기)-7.2→(2/4분기)-5.3→(‘21.7월)-8.1
- 설비투자지수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이와 연관된 산업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냄
  - 반도체 등 기계류투자에 대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 또한 ’21년 2/4분기 중 증가로 전환

| 그림 33 | 소매판매액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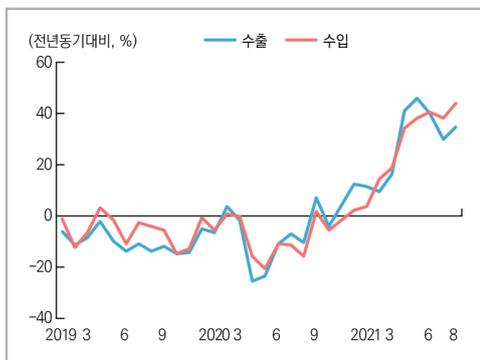
| 그림 34 | 고정투자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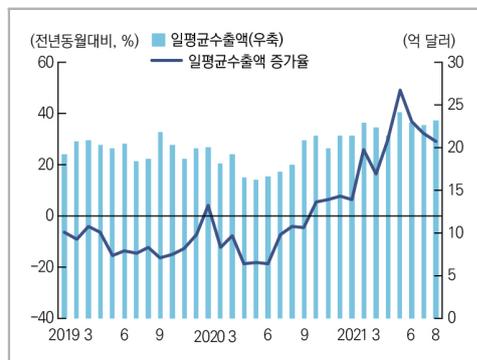
- 수출은 주요국의 경기회복과 교역 확대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감
  - 수출(통관)은 IT와 비IT제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모두 확대되면서 ’21년 1~8월 중 전년동기대비 27.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
    -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의 경우 ’20년 18.8억달러 수준에서 ’21년(1~8월) 22.6억달러로 큰 폭 확대
  - 수입(통관)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국내경기 회복세 등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원유와 철강을 비롯한 1차산품 수입이 전년 대비 36.0% 대폭 증가하였으며 중간재(28.1%), 자본재(27.1%), 소비재(21.3%) 등이 모두 증가

| 그림 35 |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관세청

| 그림 36 | 일평균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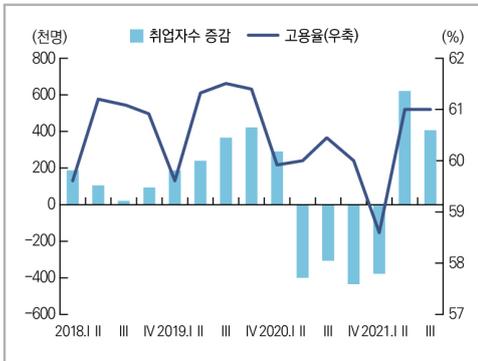


## 라. 고용과 물가 여건

### □ 고용시장은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개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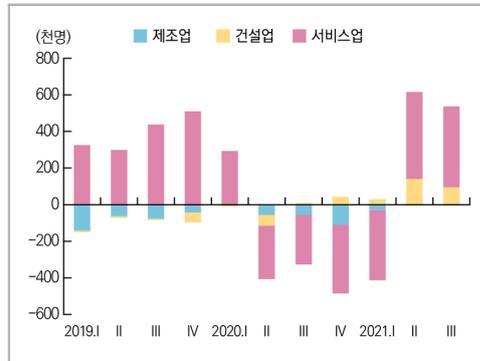
- 취업자수는 '21년 3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전환하여 월평균 5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은 2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
  - 고용률(%): ('21.1/4분기)58.6→(2/4분기)61.0→('21.7월)61.3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지난해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제활동 제약의 완화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 호조세에 따른 업황 개선과 함께 소폭 증가로 전환한 모습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8월부터는 시차를 두고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일시적으로 제약될 가능성

그림 37 | 취업자수 증감과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8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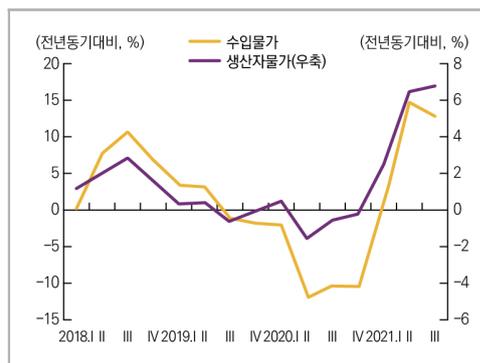
□ 물가는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20년 연간 0.5%의 낮은 상승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1년 들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서비스물가의 점진적 오름세 등으로 4월 이후 2%대 중반을 넘어서는 상승세가 지속
-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공산품가격 오름세 등으로 '21년 7월 중 전년동월대비 7.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2011년 6월(7.2%) 이후 최고치를 시현

그림 39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그림 40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추이



주: 2021년 3/4분기는 7~8월 평균(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7월 수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2. 민간소비
3. 건설투자
4. 설비투자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 대외거래
7. 고용
8. 물가
9. 금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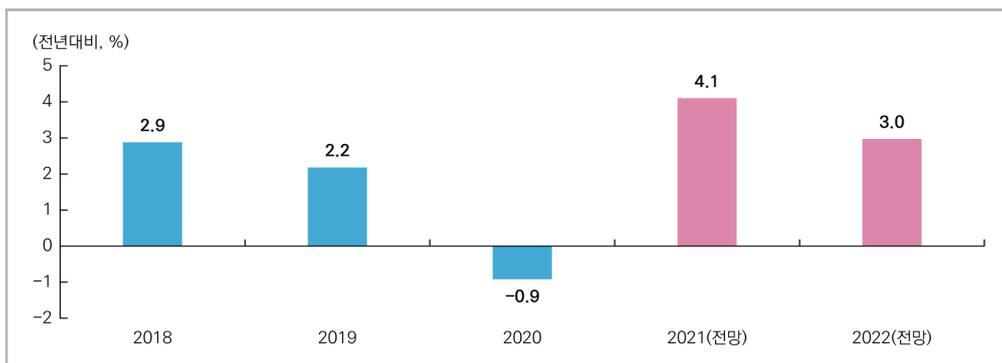
## II.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 1. 경제성장률

#### 가. 2022년 전망<sup>7)</sup>

-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되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4.1%와 3.0% 성장할 전망
  - 2021년에는 글로벌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4.1% 성장할 전망
  - 2022년에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3.0%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백신 접종 확대, 취업자 수 증가,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회복 흐름이 강화되며 2021년 3.0%, 2022년 3.3% 각각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영향으로 그간 부진했던 대면서비스 소비와 해외 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2021년 건설자재 공급차질과 가격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0.1% 증가에 머물고, 2022년에는 토목건설이 부진하겠으나,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1.9% 증가할 전망

| 그림 41 | 실질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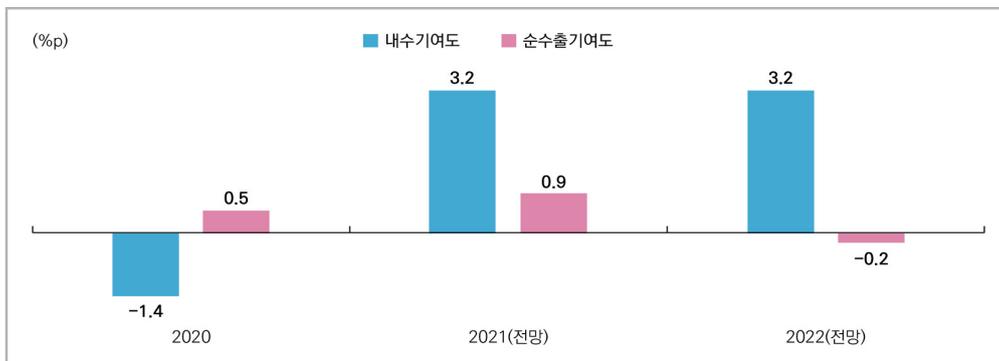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7) 본 경제전망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접종률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활동 제약이 점차 완화되며 정상화될 것임을 전제

- 설비투자는 2021년 주요국의 빠른 경기회복세와 글로벌 IT제품 수요증대 등으로 9.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신성장 및 친환경과 연계된 투자수요 확대가 지속되며 3.5% 증가할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며 2021년 4.3%, 2022년 4.2% 각각 증가할 전망
- 총수출(물량)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교역량 확대로 2021년 8.9% 증가하고, 2022년에는 전년도 높은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함에도 3.8% 증가할 전망
  - 수입은 2021년 7.3% 증가를 기록하고 2022년에는 내수회복세 강화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4.7% 증가할 전망

- 2022년 실질GDP에 대한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순수출(수출-수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2021년 1.4%p 수준에서 2022년에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며 전년대비 0.2%p 상승한 1.6%p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고정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21년 1.2%p, 2022년 0.9%p 각각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8~2019년 기간 중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2020년 0.6%p와 2021년 0.9%p로 확대된 후 2022년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로 하락(0.3%p) 전망
    -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21년 0.0%p에서 2022년 0.3%p로 상승할 전망
  -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2021년 수출 호조로 0.9%p를 보인 후 2022년에는 총수입 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0.2%p를 기록할 전망

| 그림 42 |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1 | 2021~2025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총생산	-0.9	4.1	3.0	2.5	2.3	2.2
민간소비	-5.0	3.0	3.3	2.3	2.2	2.1
설비투자	7.1	9.8	3.5	3.3	3.1	3.0
건설투자	-0.4	0.1	1.9	1.6	1.4	1.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3	4.2	4.0	3.8	3.7
총수출	-1.8	8.9	3.8	3.0	2.5	2.2
총수입	-3.3	7.3	4.7	3.6	3.1	2.8
경상수지(억달러)	753	824	705	627	565	520
상품수출(통관)	-5.5	20.3	4.2	3.1	2.5	2.4
상품수입(통관)	-7.1	24.9	3.4	3.3	2.6	2.5
취업자증감(만명)	-21.8	22.5	26.0	23.0	20.0	20.0
실업률	4.0	4.0	3.9	3.9	3.9	3.8
소비자물가	0.5	2.1	1.6	1.6	1.5	1.5
국고채금리(3년만기)	1.0	1.3	1.8	2.1	1.9	1.7
원/달러 환율(원)	1,180	1,126	1,121	1,153	1,138	1,130
GDP디플레이터	1.3	1.5	1.2	1.2	1.2	1.2
명목국내총생산	0.4	5.6	4.2	3.7	3.5	3.4

주: 2021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관세청

□ 명목GDP 성장률은 2021년 5.6%, 2022년 4.2%로 전망

- 2022년 실질GDP 성장률(21년 4.1%→22년 3.0%)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5%→1.2%)이 2021년보다 하락
  - 2022년 명목GDP 성장률(4.2%) = 실질GDP 성장률(3.0%) +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2%)
  - 2021년 명목GDP 성장률(5.6%) = 실질GDP 성장률(4.1%) +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5%)

| 표 2 | 명목GDP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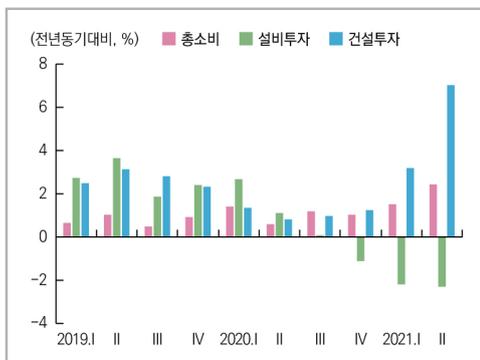
(전년대비 증가율, %)

	2019	2020	2021(전망)	2022(전망)
명목GDP 성장률	1.4	0.4	5.6	4.2
실질GDP 성장률	2.2	-0.9	4.1	3.0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0.8	1.3	1.5	1.2

주: 소수점 처리에 따라 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합이 명목GDP성장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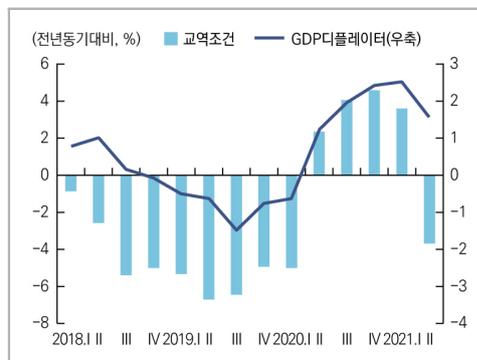
- 2022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교역조건이 개선되나 민간소비 등 내수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2021년 1.5%(전망)보다 낮은 1.2%를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와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2021년 2.0% 내외 상승률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로 1%대 중반 수준을 보일 전망
  -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 2021년 건설용 재료의 생산자물가가 급등하며 전년대비 6%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2022년에는 기저효과와 건설용 재료 가격 안정 등으로 하락할 전망
  - 설비투자 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 중 최종자본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원/달러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로 2021~2022년 모두 하락할 전망
  - 수출입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차이로 정의한 교역조건은 2021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악화되며 GDP디플레이터 하락요인이 되겠으나, 2022년에는 국제유가 안정과 반도체가격 상승으로 GDP디플레이터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림 43 |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44 |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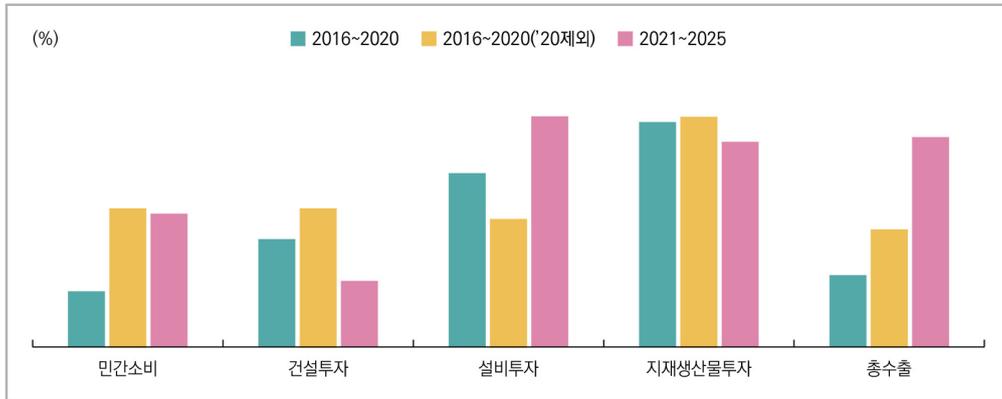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한 수출 둔화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성장률 둔화
  -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

## 나. 중기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8% 성장 전망
  - 이전 5년(2016~2020년) 기간 대비 설비투자와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
    - 수출의 성장기여도(%p): (2016~2020년)0.6→(2021~2025년)1.6
    -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p): (2016~2020년)0.3→(2021~2025년)0.4
  - 우리 경제는 2021~2022년 기간 중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인 이후 2023~2025년 기간 중 코로나19 이전 성장경로로 접근할 전망

| 그림 45 | 실질GDP 지출부문별 중기 전망(5년 단위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 2022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가 3.0%로 동일하나 지출부문별로는 차이가 발생
  -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2년 우리경제가 이연된 소비 분출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GDP 지출부문별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보다 설비투자와 수출은 높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낮게 전망

| 표 3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2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전년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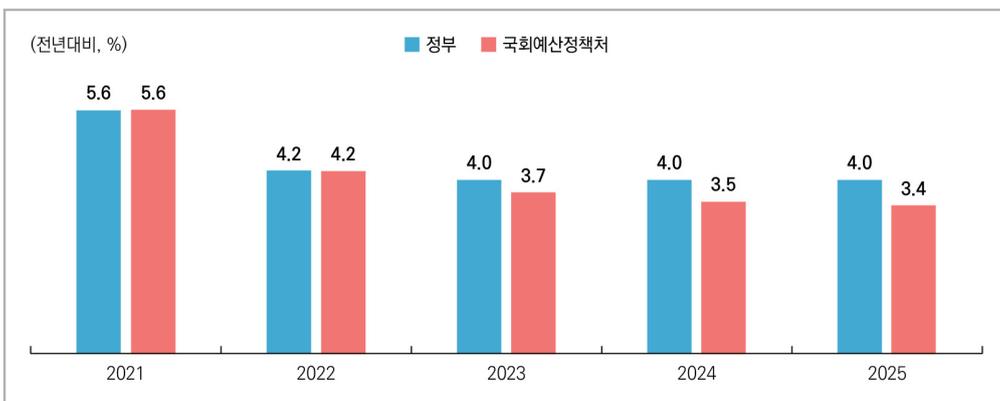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실질GDP	3.0	3.0
민간소비	3.3	3.5
설비투자	3.5	3.0
건설투자	1.9	2.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2	3.8
수출(통관기준)	4.2	3.8

주: 수출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통관기준으로만 전망치를 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간 차이가 발생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는 2021~2022년 기간 중 동일한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2021년 5.6%, 2022년 4.2%)
  - 하지만 2023~2025년 기간 중 정부는 명목GDP 성장률이 매년 4.0% 수준으로 동일한 전망치를 보고한 데 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3.7%, 2024년 3.5%, 2025년 3.4%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그림 46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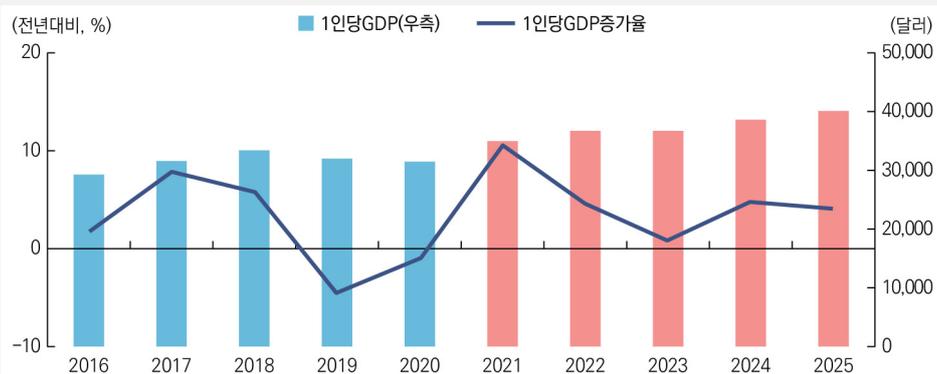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 [BOX 1]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전망

- 우리나라의 달러기준 1인당 GDP는 2021년 35,000달러, 2022년 36,600달러 내외를 각각 기록할 전망
  - 1인당 GDP는 2019년과 2020년 경제성장률 하락과 원화가치 약세로 2년 연속 하락
    - 1인당 GDP(달러): ('18년) 33,429→('19년) 31,929→('20년) 31,637
    - 명목GDP 성장률(%): ('18년) 3.4→('19년) 1.4→('20년) 0.4
    - 원/달러 환율(원): ('18년) 1,100→('19년) 1,166→('20년) 1,180
  - 2021년과 2022년 1인당 GDP는 성장률 제고 및 원화가치 상승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6%와 4.6% 상승한 35,000달러와 36,600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명목GDP 성장률(%): ('21년) 5.6→('22년) 4.2
    - 원/달러 환율(원): ('21년) 1,126→('22년) 1,121
- 2025년 1인당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률과 환율 전망치를 전제로 사상 처음 40,000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전망
  - 이와 같은 1인당 GDP 전망은 우리 경제가 2025년까지 연평균 2.8%의 성장을 지속하고, 1.3% 내외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1,134원/달러의 환율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
  - 2025년 4만달러대 진입에 성공할 경우 3만달러('17년 31,605달러) 달성 이후 8년이 소요
    - 단 1인당 GDP 전망은 주요 경제변수들(성장, 환율, 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전제로 시산된 것으로 실제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1인당 GDP 추이와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IMF는 2025년경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이 41,18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IMF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은 호주,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낮으나 이탈리아, 대만, 스페인 등의 국가들보다 높음
  - 2025년 3만달러대 국가: 이탈리아(39,969), 대만(39,235), 스페인(36,928), 슬로베니아(34,929) 등 7개국
  - 4만달러대 국가: 한국(41,187)
  - 5만달러대 국가: 벨기에(58,246), 영국(56,034), 뉴질랜드(54,302), 이스라엘, 일본(53,812) 등 6개국
  - 6만달러대 국가: 스웨덴(69,724), 네덜란드(67,367), 오스트리아(63,789), 핀란드(63,134) 등 5개국
  - 7만달러대 이상 국가: 룩셈부르크(151,684), 아일랜드(114,522), 스위스(108,180), 노르웨이(79,268), 미국(78,660), 호주(71,589) 등 9개국

1인당 GDP 국제비교(2025년 기준 IMF 전망)



주: 1인당 GDP가 10만달러를 상회하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3개국은 제외  
 자료: IMF databas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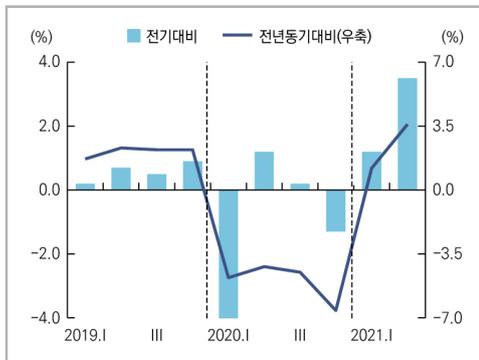
- 한편 IMF는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한국의 2025년 1인당 GDP 수준은 56,418달러로 영국(55,868달러)과 일본(51,895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한국과 일본의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는 2018년부터 한국(43,001달러)이 일본(42,725달러)을 추월
  - \* 국가마다 다른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하여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

## 2. 민간소비

### 가. 202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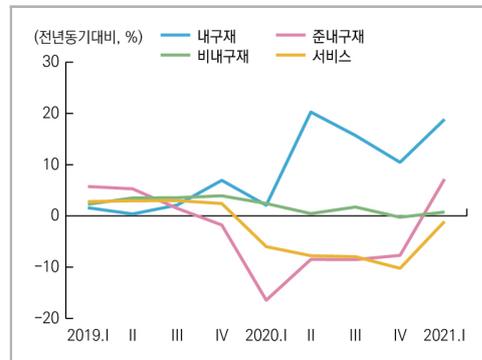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지난해 큰 폭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
  - 1/4분기와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각각 전기대비 1.2%, 3.5% 증가하며 지난해 4/4분기 부진(-1.3%)에서 벗어나는 모습
    - 2020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대비 5.0% 감소
    - 2021년 2월 중순부터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 영업제한 완화 조치 등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대면활동과 관련된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확대되기 시작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백신접종 확대로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며 2/4분기 경제성장을 견인<sup>8)</sup>

| 그림 47 |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48 | 형태별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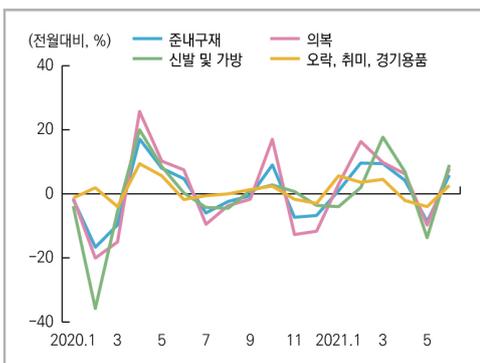


- 재화형태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던 준내구재와 대면서비스 소비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
  - 준내구재 판매는 온화한 날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의복, 신발 및 가방 등 외출 관련 상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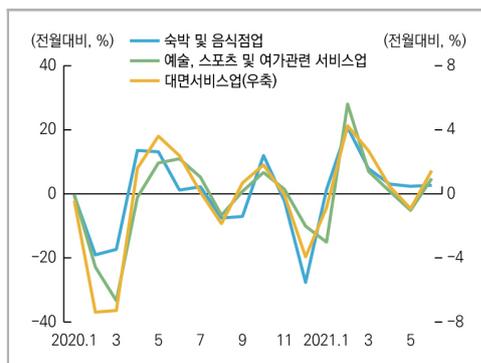
8) 2/4분기 전기대비 실질GDP 성장률 0.7% 중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6%p

- 대면서비스 생산은 숙박 및 음식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

| 그림 49 | 준내구재 판매 추이



| 그림 50 | 대면서비스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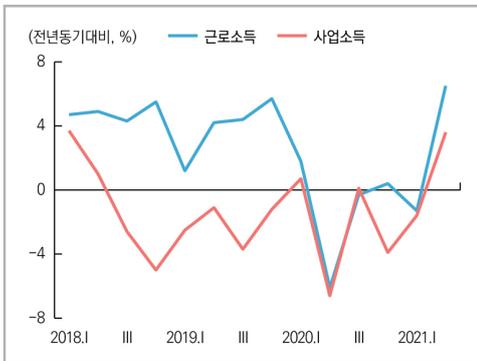
주: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합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금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확대와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상반기 중의 소비 회복 기조가 지속될 전망
  - 전체 인구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57.0%, 접종대상자대비 접종률은 62.8%를 기록(9월 1일 현재 1차 이상 접종 기준, 질병관리청)
  - 또한, 총 11.0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sup>9)</sup> 지급이 하반기 민간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
  - 정부는 9월초부터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 2022년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및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백신접종 진전으로 소비활동 및 소비심리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3.3% 증가할 전망
  - 2022년에는 경기회복세 및 기업 수익 개선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과 임금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득여건이 점차 개선될 전망

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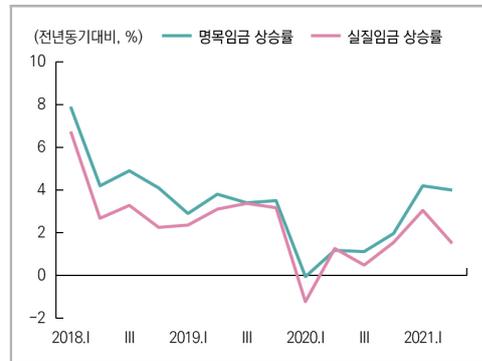
- 취업자 수는 백신보급 진전과 민간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회복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대비 22.5만명, 26.0만명 늘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국내경기 회복과 수출증가 등으로 2021년 상반기 중 임금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02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최근 경기 및 내수회복으로 기업실적과 자영업자 매출이 증가하면서 2/4분기 중 가계의 근로 및 사업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난 모습

| 그림 51 | 가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52 | 명목 및 실질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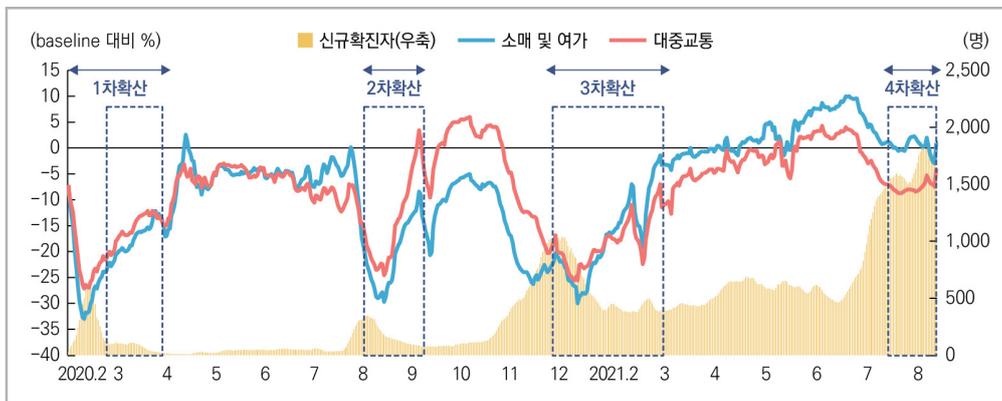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 또한, 가계의 저축증가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대된 점도 2022년 중 민간소비 개선을 뒷받침할 전망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대면소비와 해외소비가 감소하면서 저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가계의 은행예금은 2020년 10.6% 증가하였으며,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중 각각 8.1%, 5.7% 증가
- 소득여건 개선으로 소비여력이 확대된 가운데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주체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활동과 소비심리가 개선될 전망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폭은 이전 확산시기에 비해 크지 않은 모습으로 백신접종이 진전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소비활동이 본격 재개될 가능성
- 구글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의 소매 및 여가(retail and recreation) 이동량은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이나 2021년 7월 4차 확산 시기에는 이전 확산시기에 비해 이동량 감소폭이 크게 줄지 않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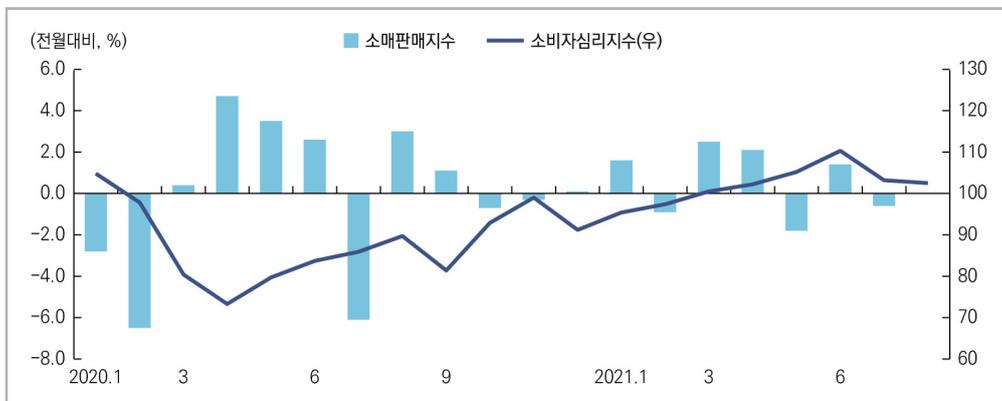
| 그림 53 | 국내 신규확진자수 및 이동성 지수 추이



- 주: 1. Baseline은 2020년 1월 3일~2월 6일 기준  
 2. 신규확진자, 이동성지수 모두 7일 이동평균  
 3. 1차 확산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2~3월, 2차 확산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를 시행한 8~9월, 3차 확산은 11월 19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차 유행이 꺾인 것으로 판단한 2021년 1월 10일까지임  
 4. 점선은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를 시행한 기간,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12월 8일부터 2단계로 완화한 2021년 2월 15일까지, 최근 확진자수 급증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까지 적용된 7월 12일 이후임
- 자료: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Index, Our World in Data, 국회예산정책처

-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백신 접종,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7개월만에 하락
-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지난 확산기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된 모습이며,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하는 모습
- 7월 소매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이전 코로나19 확산시기에 비해 감소폭은 크지 않은 모습

| 그림 54 |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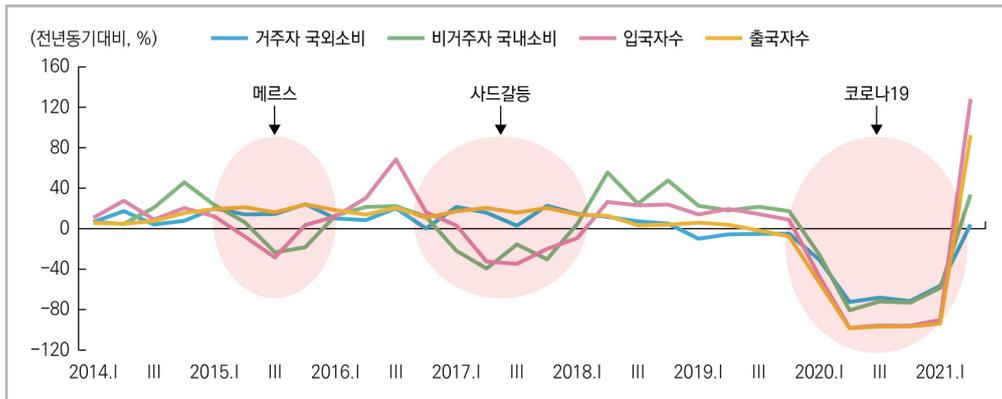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한편, 2022년 중에는 큰 폭으로 위축되었던 해외소비(거주자 국외소비)가 회복되면서 민간소비 개선에 기여할 전망
  - 2020년 국내 출국자수와 거주자 국외소비는 코로나19 감염우려 등에 따른 해외여행 기피 등으로 각각 85.1%, 59.2% 감소
  - 점차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2주 자가격리 면제<sup>10)</sup> 등이 추진되면 출국자가 점차 증가하고 해외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2/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해외 현지의 이동제한 조치 일부 완화에 따른 여행지출 증가 등으로 전분기(25.6억 달러)에 비해 31.7% 증가한 33.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출국자도 전년동기대비 92.3% 증가하는 등 해외 소비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

10) 우리나라는 7월 5일부터 해외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자가격리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음성확인서 제출자 또는 백신접종 완료 대상자에 대해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

- 다만, 변이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신흥국의 낮은 접종 속도, 여행을 기피하는 심리 등은 해외소비 증가의 제약요인이 될 전망

| 그림 55 | 국내 출입국자수, 비거주자 국내소비, 거주자 해외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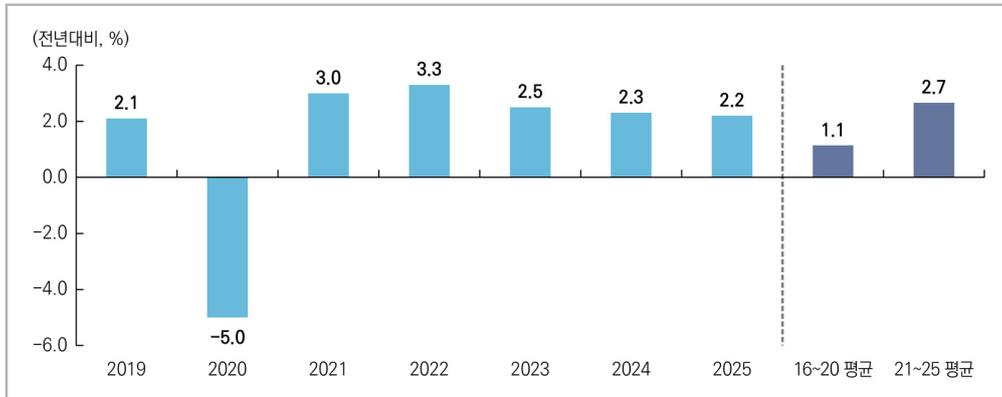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 나. 중기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중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21~2022년에는 3%대 성장을 보일 전망
    - 2020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5.0% 감소
    - 2021년부터는 소비활동이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3.0%, 3.3% 증가할 전망
  - 중기적으로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부채부담, 시중금리 상승, 저출산 및 고령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약화될 전망

| 그림 56 | 민간소비 중기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코로나19의 충격 등으로 민간부문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기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

-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 2020년 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0.7% 증가하여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기업대출은 12.2% 증가하여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 시현
  -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자금, 주가회복에 따른 주식투자 수요 확대,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형 대출 증가 등에 기인
  -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실시<sup>11)</sup>, 기업의 자금 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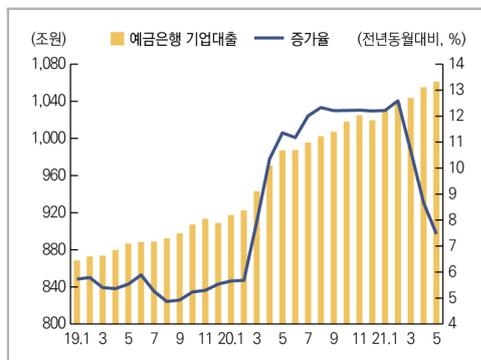
11) 정부와 금융당국은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1차 및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에 총 21.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통해 17.9조원,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45.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자금조달 애로 경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 그림 57 | 예금은행 가계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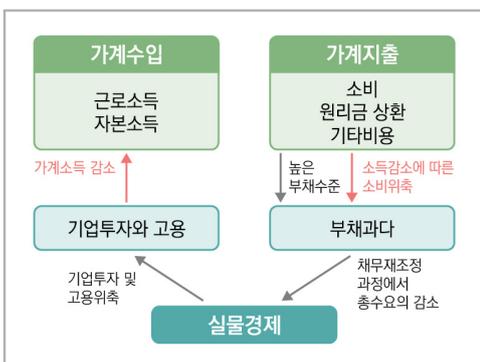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그림 58 | 예금은행 기업대출 추이



-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부채조정 과정에서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가계의 민간소비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둔화가 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소비를 제약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
  - IMF<sup>12)</sup>가 전세계 80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실질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은 당해년과 다음해의 실질소비를 증가시키나, 2년 이후부터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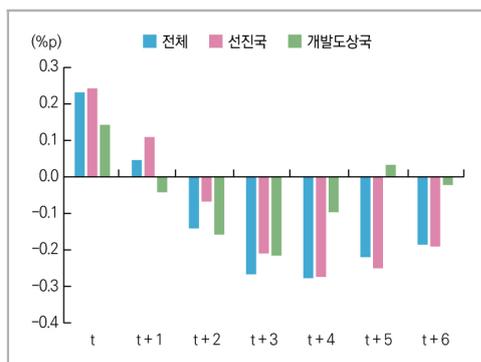
| 그림 59 |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주: 검정색 화살표는 채무과다 가계의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경우의 1차 영향이며, 빨간색 화살표는 2차 영향

자료: IMF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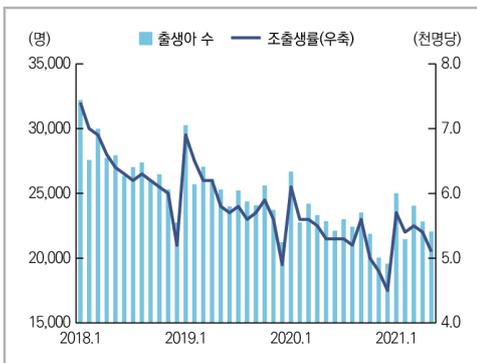
| 그림 60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에 따른 실질소비의 영향



12)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7.10,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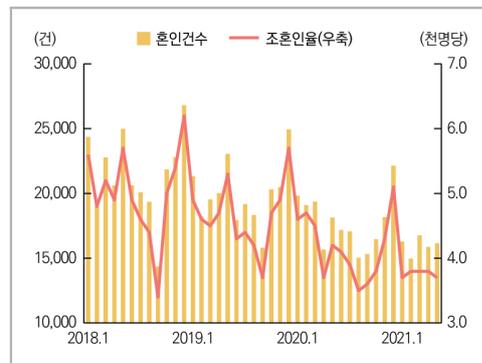
- 2020년 중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혼인율 급감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중기적으로 출산, 육아 및 교육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2020년 혼인건수는 전년대비 10.6% 줄어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출생아 수도 전년대비 10.0% 감소하였으며 2020년 4/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 그림 61 |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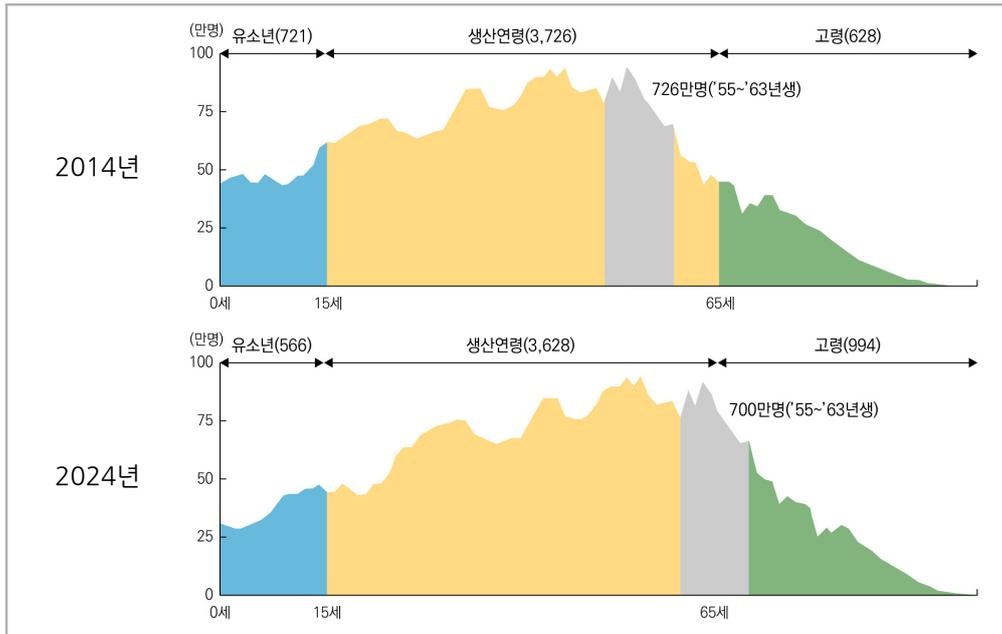
| 그림 62 |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



-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비 주력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민간소비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로 이동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은 급증
    -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유소년(0~14세)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769만명에서 2022년 945만명 수준으로 22.9% 증가할 전망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 3,76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부터는 감소세가 더욱 확대

-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핵심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2008년에 2,10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부터 2천만명 선을 하회

| 그림 63 | 주요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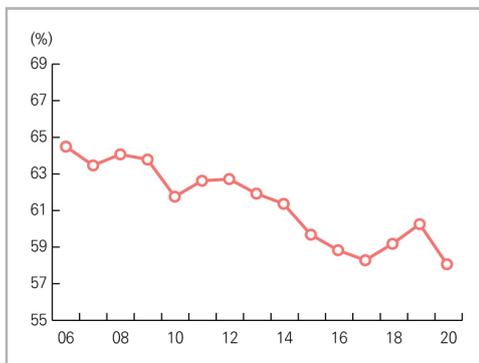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1955~1963년 베이비붐 세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대비용 예비저축 증가 등이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9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3세로 2000년 대비 7.3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84.4세)과 이탈리아(83.6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sup>13)</sup>
    -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경제주체들이 예비적 저축 및 생애주기적 저축 등을 통해 소비재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하락할 수 있으며 고령층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비성향 하락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

13) 「OECD Health Statistics」,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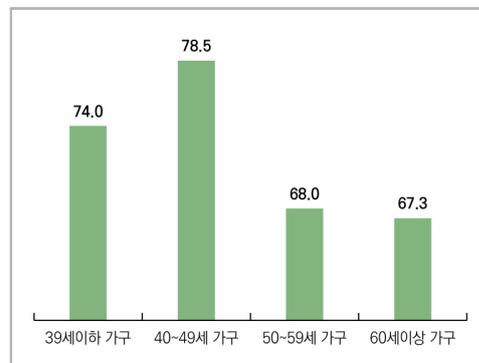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비성향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령인구 증가가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sup>14)</sup>
  - GDP계정의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으로 산출한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64.5%에서 2020년 58.0%까지 하락
  -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에 높은 수준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40~50대에는 저축의 증가로 낮아지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높아지는 형태를 보임
  - 미국과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각각 103.6%, 69.3%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2/4분기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은 67.3%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모습

| 그림 64 |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주: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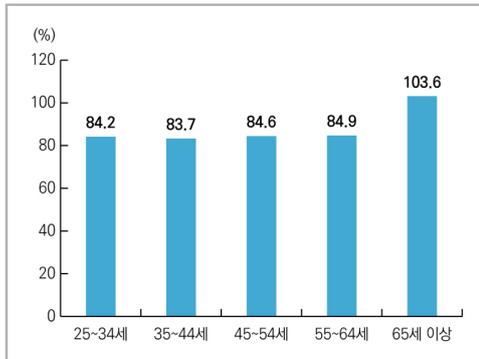
| 그림 65 |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주: 2021년 2/4분기 기준  
자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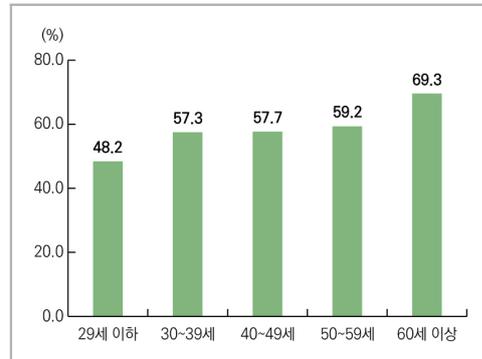
14) 고령화에 따른 소비효과는 고령화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소비 증가를 예상하는 견해와 생명연장에 따라 저축 증가 및 소비 축소를 예상하는 견해가 모두 있음

| 그림 66 | 미국의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주: 세후소득 기준  
 자료: Consumer Expenditure Survey 2019,  
 미국 노동부

| 그림 67 | 일본의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주: 전체 근로자 가구 대상, 2021년 2/4분기 기준  
 자료: 가계조사보고, 일본 총무성

- 다만, 중기적으로 계획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가계의 이전소득 증대를 통해 민간소비를 뒷받침할 전망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 일자리 조기회복, 서비스 중심 내수촉진 등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sup>15)</sup>
    - 2022년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이며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시킬 계획
  -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2021~2025년 평균 6.7% 증가하여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0~1세 영아수당 도입<sup>16)</sup>, 아동수당 지원 범위 확대(7세→8세 미만) 등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할 전망

15)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정부, 2021.9.

16) 월 30만원을 신규지급하며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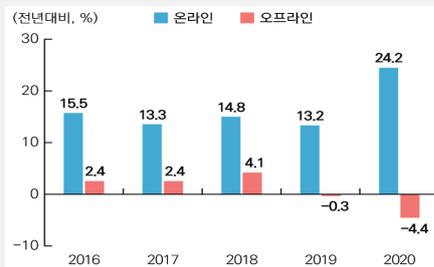
## [BOX 2] 온라인 판매<sup>1)</sup> 동향

- 온라인쇼핑은 IT 발달에 따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된 가운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온오프라인 몰 등 플랫폼 다양화에 힘입어 증가세
  - 전체 소매판매 중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1.5%에서 2020년 20.8%로 상승
    - 온라인쇼핑은 연간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지속하였으며, 2020년 중에는 24.2% 증가하여 전체 소매판매<sup>2)</sup> 증가율 0.4% 중 4.1%p의 기여도를 나타냄

온라인 오프라인 소매판매 비중



온라인 오프라인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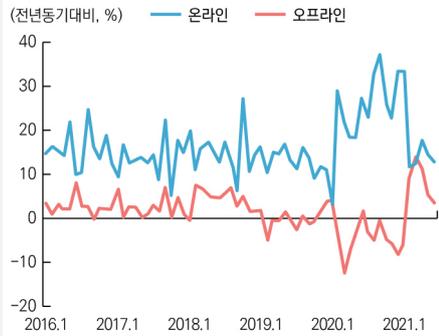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비대면 생활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입이 더욱 확대
  -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판매 증가율간 상관관계는 -0.44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온오프라인 업체간 판매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대면소비가 위축되면서 오프라인 판매 감소와 온라인 판매 증가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
    -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간 상관관계는 -0.59로 음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
    -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기간(2020년 2~3월, 8~9월, 2020년 11월~2021년 1월) 동안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오프라인 판매가 감소하는 모습

1)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중 소매판매의 업태별 소매판매현황을 이용하여 무점포소매를 온라인 판매로,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 편의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을 오프라인 판매로 분류함. 통계 특성상 서비스업 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프라인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비중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업을 포함한 온라인 판매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산업활동동향과 표본 및 조사방식 등이 달라 오프라인 판매와의 직접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활동동향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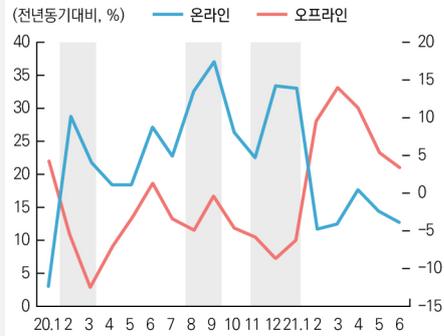
2) 경상금액기준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 추이



주: 음영부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음식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등 식품 판매도 큰 폭으로 증가
  -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서비스는 2020년 78.0% 증가하여 전체 온라인판매의 10.9%를 차지
    -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활동이 감소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 서비스 등 대면서비스 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

2020년 온라인 판매 품목별 증가율



온라인 판매 품목별 비중 및 변동

	'17	'20	변동
음식서비스	2.9	10.9	8.0
음·식료품	8.5	12.3	3.9
가전·전자·통신기기	9.7	11.4	1.7
e쿠폰서비스	1.3	2.7	1.4
농축수산물	2.6	3.9	1.3
생활용품	7.9	9.1	1.2
가구	2.8	3.1	0.4
기타서비스	0.7	1.0	0.3
자동차·자동차용품	1.1	1.4	0.3
신발	1.8	1.8	0.0
스포츠·레저용품	3.4	3.4	0.0
애완용품	0.8	0.7	-0.1
사무·문구	0.8	0.7	-0.1
서적	1.8	1.5	-0.3
가방	2.0	1.7	-0.3
아동·유아용품	3.6	3.0	-0.6
컴퓨터·주변기기	5.3	4.6	-0.6
패션용품·액세서리	2.2	1.4	-0.7
화장품	8.6	7.8	-0.8
문화·레저서비스	1.9	0.6	-1.4
의복	12.6	9.4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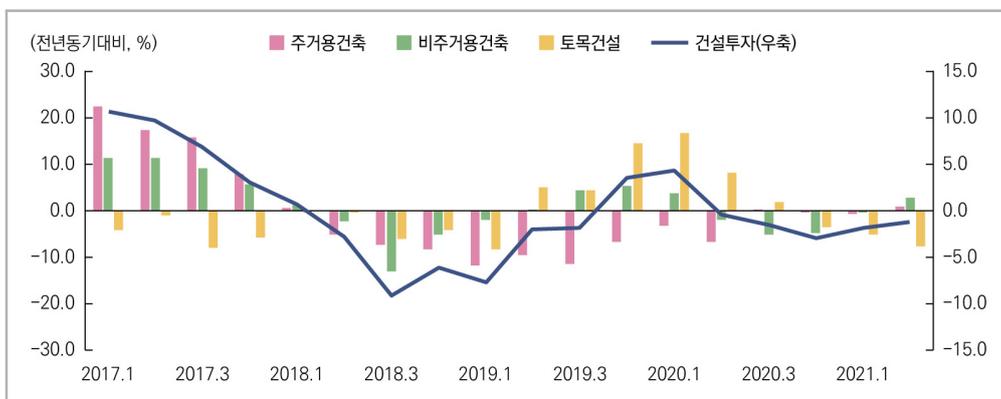
-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등 식료품의 온라인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 지속
  -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 이용이 감소하면서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판매는 각각 66.9%, 46.4% 증가
  - 장보기 전문 앱 출시, 배송서비스 발전 등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모습
- 의복의 경우 온라인판매 품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었으나,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온오프라인 판매가 모두 감소
  - 의복은 2017년 전체 온라인판매의 1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 9.4%로 네 번째로 하락
- 온라인을 통한 판매 및 온라인 판매 품목의 다양화 추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1인 가구, 맞벌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소매업체의 구조가 변화
    - 인구구조 변화로 소비자들이 점차 소규모, 편리성, 근접성 등을 추구하면서 온라인 판매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
    - 특히 모바일과 인터넷 발달,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통 플랫폼 출현,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이 온라인쇼핑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전망

### 3. 건설투자

#### 가. 2022년 전망

- 2021년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주거용, 비주거용)이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나 토목건설의 부진으로 전년도의 감소세를 벗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 2021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소폭 회복하겠으나 건설자재물가의 상승과 정부의 주택금융억제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1%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 상반기 중 건설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5%를 기록
    -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 (‘20.4/4)-2.9→(‘21.1/4)-1.8→(2/4)-1.2
    - 주거용건축(전년동기대비, %): (‘20.4/4)-0.4→(‘21.1/4)-0.6→(2/4)1.0
    - 비주거용건축(전년동기대비, %): (‘20.4/4)-4.9→(‘21.1/4)-0.2→(2/4)2.9
    - 토목건설(전년동기대비, %): (‘20.4/4)-3.4→(‘21.1/4)-5.3→(2/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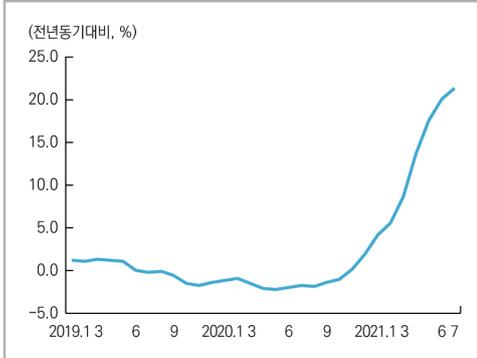
| 그림 68 | 공종별 건설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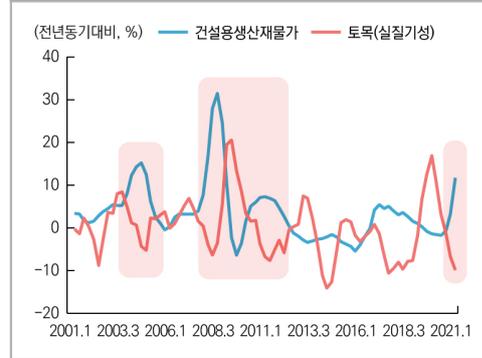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2021년에는 건설자재물가의 급등으로 투자수요가 약화
  - 토목건설의 경우 사전에 예산이 정해지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 토목 건설의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실질토목투자가 감소하는 경향
  - 건설용 생산자재물가가 2021년 초 전년동월대비 4.0%에서 7월 21.3%로 상승하자 토목(실질기성)이 올해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

| 그림 69 | 건설용 생산재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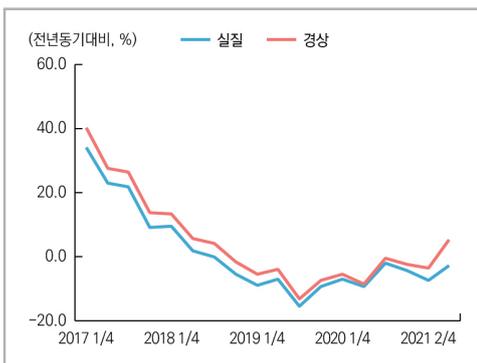
| 그림 70 | 건설용 생산재물가와 토목건설증가율 추이



주: 2분기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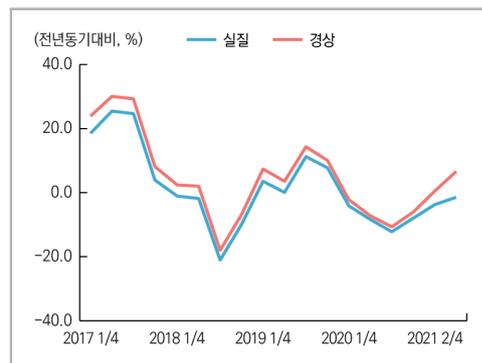
- 건축은 코로나19 확산과 주택시장억제대책의 영향으로 부진
  -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금융억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2021년 2/4분기중 주거용건축이 전년동기대비 1.0% 증가 하는데 그침
  - 경상기준으로는 비주거용건축이 올해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했으나 이는 건설자재물가의 상승과 기저효과에 기인한 바 크며, 실질기준으로 2.9% 증가

| 그림 71 | 주거용건축 기성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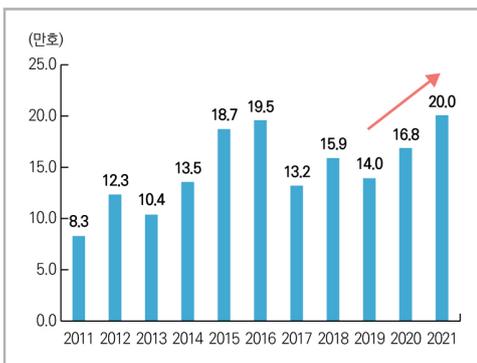
주: 경상자료를 실질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그림 72 | 비주거용건축 기성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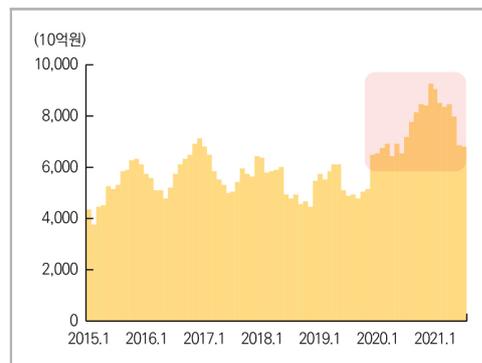
- 2022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이 완만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1.9% 증가할 전망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은 정부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공급과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
  - 토목건설은 공공부문의 일반토목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건설 관련 물가의 상승은 토목건설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주거용건축은 가계대출(주택금융)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17~2019년 중 위축되었던 주택 착공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증가하고, 주거용 건축 수주도 2020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에는 주거용건축이 감소세에서 벗어날 전망
    - 아파트착공(만호, 상반기): (‘19년)14.0 → (‘20년)16.8→(‘21년)20.0
    - 주거용건축(전년대비,%): (‘18년)-5.3 → (‘19년)-9.8 → (‘20년)-2.6
  - 그러나 주거용건축 수주의 증가세가 지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약 1년 경과 후에 둔화된 점에 비추어 2022년 주택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임

| 그림 73 | 연도별 상반기 아파트 착공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74 | 주거용건축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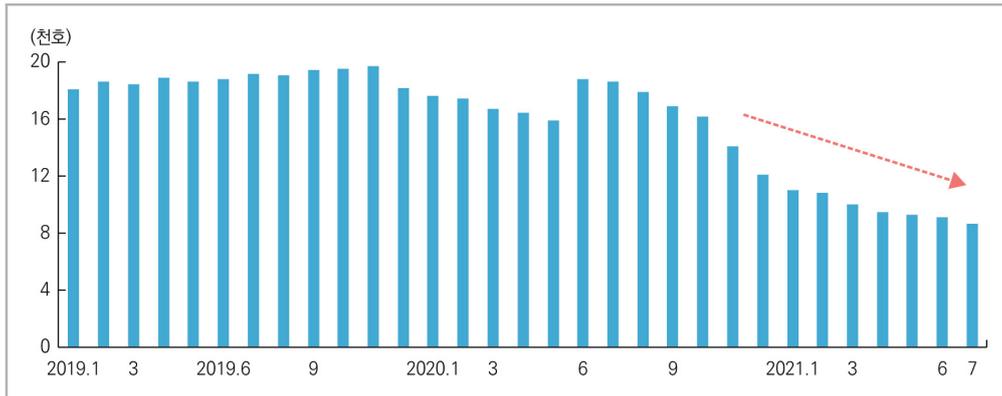
주: 경상가격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질화 (6개월 이동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미분양주택이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주거용건축의 증가요인

- 국민계정에서는 미분양주택이 재고에 반영되고, 미분양주택의 감소는 주거용건축 증가로 나타남
- 미분양주택이 1월 10,988호에서 7월 8,558호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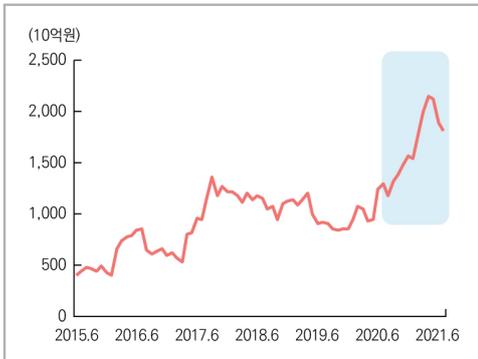
| 그림 75 | 미분양주택 추이



주: 준공 전+준공 후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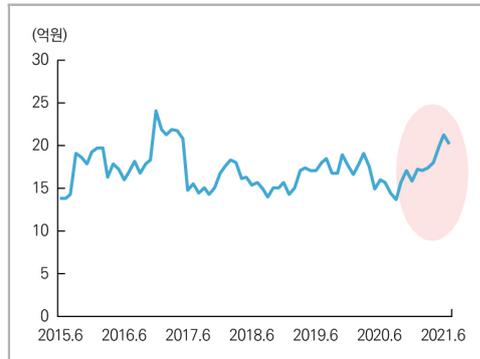
- 비주거용건축은 경기회복, 주거용건축 회복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설치, 재정지출의 영향으로 완만히 증가할 전망
  - 국내외 경기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공장과 창고의 수주가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세
    - 수출호조와 무점포매출(온라인 주문) 호조에 따라 공장 및 창고건축 수주가 증가
    - 서비스업종이 침체했던 2020년 상반기에는 사무실 및 점포 수주가 감소했으나 2021년 상반기 중에는 정부의 유연한 방역대책, 소비회복에 힘입어 회복세
  - 2022년에도 지속적인 경기상승세 및 소비회복에 힘입어 점포 등 서비스업종 관련 비주거용건축도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주거용건축의 증가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로 이어지고, 정부가 2022년 중 과학화훈련장 건설(24개소), 통일센터건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50개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6개소)에 국비를 지원키로 하여 비주거용건축의 증가 요인이 될 전망

| 그림 76 | 공장 및 창고 수주 추이



주: 경상가격을 실질화(6개월 이동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그림 77 | 사무실 및 점포 수주 추이



- 토목건설은 3기 신도시 기반공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SOC 예산의 토목건설 반영도가 낮아 부진할 전망
  - 3기 신도시(26.1만호) 중 남양주왕숙(왕숙 5.4만호, 왕숙2 1.4만호) 및 하남교산(3.3만호)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연내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
    -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의 입주(예정)가 2026년임을 고려할 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단지건설을 위한 기반공사가 추진될 전망

| 표 4 | 3기 신도시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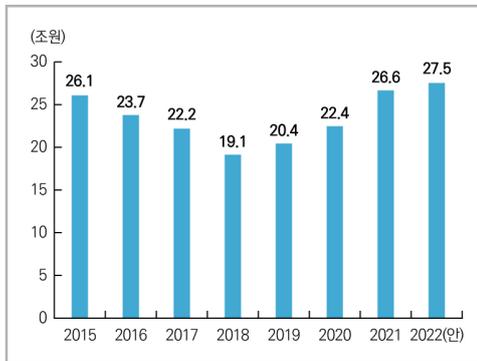
	지 구	공급규모	현황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5.4만호	지구계획 기승인
	남양주왕숙2	1.4만호	
	하남 교산	3.3만호	
	인천 계양	1.7만호	연내 지구계획 승인예정
	광명 시흥	7만호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3.8만호	
대규모 택지	과천	0.7만호	
	안산 장상	1.4만호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2022년 SOC예산(안)을 전년대비 3.8% 증가한 27.5조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토목건설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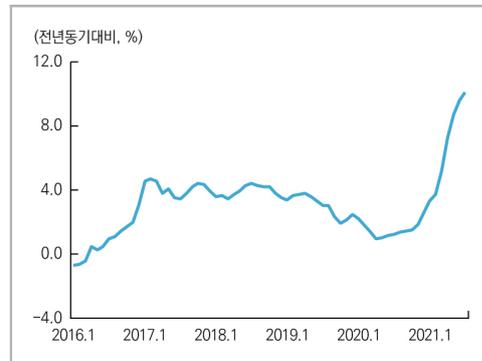
- 정부는 전통적 SOC건설보다는 SOC의 고도화·첨단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어 실제 토목건설로의 반영도가 축소될 것
- 전통적인 SOC사업인 수도권 GTX A·B·C노선이 추진되지만 국민계정상 토목건설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비·보상비·협상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임
- 최근 건설자재물가의 상승세가 높아 명목가치에 비해 실질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건설기성액으로부터 추정된 건설 관련 물가의 상승률이 2021년 초 전년 동기대비 3.3%에서 7월에는 10.1%로 상승

| 그림 78 | 정부의 SOC예산 추이



주: 추경 포함  
자료: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79 | 건설 관련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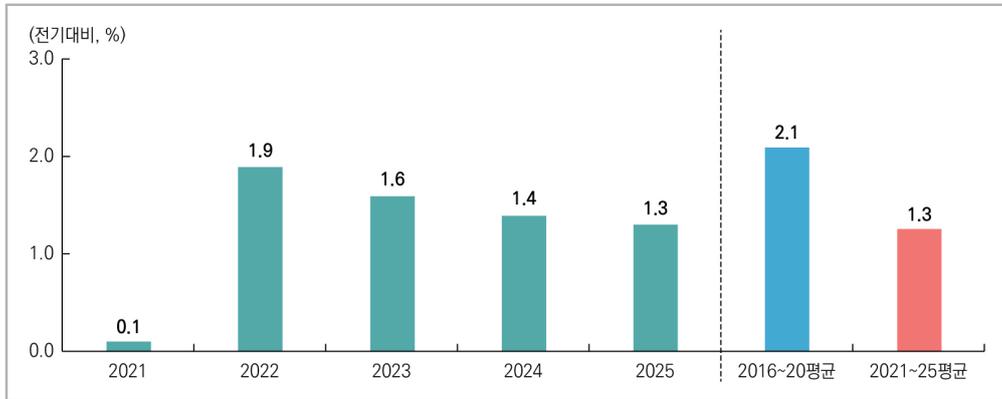


주: 경상 및 실질 건설기성액으로부터 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나. 중기 전망

- 2021~2025년 건설투자는 주거용건축의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부터 증가세는 둔화
  - 정부의 주택시장정책이 주택수요억제 중심에서 주택공급량 확대도 함께 시사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용건축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
  - 반면 토목건설은 주택단지기반조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공공기관 주도 대규모 SOC사업 규모는 정체될 전망이며, 중기적으로도 토목건설의 정체가 전체 건설투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

| 그림 80 | 중기 건설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주거용건축이 건설투자를 주도할 전망

-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6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서울 32만호 등 수도권 약 61만호,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할 계획을 수립 (3080+방안, 2021.2.4.일 발표)
  - 이에 따르면 향후 신규로 지정할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2023년에 가장 많은 15.6만호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공급에 활용
  - 다만 3080+대책이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어 주민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실제로 건설투자지출로의 반영은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표 5 | 공공기관 주도 도심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계획

(단위: 만호)

	합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19.6	1.84	4.02	6.92	4.86	1.96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13.6	1.3	2	2.8	3.4	4.1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3.0	0.4	0.6	0.6	0.8	0.6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11.0	1.1	1.7	2.1	2.8	3.3
단기공급확대방안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10.1	0.2	0.3	3.2	3.2	3.2
신규공공택지지정	25.9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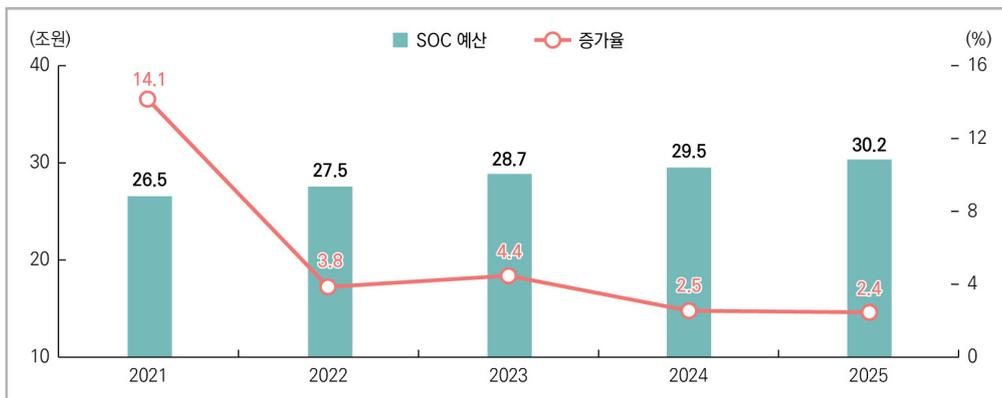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또한 3기 신도시(26.1만호) 중 7개 지구가 연내 지구승인 혹은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예상됨
- 다만 민간부문의 주거용건축은 주택수요자의 주택금융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진할 것으로 보여 공공주택 공급이 전체 건설투자를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

□ 공공기관 주도의 일반토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예산이 연평균 3.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됨
  - 2021년 중 14.1%가 증가한 후 2022년부터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
  - 대표적으로 2025년까지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해 약 7.1조원(국비기준)이 투자될 계획(광역철도 41개, 광역도로 25개, 광역BRT 12개, 환승센터 44개 등 설치) 등이 포함

| 그림 81 | 중기 SOC 예산(안)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정부의 SOC사업에는 생활SOC 등 건축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토목건설은 부진할 전망
  - 또한 새로운 토목건설보다는 기반시설의 첨단화,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실제 토목건설로의 반영도는 낮을 것으로 보임

## 4. 설비투자

### 가. 2022년 전망

- 2021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
  - 2021년 1/4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2/4분기부터는 자동차·선박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투자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
    - 기계류 투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경제활동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주요 반도체업체들의 대규모 설비증설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증가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 수출 호조, 신규 조선 수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선박을 중심으로 증가

표 6 | 실질설비투자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9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7.4 (0.1)	4.5 (0.7)	10.7 (5.8)	6.1 (-0.6)	12.4 (6.1)	12.8 (1.1)	
행 태 별	기계류	-10.2	8.0	4.5 (-0.8)	7.3 (2.8)	11.1 (3.1)	9.1 (3.6)	17.4 (7.5)	14.5 (-0.3)
	운송장비	4.7	4.7	17.3 (2.7)	-2.4 (-4.5)	9.4 (13.5)	-1.1 (-11.5)	-2.4 (2.0)	8.3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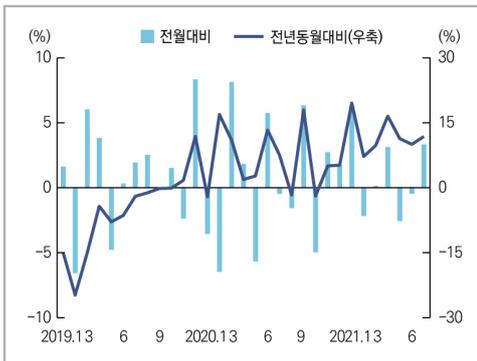
주: 괄호안은 계절조정전기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선행지표인 월별 설비투자지수와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은 2021년 1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설비투자지수(전년동월대비, %): (21.1월)19.4→(4월)16.4→(7월)11.7
  - 기계류투자(전년동월대비, %): (21.1월)32.6→(4월)23.8→(7월)9.7
  - 운송장비류투자(전년동월대비, %): (21.1월)-12.3→(4월)-1.7→(7월)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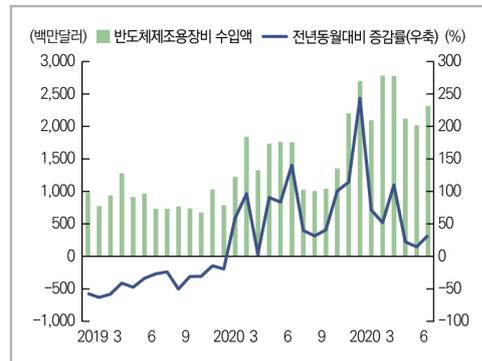
-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의 월평균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77.7%를 기록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21.1월)243.1→(4월)109.7→(7월)31.9

그림 82 |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83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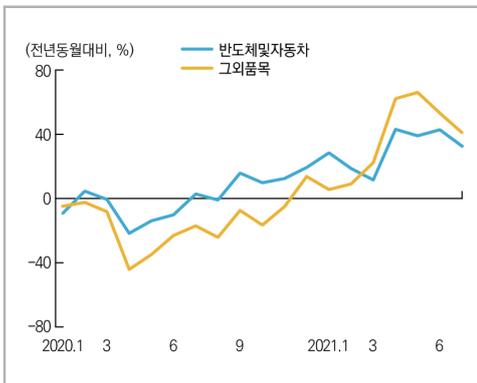
-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 지속, ESG 경영환경<sup>17)</sup>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전망
  - 올해 들어 우리나라 10대 수출품 중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증가율이 반도체·자동차의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 EU의 탄소국경세, 글로벌 RE100<sup>18)</sup> 등에서의 참여 압력으로 친환경(Environment) 경영전략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설비투자 수요 증가
  - 기계류 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업종에서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제조업종의 설비투자 조정압력 또한 높아지고 있어 신규 투자 수요가 확대될 전망

17)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적 책임), Governance(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추구하는 것

18) 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로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2050년까지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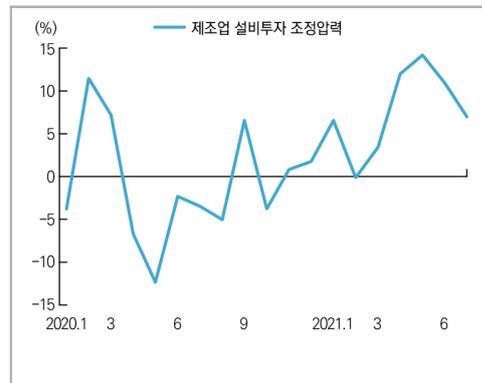
- 운송장비 투자는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항공·해운업  
부분의 투자가 확대되는 한편 자동차, 선박 등에서의 수출 호조로 증가  
세를 이어갈 전망
- 전체적으로 2021년 설비투자는 작년에 이어 전년대비 9.8%의 높은 증가  
세를 기록할 전망(상반기 12.6% → 하반기 6.9%)

| 그림 84 | 10대 수출 품목 증가율 추이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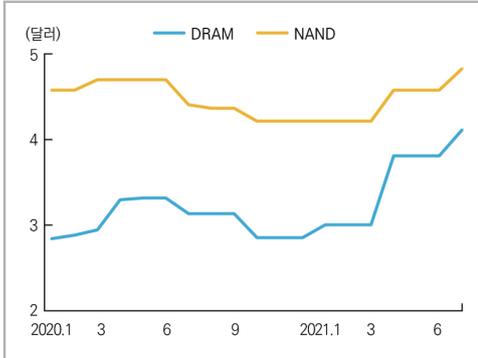
| 그림 85 |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주: 설비투자 조정압력 = 생산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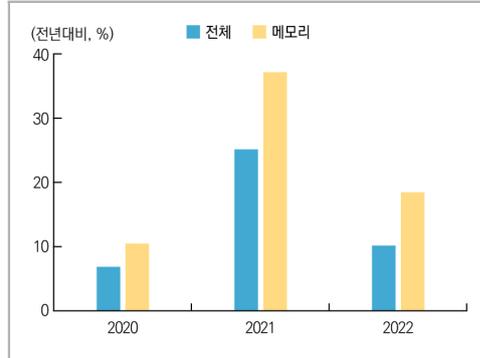
- 2022년 설비투자는 IT부문 투자수요 지속과 함께 비IT부문의 친환경·신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5% 증가할 전망
  - IT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파운드리 부문 투자 확대, 비대면  
경제활동 보편화에 따른 관련 전자기기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  
세를 유지할 전망
    - 2022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IT기기 판매량 증가, 클라우드 서버  
증설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액(전년대비, %): ('18년)27.4→('19년)-32.6→('20년)10.4
    - \*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WSTS '21.8월 기준, 매출액 기준, 전년대비, %):  
( '21년)37.1→('22년)18.4

| 그림 86 |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주: DRAM은 DDR4-8Gb-1Gx8,  
NAND는 128Gb-16Gx8-MCL 고정가격 기준  
자료: DRAM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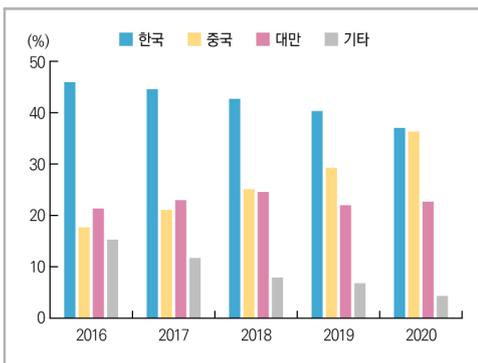
| 그림 87 |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



주: 2020년은 실적치  
자료: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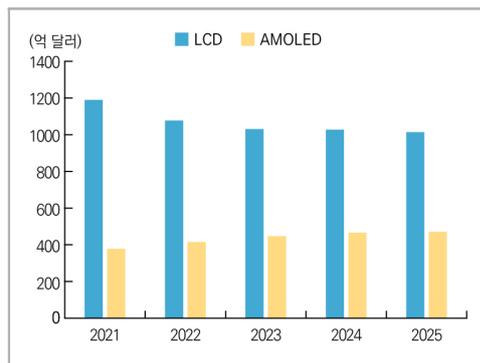
-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품군 확대(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PC 등)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중소형 OLED와 프리미엄 제품인 QD-OLED를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2022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LCD 시장의 매출액이 하락하며 역성장(-4.4%)을 기록할 전망(OMDIA)
- \* AMOLED 시장 전망(OMDIA, 금액 기준, 전년대비, %): ('21년)25.2→('22년)9.8

| 그림 88 |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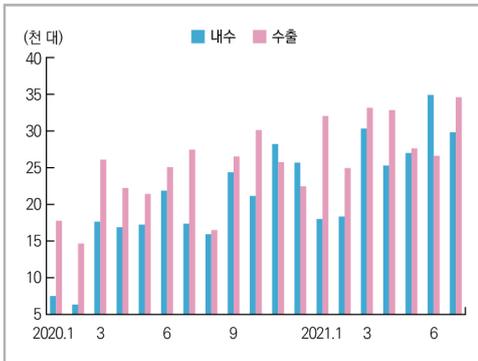
주: 금액기준  
자료: OMD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1.6)

| 그림 89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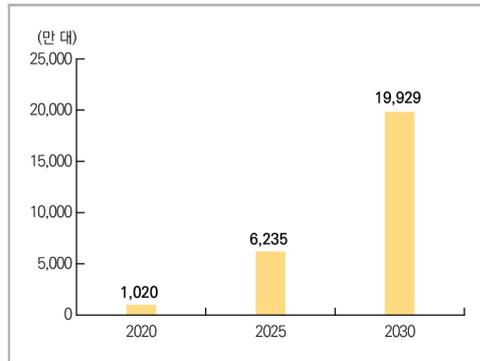
- 비IT부문에서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전통 제조업 부문에서의 신규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ESG 경영환경 지속에 따른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는 주요국<sup>19)</sup>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규제가 확대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증가 예상
  - \* 친환경차 내수판매비중(%): ('19년 상반기)8.1→('20년 상반기)10.0→('21년 상반기)17.3
  - 친환경차 수출비중(%): (19년 상반기)9.4→('20년 상반기)15.9→('21년 상반기)17.1

| 그림 90 | 국내 친환경차 내수 및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그림 91 | 세계 전기차 보급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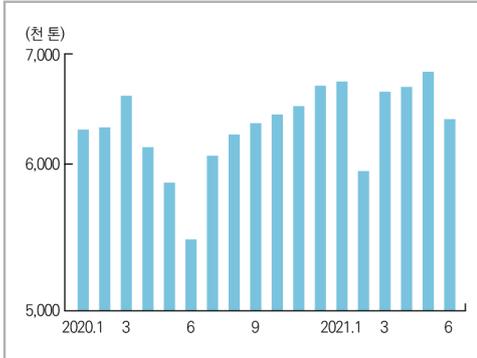
주: 지속가능개발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SDS) 하에서의 전망치

자료: 국제에너지기구(2021.4)

- 석유화학은 장기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터리(2차전지)·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신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철강은 자동차·조선업 등 전망산업 업황 개선과 함께 탄소중립 전략 도입에 따른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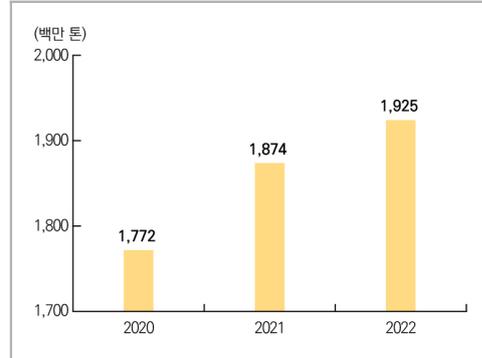
19) 중국자동차공정학회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차 기술로드맵 2.0'을 발표하였으며(2020.10.27.),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친환경차가 신차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지원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2021.8.5.)

| 그림 92 | 국내 철강 생산량 추이



주: 철강재 기준  
자료: 통계청

| 그림 93 | 세계 철강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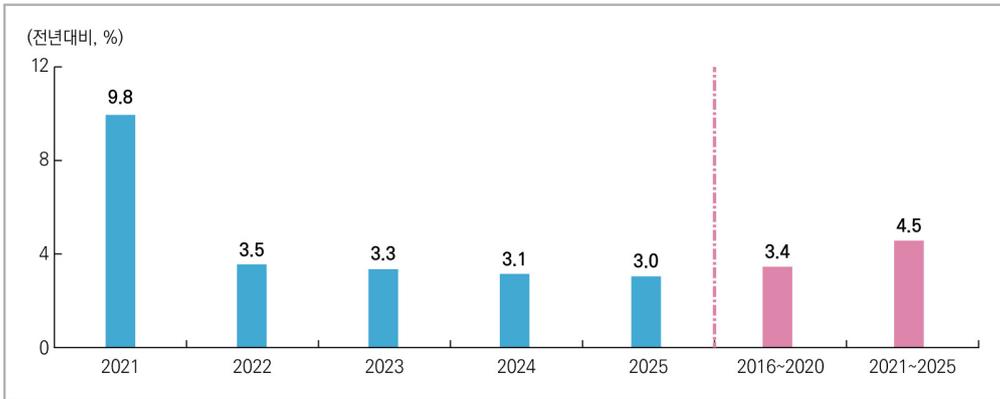
주: 2020년은 실적치  
자료: 세계철강협회(2021.4)

- 조선은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투자 확대가 예상됨
- \* 세계 신조선 수주량(백만CGT): ('19년)29.1→('20년)19.2→('21년 상반기)24.0
- \* 국내 신조선 수주량(백만CGT): ('19년)9.8→('20년)8.2→('21년 상반기)10.5

## 나. 중기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4.5% 증가하며 지난 5년(2016~2020년, 연평균 3.4%)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반도체·인공지능(AI)·슈퍼컴퓨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부문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관련 IT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지속될 전망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정부 차원에서도 2024년까지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3대 분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2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할 계획

| 그림 94 | 중기 설비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최근 기후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경영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증가 전망
  - 미국·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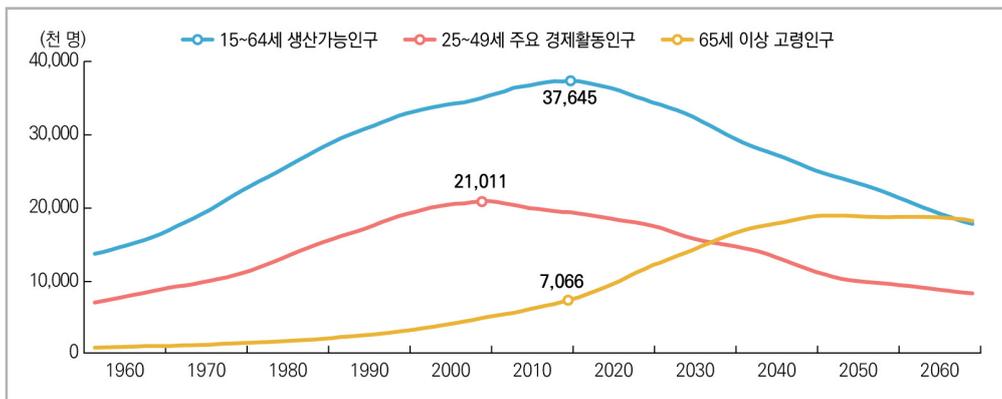
| 표 7 |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현황

국가	발표일	주요 내용
미국	2021.4.22.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이상 감축
중국	2021.4.22.	206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 0)' 달성
일본	2021.4.22.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
EU	2021.7.14.	203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CBAM) 전면 도입 -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
한국	2021.8.31.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 미국·일본·중국은 세계기후정상회의(2021.4.22.~23.)에서 각국 대표가 제시한 목표

-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생산시설 투자 수요도 예상됨
  - 전체 인구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49세 인구는 2008년 2,10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 15~64세 인구비중(전체인구대비, %): ('15년)73.4→('18년)72.9→('20년)71.9
    - \* 65세이상 인구비중(전체인구대비, %): ('15년)13.0→('18년)14.4→('20년)16.0
  - 자동화 기술 발전과 함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그림 95 |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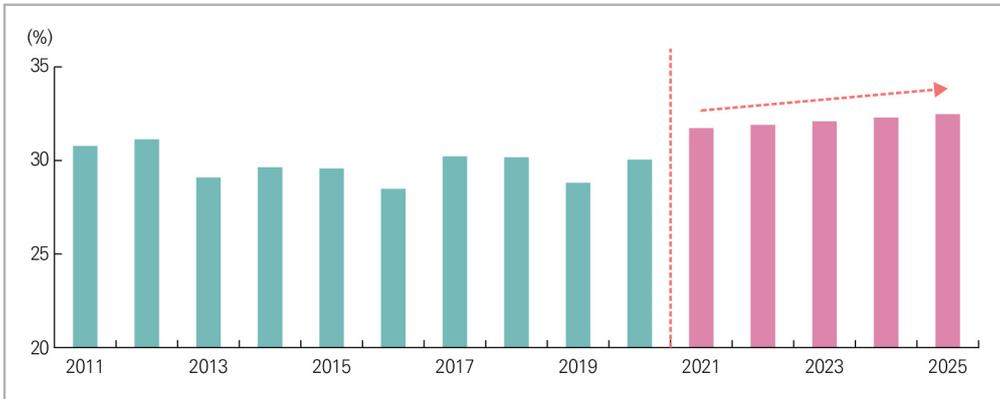


주: 2018년 이후는 추계 인구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가 고정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5년 중 연평균 32%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고정자본투자<sup>20)</sup>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1.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9년에는 28.8%까지 하락하였으나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2020년에는 30.1%로 상승
  -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정자본투자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29.6%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향후 5년(2021~2025년) 중에는 32.1% 수준에 이를 전망

20) 고정자본투자=건설투자+설비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

| 그림 96 | 고정자본투자 대비 설비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 설비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5년간 컴퓨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확대되며 52% 수준을 나타낼 전망
  - 전체 설비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6.1%를 기록한 이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문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2019년 49.1%로 하락
    -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은 2017년 36.5%를 기록한 이후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2019년에는 43.9%로 확대
  - 향후 5년(2021~2025년) 중 제조업 설비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 컴퓨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9% 수준을 기록할 전망

| 표 8 | 산업별 실질설비투자 추이

(단위: 조원, %)

업종별	산업별 실질설비투자				
	2015	2016	2017	2018	2019
제조업	71.5 (50.2)	72.9 (49.9)	95.5 (56.1)	88.2 (53.0)	76.3 (49.1)
석유화학	12.9 (9.1)	12.4 (8.5)	15.8 (9.3)	14.0 (8.4)	11.8 (7.6)
금속제품	5.5 (3.9)	4.9 (3.4)	5.3 (3.1)	5.3 (3.2)	4.9 (3.2)
전기및전자기기	29.8 (20.9)	32.4 (22.2)	49.7 (29.2)	44.8 (26.9)	37.1 (23.9)
운송장비	11.3 (7.9)	11.8 (8.1)	11.7 (6.9)	11.9 (7.2)	12.0 (7.7)
서비스업	59.3 (41.6)	61.8 (42.3)	62.2 (36.5)	66.5 (40.0)	68.2 (43.9)
운수업	16.0 (11.2)	16.6 (11.4)	16.0 (9.4)	17.0 (10.2)	17.4 (11.2)
정보통신업	8.9 (6.3)	9.6 (6.6)	9.3 (5.5)	9.5 (5.7)	10.1 (6.5)
공공행정및국방	12.2 (8.6)	13.2 (9.0)	13.4 (7.9)	16.1 (9.7)	18.1 (11.7)
농림어업	3.1 (2.2)	3.1 (2.1)	3.0 (1.8)	3.0 (1.8)	3.1 (2.0)
광업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전기가스수도업	6.6 (4.6)	6.2 (4.2)	6.9 (4.1)	6.1 (3.7)	5.9 (3.8)
건설업	1.9 (1.3)	2.2 (1.5)	2.4 (1.4)	2.3 (1.4)	1.9 (1.2)
전체 설비투자	142.4 (100.0)	146.2 (100.0)	170.3 (100.0)	166.3 (100.0)	155.3 (100.0)

주: 1) 제조업 중 전기및전자기기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와 '전기장비'를 합한 값

2) ( )안은 산업별 설비투자액이 전체 설비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 [BOX 3] ESG 경영전략 도입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증가

-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ESG 요소 중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는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 배출 0)’ 선언을 통해 탈탄소, 그린에너지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
    - 올해 들어 탄소국경세 등 구체적인 글로벌 환경규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중장기적인 친환경 시설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주요 기업의 ESG 관련 국내 설비투자 계획 현황(2021년 발표)

회사명	내용	투자액	기간
LG디스플레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60억원	2021년
LG화학	친환경 및 전지 소재 부문 투자	9조원	~2025년
	친환경 소재 공장 신설	2.6조원	~2028년
SK	국내 수소 사업 인프라 투자	18.5조원	~2025년
SK이노베이션	그린(Green) 중심 성장 투자	30조원	~2025년
SK종합화학	페플라스틱 재활용 설비 구축	0.6조원	~2025년
롯데케미칼	친환경 수소사업 투자	4.4조원	~2030년
GS건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0.5조원	2023년~2028년
효성중공업	액화수소 생산능력 증대	1조원	~2025년
현대중공업	친환경 및 미래 선박 개발,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 등	1조원	~2025년
한화솔루션	차세대 태양광, 그린수소 사업 투자	2.8조원	~2025년
삼표시멘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	260억원	2021년

자료: 각사 보도자료(2021.9.1.)

-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20.10.28.) 이후 관련 정책지원을 통해 ESG 확산 촉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친환경차)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 개시(‘21.8), 미래차 투자펀드 신설 등 투자지원 확대,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 등

- (탄소중립) 연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21.12),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및 넷제로(Net Zero) 생산기반 마련 등

**ESG 경영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구분	내용
국내 ESG 인프라 고도화	ESG 공시·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K-ESG’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금융 기준제시 및 활성화를 위해 K-녹색분류체계 마련 추진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교육을 강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의 ESG 공시항목 확대,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 등 추진
수소경제 활성화	20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0개 이상 육성
	3개 수소 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착공하고, 수소 사용기반 확충 및 그린수소 등 실증 추진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기초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및 안정성 확보 추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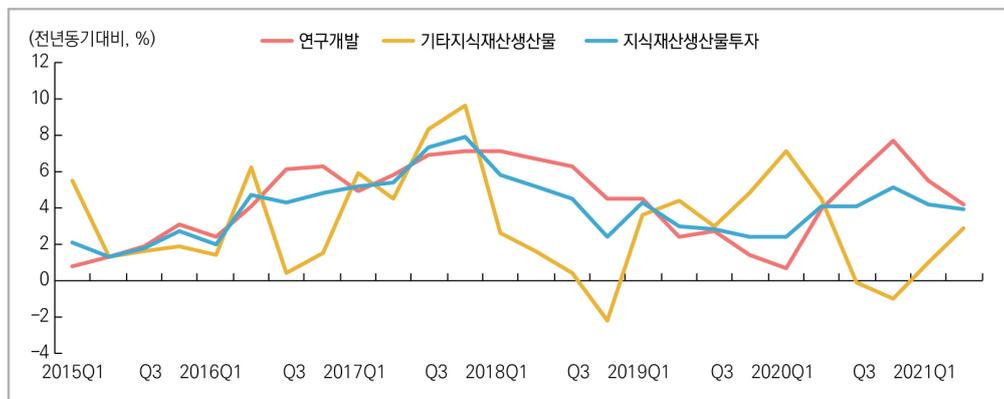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1.6.28.)

##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가. 2022년 전망

- 2021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0년 하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R&D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짐
  - 상반기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수출 호조와 경기회복에 따른 제조업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R&D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년동기대비, %): (20년 상반기)3.3→(하반기)4.6→(21년 상반기)4.1
    - 연구개발투자(전년동기대비, %): (20년 상반기)2.3→(하반기)6.8→(21년 상반기)4.9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sup>21)</sup>(전년동기대비, %): (20년 상반기)5.8→(하반기)-0.6→(21년 상반기)2.0
  - \* 제조업 기업매출액(전년대비, %): (20. 3/4)-1.6→(4/4)1.3→(21. 1/4)10.4

그림 97 | 자본재형태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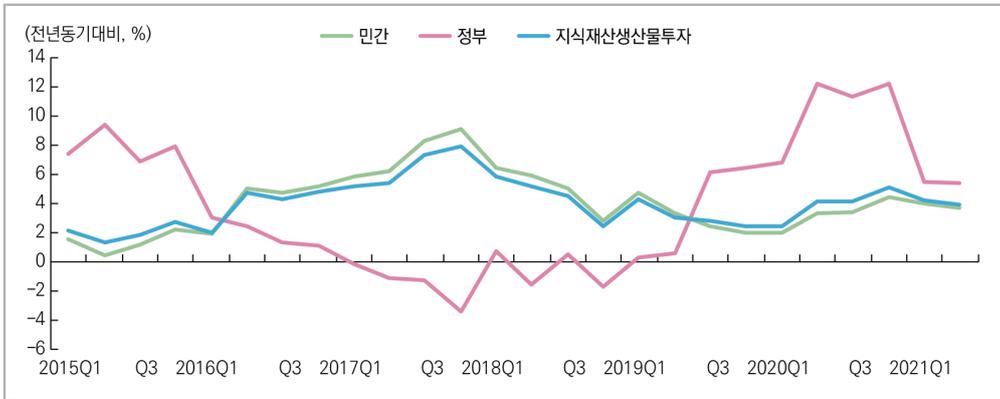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민간부문은 상반기 중 3.9%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지만 정부부문은 5.5%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
  - 민간(전년대비, %): (20년 상반기)2.7→(하반기)3.9→(21년 상반기)3.9
  - 정부(전년대비, %): (20년 상반기)9.5→(하반기)11.8→(21년 상반기)5.5

21) 소프트웨어,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광물탐사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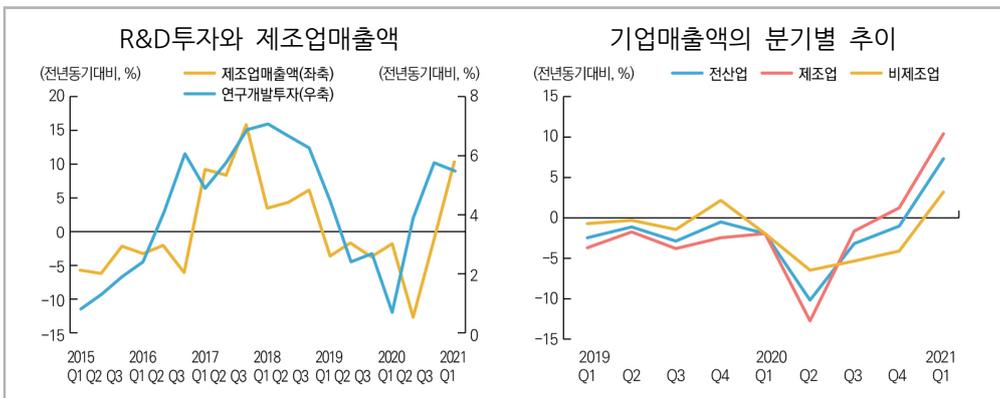
| 그림 98 | 투자주체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경기회복과 제조업 실적개선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며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할 전망

| 그림 99 | R&D 투자와 기업매출액 추이



주: 기업매출액의 분기별 추이는 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 참조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 R&D투자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4.2% 증가할 전망
  -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R&D투자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이후 IT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도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R&D투자는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R&D 세제지원 확대\*도 증가세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 \*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R&D 세액공제 확대(2024년까지 3년간 한시 지원)
- \*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지식재산의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 표 9 | 정부의 R&D비용 관련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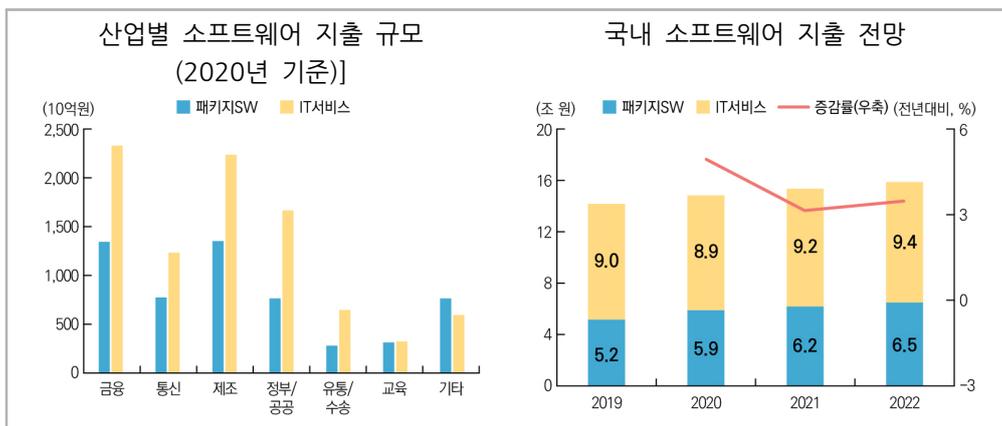
(단위:%)

R&D 비용	기업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영업활동과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수요\*가 늘며 관련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 \*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패키지SW+IT서비스)는 2021년 15.4조원(3.1%)에서 2022년 16.0조원(3.5%)로 증가할 전망이다

| 그림 100 | 국내 산업별 소프트웨어 지출 규모 및 소프트웨어 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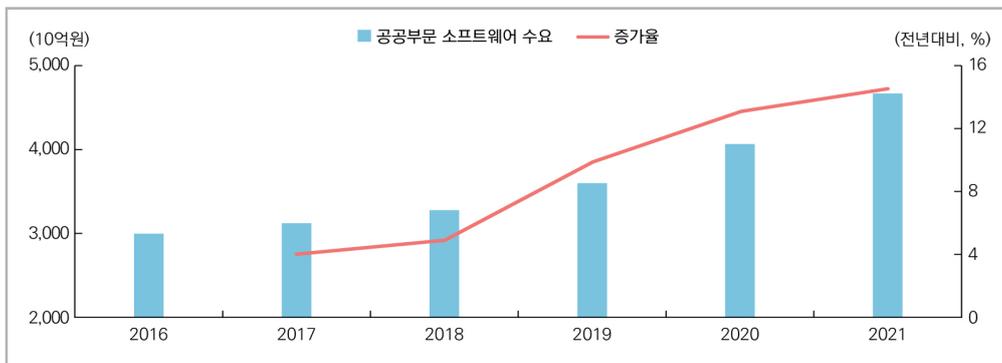


주: 최종수요자의 소프트웨어(SW) 지출 기준

자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IDC Worldwide Blackbook(2021.4) 자료 인용)

- 정부부문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R&D예산규모 확대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발주 증가 등으로 2021년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21년(27.2조원, 13.2%) 중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도 29.8조원(8.8%)으로 확대 편성
  - \* 정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조원): ('20)24.2→('21)27.2→('22)29.8
  -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관련 지출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상용SW 구매 등을 중심으로 2021년(4.7조원, 14.6%)에 이어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지출 규모(조원): ('19)3.6→('20)4.1→('21)4.7

| 그림 101 |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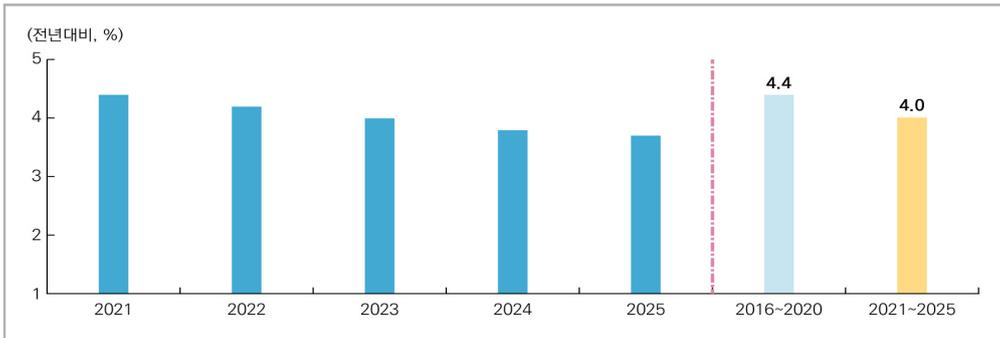
주: 소프트웨어 구축과 상용SW 구매 지출의 합  
 자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 SW·ICT장비 수요예보(확정) 결과(2021.3) 인용)

## 나. 중기 전망

- 2021~2025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관련 투자가 늘며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향후 5년 기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4.0% 증가하여 지난 5년 기간(2016~2020년, 연평균 4.4%)에 비해 소폭 둔화될 전망
    - 2021~2022년 중에는 대내외 경기회복세 지속과 기업실적 호조, 정부 R&D예산 확대에 힘입어 R&D 투자가 연평균 5%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IT서비스관련 기업지출이 증가하며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23~2025년 중에는 정부의 R&D예산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R&D투자의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되며 연평균 3.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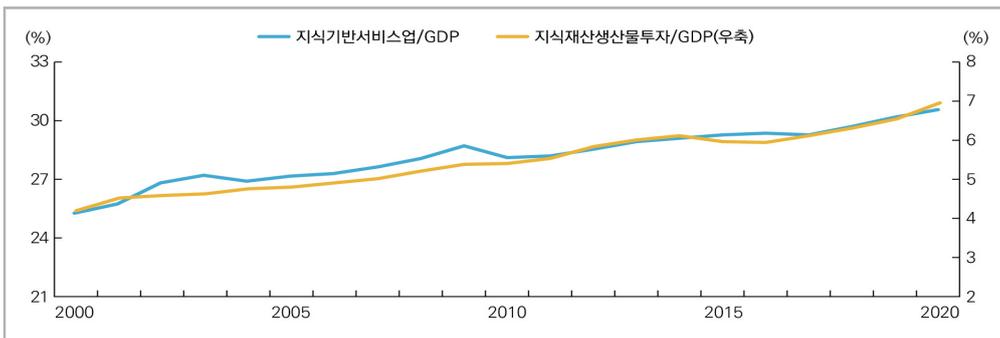
| 그림 102 |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CT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sup>22)</sup>의 국내총생산대비 비중이 상승하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ICT산업/GDP비중(%): (‘10)8.6→(‘15)9.2→(‘20)11.4
  - 지식기반서비스업/GDP비중(%): (‘10)28.1→(‘15)29.2→(‘20)30.6
  - 지식재산생산물투자/GDP비중(%): (‘10)5.4→(‘15)6.0→(‘20)7.0

| 그림 103 |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GDP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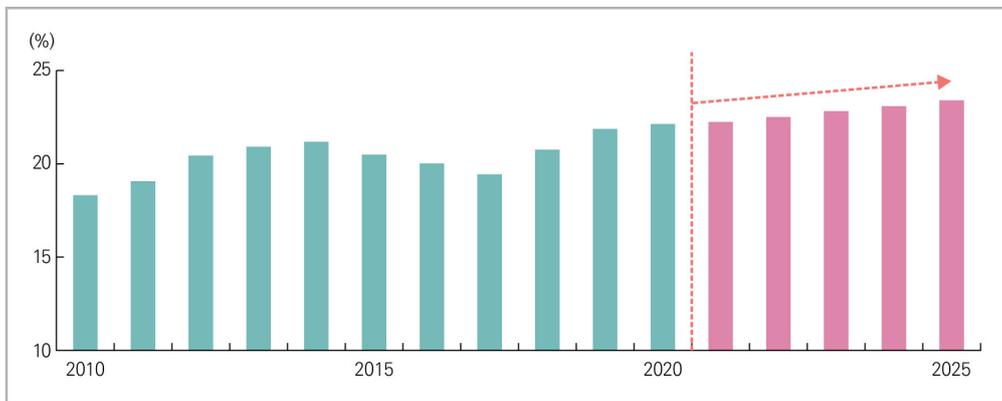


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은 산업별 실질GDP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  
 자료: 한국은행

22)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통상, OECD나 산업자원부의 분류에 따라 지식기반제조업은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산업,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이 포함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오락문화스포츠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

-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고정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망기간 중 2021년 22.2%에서 2025년에는 23.4%로 늘어날 전망
  - 건설 및 설비 등의 자본재투자가 고정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1.7%에서 2020년 77.9%로 하락한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은 동기간 18.3%에서 22.1%로 상승
  - 지식재산생산물투자/고정자본투자(%): ('10)18.3→('15)20.5→('20)22.1
  - 설비투자/고정자본투자(%): ('10)29.6→('15)29.6→('20)30.1
  - 건설투자/고정자본투자(%): ('10)52.1→('15)49.9→('20)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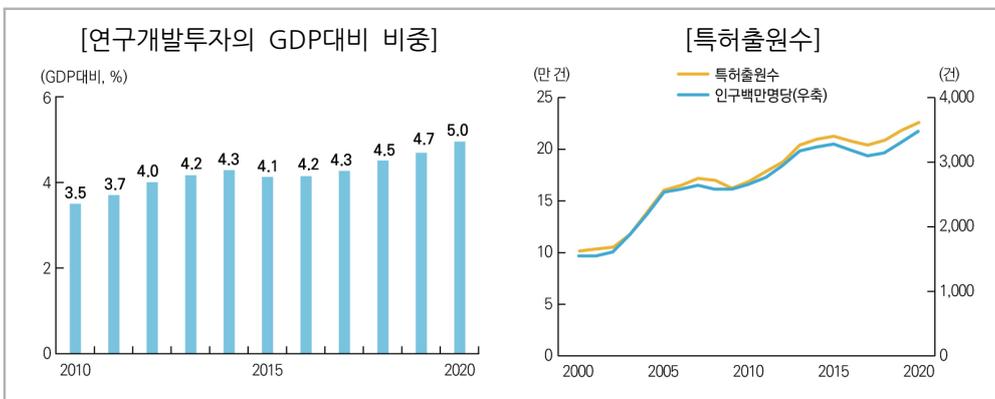
| 그림 104 | 지식재산생산물투자/고정자본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주: 2021년 이후는 자본재 형태별 전망치를 기초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 연구개발투자는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등의 IT부문과 바이오헬스, 친환경, 신소재, 지식기반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민간부문은 IT제조업과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증가
    - 연구개발투자/GDP 비중(%):('10)3.5→('15)4.1→('20)5.0
    - R&D투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특허출원수\*는 최근 3년 기간(2018~2020년) 중 21.0만 건에서 22.7만 건으로 연평균 3.5% 증가
    - \* 주요국 특허출원수(만건, 2019년 기준): 미국 62.1, 일본 30.8, 한국 21.9, 독일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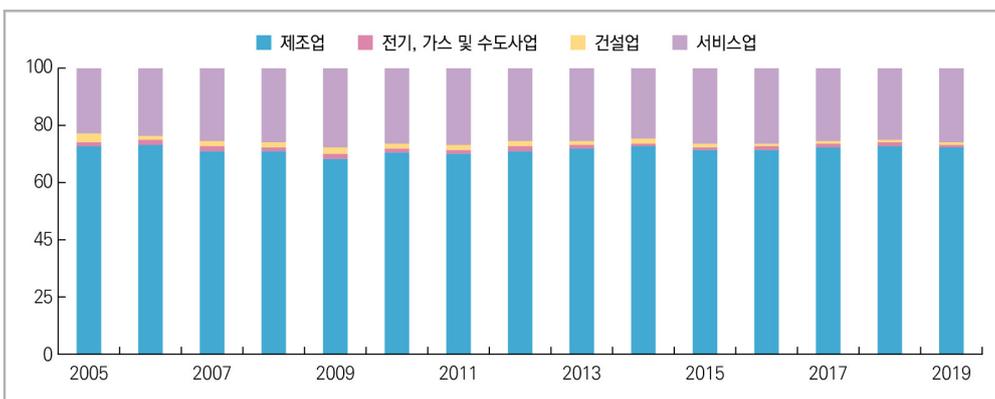
| 그림 105 | 연구개발투자의 GDP대비 비중 및 특허출원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특허청

-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1.1%에서 2018년 72.8%까지 상승하였으나 2019년 72.0%로 소폭 하락
- \* 전체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산업별 비중(2019년 기준, %): 제조업 57.1, 서비스업 40.0
- \*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별 비중(2019년 기준, %): 제조업 72.0, 서비스업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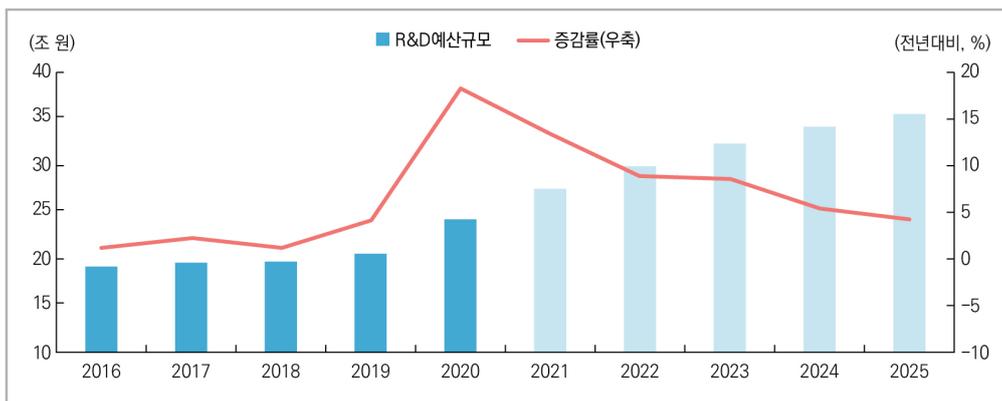
| 그림 106 |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정부부문은 한국판 뉴딜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예산이 확대되며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뒷받침할 전망
  - 한국판뉴딜 및 소재부품장비, 미래첨 신산업(우주·양자·6G) 발굴,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주력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예상됨
  - 2021~2025년 기간 중 정부 R&D예산은 동기간 정부지출 증가율(5.5%)을 상회하여 연평균 6.6% 증가:
  - 정부 R&D예산(조원, 전년대비, %):('21)27.4조원(13.1%)→('22)29.8조원(8.8%)→('23)32.3조원(8.5%)→('24)34.0조원(5.2%)→('25)35.4조원(4.0%)

| 그림 107 | 정부 R&D예산 추이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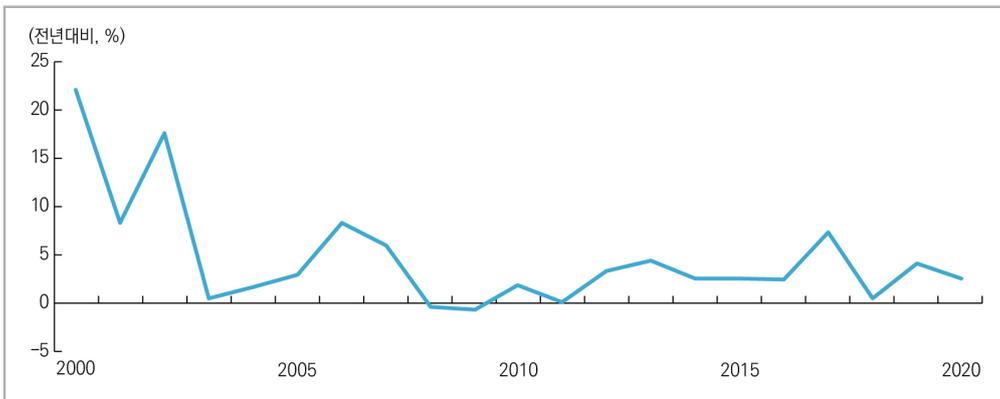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기타지식생산물투자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확대 및 IT서비스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견실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3.3% 증가
  - 향후 5년 기간 중에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규모 확대와 관련 서비스 지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세는 소폭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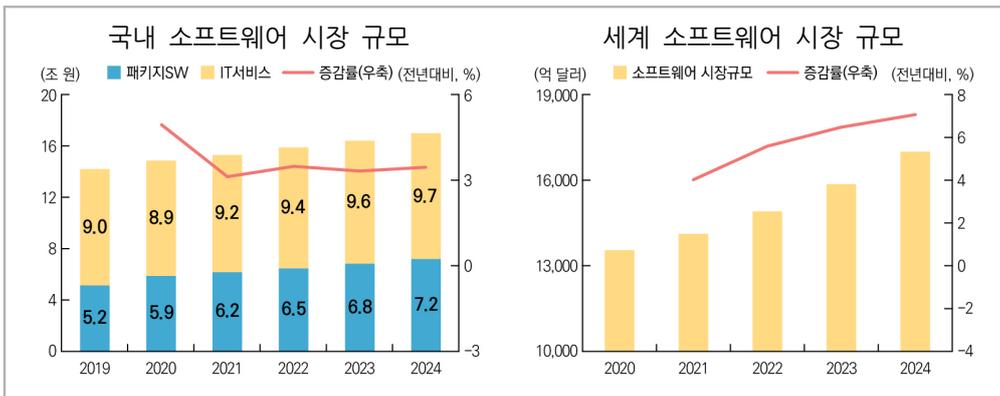
-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전년대비, %, IDC 전망 기준): (‘21)4.0(14,135억 달러) →(‘22)5.6(14,929억 달러)→(‘23)6.5(15,902억 달러)→(‘24)7.1(17,032 달러)
-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전년대비, %, IDC 전망 기준): (‘21)3.1(15.3조원) →(‘22)3.5(15.9조원)→(‘23)3.3(16.4조원)→(‘24)3.4(17.0조원)

| 그림 108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109 | 국내 및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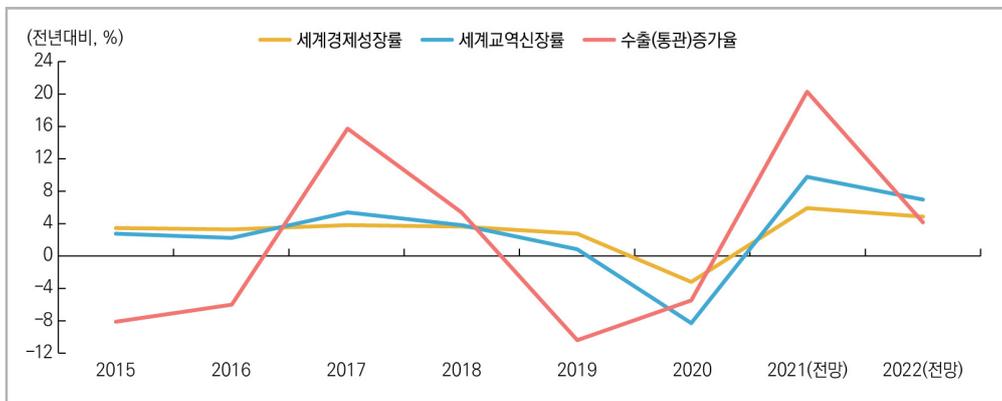
주: 시장규모는 최종수요자의 SW지출액 기준 패키지SW와 IT서비스의 합  
 자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IDC Worldwide Blackbook(2021.4) 자료 인용)

## 6. 대외거래

### 가. 2022년 전망

- 2022년 수출(통관기준)은 세계경제 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가 유지되는데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4.2% 증가할 전망
  - 2021년 수출은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생산과 투자를 위한 해외수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2022년에는 2021년의 높은 수출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출증가세를 지속하며 전년대비 4.2% 증가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및 세계교역신장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 움직이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교역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IMF, %): (‘20년)-3.2→(‘21년)6.0→(‘22년)4.9
    - 세계교역신장률 전망(IMF, %): (‘20년)-8.3→(‘21년)9.7→(‘22년)7.0

| 그림 110 |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신장률, 수출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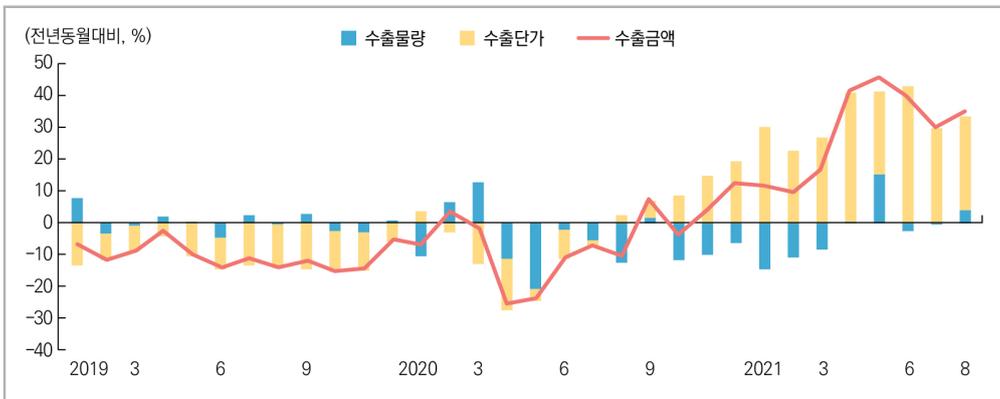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21

- 2022년에는 수출물량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2021년 수출금액을 물량요인과 단가요인으로 구분하면 일반기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석유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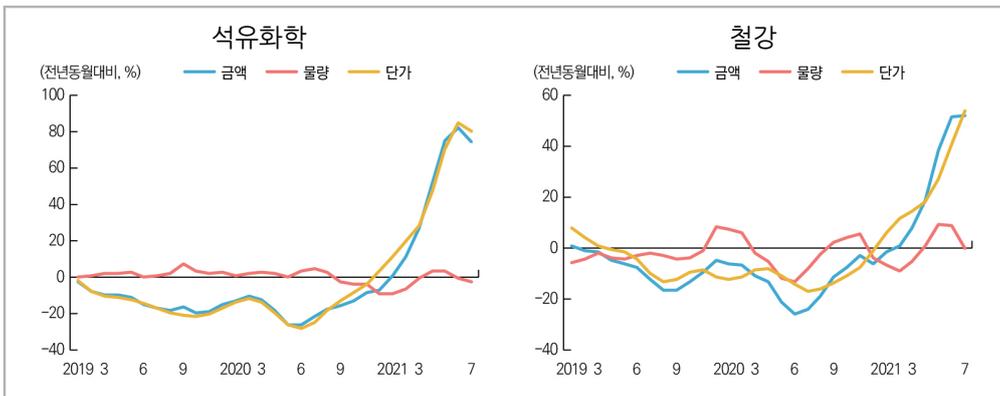
- 실제 2021년 1~8월 기간 중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데 비해 수출단가는 3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하지만 2022년에는 높은 수출단가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주력 수출품의 해외수요 확대, 일부 품목의 공급차질 완화 등으로 수출물량은 증가 전환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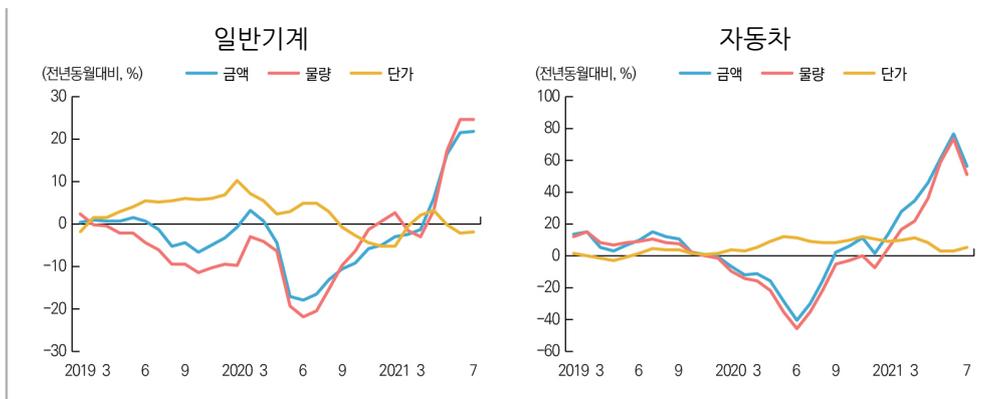
| 그림 111 | 수출금액, 물량, 단가 증가율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무역협회

| 그림 112 | 주력 수출제품의 수출금액, 물량, 단가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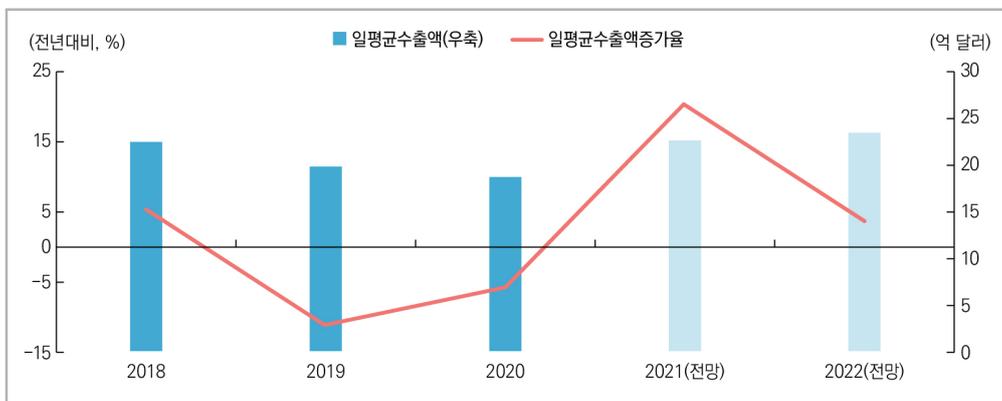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무역협회

- 일평균 수출액은 2020년 18.8억달러로 2년 연속 하락하였으나, 2021년 22.6억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2년 23.4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일평균 수입액은 2020년 17.2억달러 수준에서 2021년 21.4억달러, 2022년 22.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

| 그림 113 | 일평균수출액 추이와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무역협회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제품의 증가세가 지속
- 반도체는 세계 메모리 및 비메모리 수요증대, 자동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글로벌 소비시장 확대, 일반기계와 철강은 주요국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확대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또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물, 화장품 등을 비롯하여 신성장 산업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2021년 1~8월 기간 중 바이오헬스(102.3억달러, '20년 연간 139억달러), 이차전지(57.9억달러, '20년 연간 75억달러) 등 신성장 품목의 누계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
  - 한편 주요 품목의 수출증가율 기여도(2021년 1~8월)는 반도체(5.0%p), 석유화학(4.8%p)이 1위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자동차와 석유제품이 뒤를 잇고 있으며, 신성장산업 품목인 바이오헬스는 0.4%p를 차지

| 표 10 |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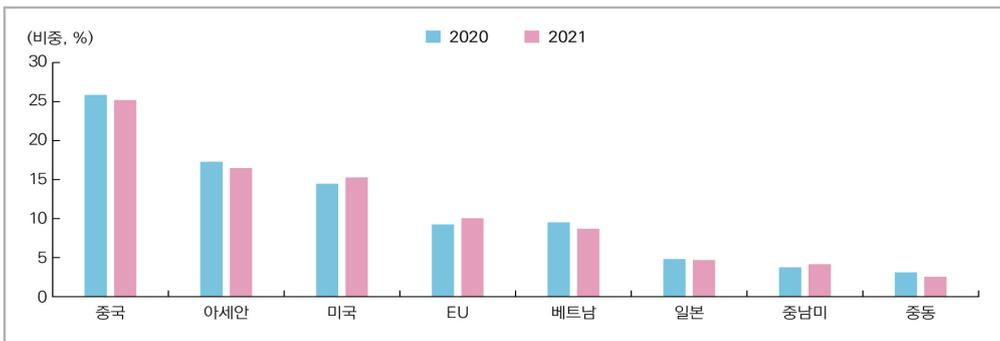
(전년대비, %, 비중, %p)

	2020년		2021년(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수출기여도
반도체	5.6	19.4	25.8	19.2	5.0
일반기계	-8.9	9.3	11.3	8.4	0.9
석유화학	-16.4	6.9	54.8	8.7	4.8
자동차	-13.1	7.3	41.2	7.4	3.0
석유제품	-40.6	4.7	34.2	5.5	1.9
철강	-14.5	5.2	30.9	5.5	1.7
자동차부품	-17.3	3.6	40.8	3.7	1.5
디스플레이	-12.2	3.5	27.8	3.2	0.9
선박	-2.0	3.9	19.6	3.7	0.7
무선통신기기	-6.4	2.6	29.1	2.5	0.7
섬유류	-13.3	2.2	15.6	2.0	0.3
컴퓨터	57.2	2.6	9.3	2.4	0.2
가전	0.7	1.4	33.5	1.4	0.5
바이오헬스	55.9	2.7	17.1	2.3	0.4
이차전지	1.3	1.5	10.9	1.3	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지역별 수출은 각국의 경기회복 정도,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기부양정책 여력 등에 따른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
  - 대선진국 수출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빠른 경기회복세와 경기부양책,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할 때, 대신홍개도국 수출에 비해 양호한 증가세가 예상
    - 세계교역신장률 전망(IMF, %): 선진국: (‘21년) 9.7→(‘22년)7.0, 신흥개도국: (‘21년) 11.1→(‘22년) 6.9
    - 2021년 1~8월 기간 중 미국, EU 등 대선진국 수출증가율이 중국, 아세안 등 대신홍개도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

| 그림 114 | 지역별 수출 비중 변화



주: 2021년은 1~8월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 표 11 |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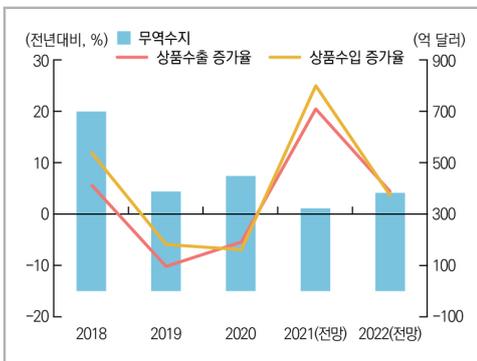
(전년대비, %, 비중)

	2020년		2021년(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중국	-2.7	25.9	23.4	25.3
아세안	-6.4	17.4	19.7	16.5
미국	1.1	14.5	34.9	15.3
EU	0.6	9.3	43.3	10.1
베트남	0.7	9.5	20.4	8.7
일본	-11.7	4.9	16.3	4.7
중남미	-26.0	3.8	39.5	4.1
중동	-16.9	2.9	0.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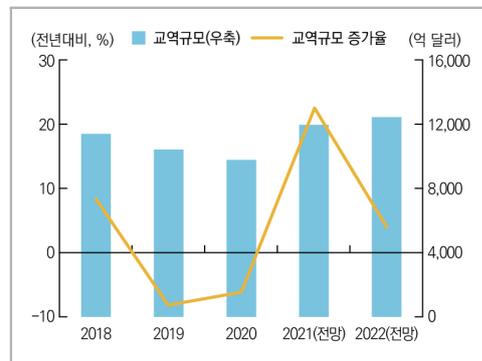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 2022년 무역수지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규모가 확대될 전망
  - 무역수지는 2021년 320억달러 내외 흑자에서 2022년 60억달러 확대된 380억달러 내외 흑자를 보일 전망
    -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6,423억달러, 상품수입은 3.4% 증가한 6,039억달러를 각각 기록할 전망
  - 교역규모(상품수출액과 상품수입액의 합)는 1조 2,46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 글로벌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역규모는 2019년(-8.3%)과 2020년(-6.3%)에 걸쳐 2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
    - 그러나 2021년 국내외 경제의 빠른 회복세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크게 확대되면서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22.5% 증가하고, 2022년에도 3.8% 증가할 전망

| 그림 115 | 무역수지 전망



| 그림 116 | 교역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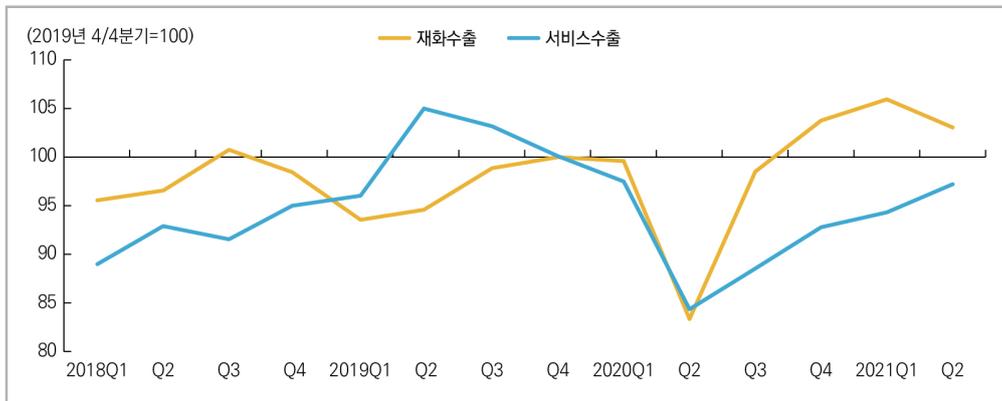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 2022년 국민계정 상 총수출(물량기준)은 재화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21년 총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해외수입수요가 확대되며 8.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2022년에 3.8%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한 서비스수출은 2022년 외국인 방문객의 국내소비 지출 증가와 화물·여객 등 운수서비스 수출 확대 등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서비스수출은 2019년(100)을 기준으로 2020년 89.9로 급락한 이후 2021년 95.7, 2022년 100.5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그림 117 | 코로나19 전후 재화와 서비스 수출 추이**



주: 계절조정 자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국민계정 상 총수입(물량기준)은 2021년 7.3% 큰 폭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7%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2022년 국내 설비투자 수요 지속,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소비재 수입증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 등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표 12 | 총수출과 총수입 증감률 전망(국민계정)**

(전년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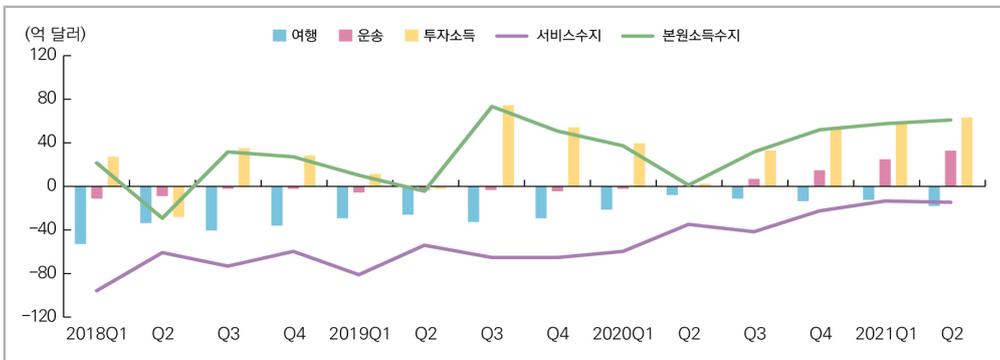
	2020	2021(전망)	2022(전망)
총수출	-1.8	8.9	3.8
총수입	-3.3	7.3	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2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05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상품수지는 2021년 721억달러(전망)에 비해 흑자규모가 소폭 확대된 737억 달러 전망
  - 2022년에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되면서 달러기준 수입 금액 증가율 둔화 폭이 수출금액 증가율 둔화 폭보다 크게 나타날 전망
  - 국제유가 전망(IMF, 전년대비 %): (‘21년) 56.6→(‘22년) -2.6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적자 전환할 전망
  - 서비스수지는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여행수지가 악화되는 등 적자 폭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
  - 서비스수지 전망(억달러): (‘21년) -66 → (‘22년) -146
  - 본원소득수지는 금료 및 임금수지에서 적자를 보이겠으나, 배당 및 이자 등 투자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갈 전망

| 그림 118 |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13 | 경상수지 전망

	2019	2020	2021(전망)	2022(전망)
경상수지	597	753	824	705
상품수지	798	819	721	737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201	-67	103	-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나. 중기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수출(통관기준)은 세계경제 회복세, 제조업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상품 다각화 등으로 이전 5년(2016~2020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수출(통관기준)은 이전 5년(2016~2020년) 기간의 0.1% 감소에서 벗어나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6.5% 증가할 전망
    - 2016~2020년 기간 중 수출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글로벌 교역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
    - 하지만 2021년 들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데 힘입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21년 20.3%)
    -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 신성장 산업에서의 빠른 성장세와 수출상품의 다양화는 수출증가를 뒷받침
  - 국민계정 상 총수출(물량기준)은 2021~2025년 연평균 4.1% 증가하여 이전 5년(2016~2020년)의 1.4%에 비해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 재화 수출은 2021년 9.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22년 3%대 중반으로 둔화되고 2025년 2%대 초반으로 점차 낮아질 전망
    -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4분기부터 2021년 1/4분기까지 전년동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 2/4분기부터 증가 전환하여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 비중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여 2011년 11.1%에서 2019년 13.4%까지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2.3%로 하락
  - 국민계정 상 총수입(물량기준)은 2021~2025년 기간 중 총수출증가율(4.1%)을 상회하는 연평균 4.3%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표 14 | 중기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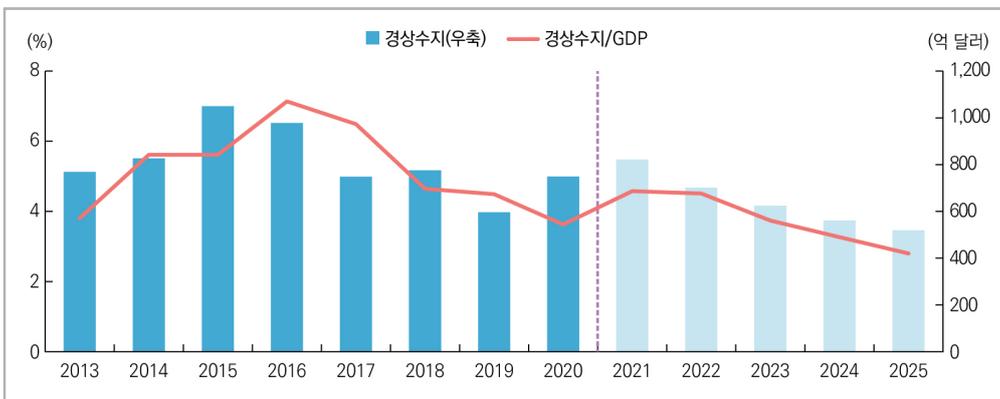
(기간 연평균, %)

	2016~2020년	2021~2025년
상품수출(통관 금액기준)	-0.1	6.5
총수출(국민계정 상 물량기준)	1.4	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무역협회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1년 4%대 중반을 기록하고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5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경상수지 흑자비율의 하락세는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의 영향보다는 서비스·소득·이전소득수지의 적자 폭 확대에 주로 기인
  - 2021~2025년 기간 중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평균 3.4% 수준으로 이전(2016~2020년) 5년 기간 중 4.8%에 비해 1.4%p 하락할 전망

| 그림 119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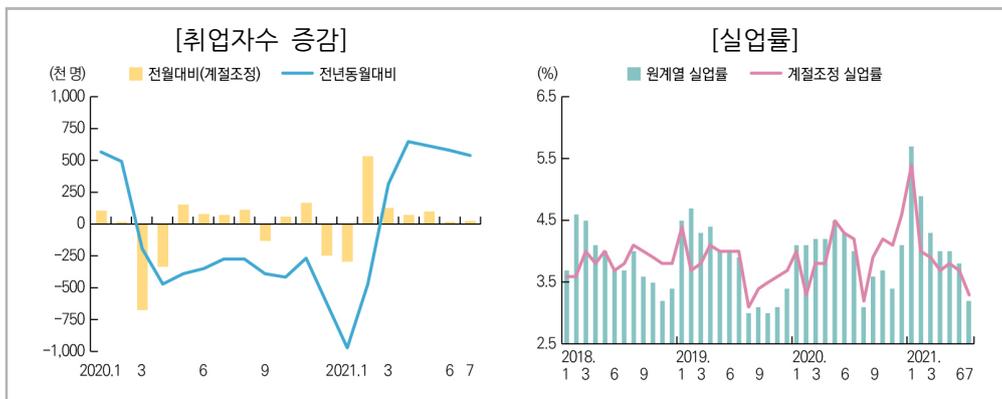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7. 고용

### 가. 2022년 전망

- 2021년 노동시장은 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경제활동 정상화 등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고용여건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전체 취업자수는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저효과 등으로 2/4분기 들어 증가폭이 큰 폭으로 확대
    - 전체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21.1/4분기)-38.0→(2/4분기)61.8→(7월)54.2
    - 다만 7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조치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며 고용회복세가 약화된 상황

| 그림 120 | 전체 취업자 수 및 실업률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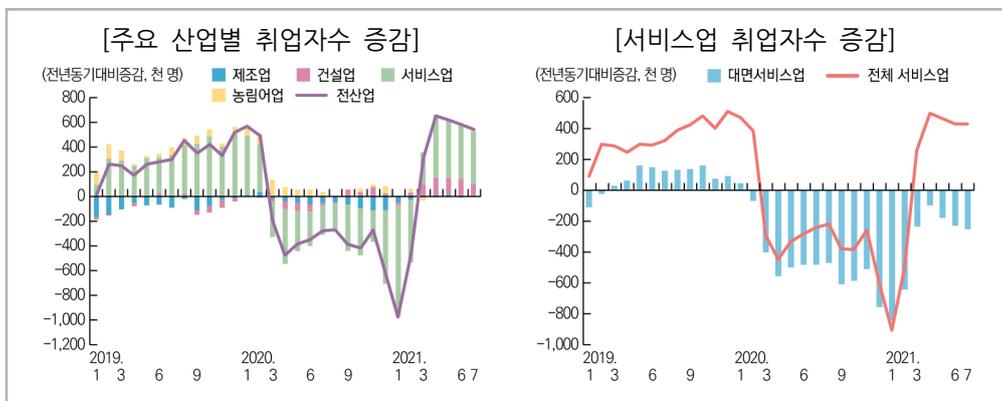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취업자 수는 2/4분기 중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완화되며 서비스업에서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에서 소폭 증가 전환되고, 건설업은 양호한 증가폭을 나타냄
  - 2/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농림어업 0.3, 제조업 0.5, 건설업 13.7, 서비스업 47.3(대면서비스업 -16.6)

- 다만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며 5월 이후 대면서비스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
- \*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전년동기대비, 만명): (5월)-17.4→(6월)-22.8→(7월)-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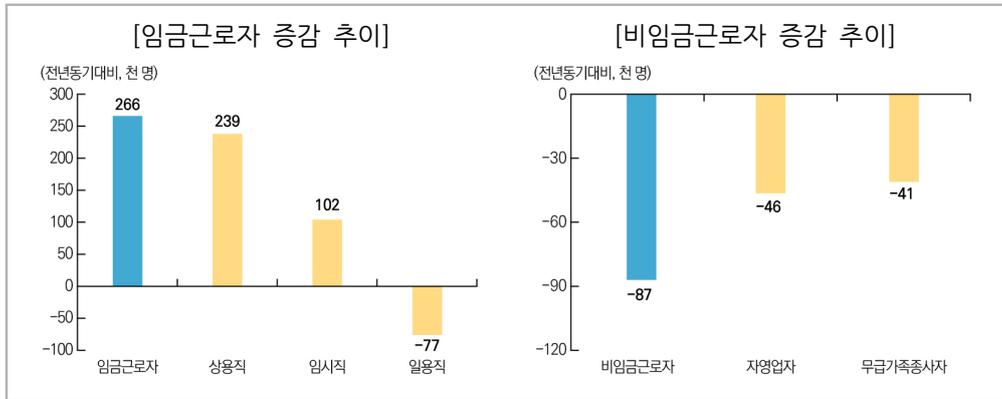
그림 121 | 산업별 취업자수 월별 증감 추이



주: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지위별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일용직 임금근로자와 대면서비스업종에 집중된 자영업자의 고용 여건이 3월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7월 중 임금근로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전체 임금근로자 26.6, 상용직 23.9, 임시직 0.2, 일용직 -7.7
  - 1~7월 중 비임금근로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전체 비임금근로자 -8.7, 자영업자 -4.6(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9.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5), 무급가족종사자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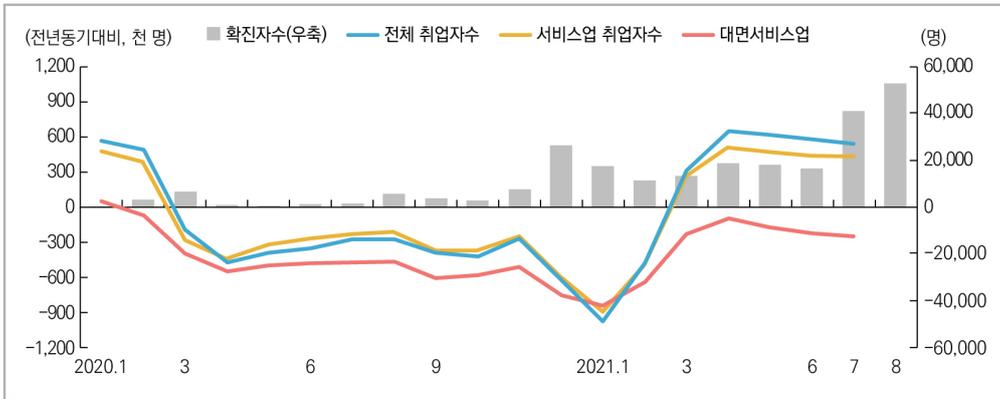
| 그림 122 |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증감 추이(1~7월 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노동시장은 7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보급 확대와 경기회복세 지속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
  - 3/4분기 중에는 재확산의 부정적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겠으나, 4/4분기 중에는 백신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취업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며 2021년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2.5만여명 증가할 전망(상반기 11.9만명→하반기 33.2만명)
  - 청년층과 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실업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실업자도 소폭 증가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청년층과 60세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늘며 전년(62.5%)보다 0.4p 상승하여 62.9% 예상
  - 고용률(15세이상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3%로 전년보다 0.2%p 상승(15~64세 기준 고용률은 66.0%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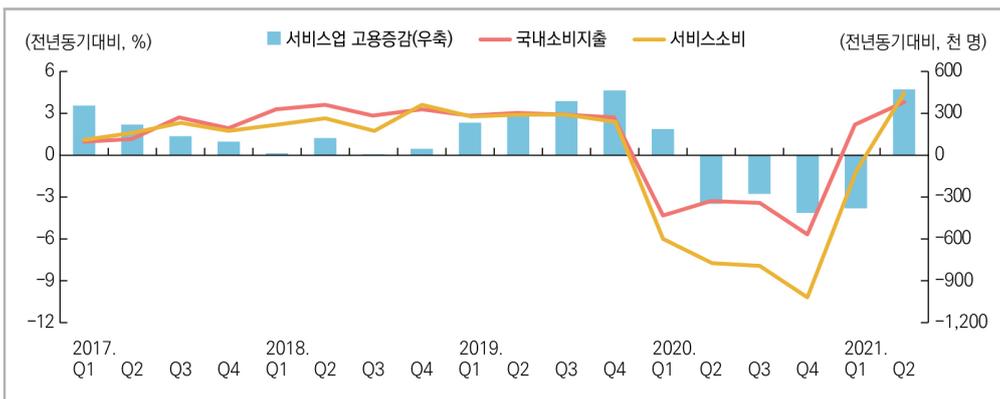
| 그림 123 | 월별 코로나19 확진자수 및 취업자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 2022년 전체 취업자수는 경기회복과 서비스 소비활동 회복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고용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6만여 명 증가할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백신 접종 확대와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활동이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늘며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다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이나 백신접종 속도 등의 요인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취업자수 전망치의 상하방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24 | 국내 서비스소비지출과 서비스업 고용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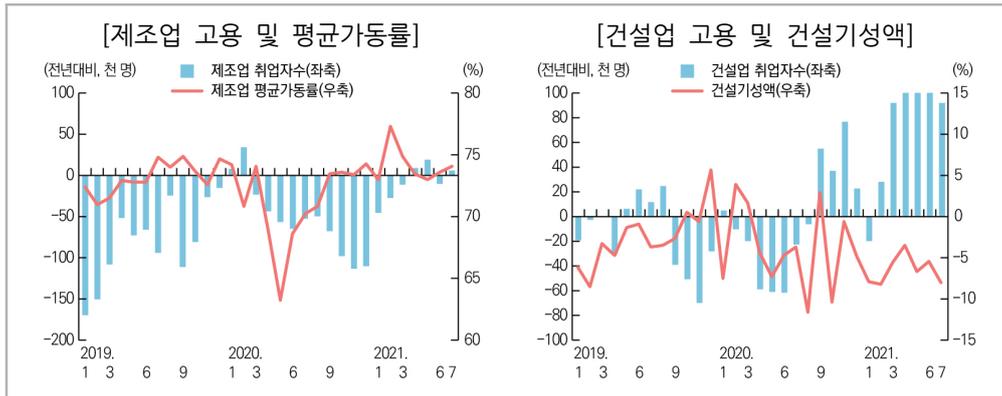


주: 국내소비지출과 서비스소비는 실질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주요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가동률이 상승하며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25 |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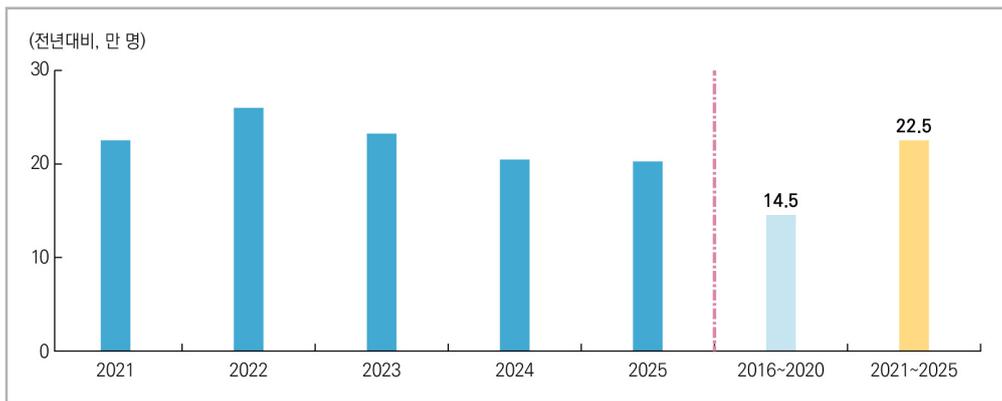
- 경기회복과 고용여건 개선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고 실업률은 2021년 4.0%에서 소폭 하락하여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예산 확대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청년층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 보건·복지·고용 예산(조원): (‘20년)180.5→(‘21년)199.7→(‘22년)216.7
  - 재정지원일자리 예산(조원)<sup>23)</sup>: (‘20년)25.5→(‘21년)30.1→(‘22년)31.3

23) 2020년은 집행액 기준, 2021년은 제3회 추경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2021. 8월)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과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참조

## 나. 중기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고용은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연평균 22.5만여명(0.8%) 증가할 전망
  - 전체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연평균 22.5만명(0.8%) 증가하여 지난 5년(2016~2020년) 기간(14.5만명, 0.6%)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 그러나 2020년 중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21.9만명, -0.8%)을 제외한 2016~2019년 기간(연평균 23.6만명, 0.9%)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소폭 둔화

| 그림 126 | 중기 취업자수 증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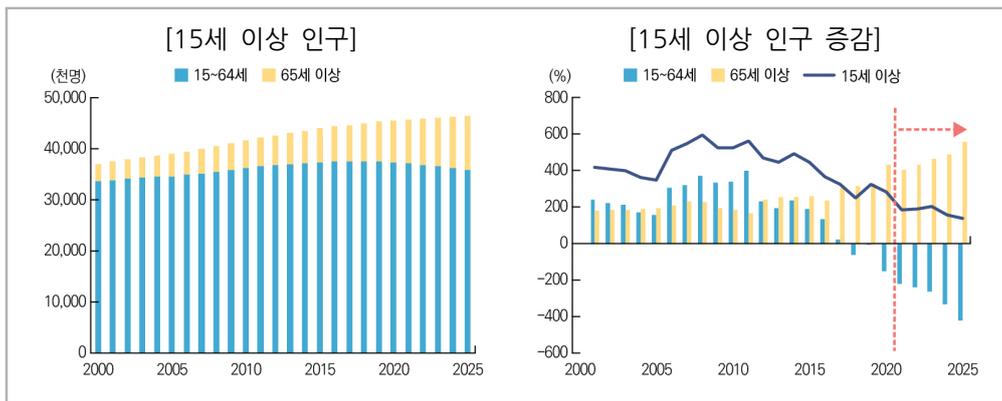
주: 연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향후 5년 기간 중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15~64세 연령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
  -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가 2020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동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며 노동공급 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전망
  - 15세이상 인구(만명,전년대비, %,연평균): ('16~'20년)30.9(0.7%)→('21~'25년)17.3(0.4%)

- 15~64세 인구(만명,전년대비, %,연평균): ('16~'20년)-1.3(0.0%)→('21~'25년)-29.5(-0.8%)
- 65세이상 인구(만명,전년대비, %,연평균): ('16~'20년)32.2(4.5%)→('21~'25년)46.9(5.2%)

| 그림 127 | 노동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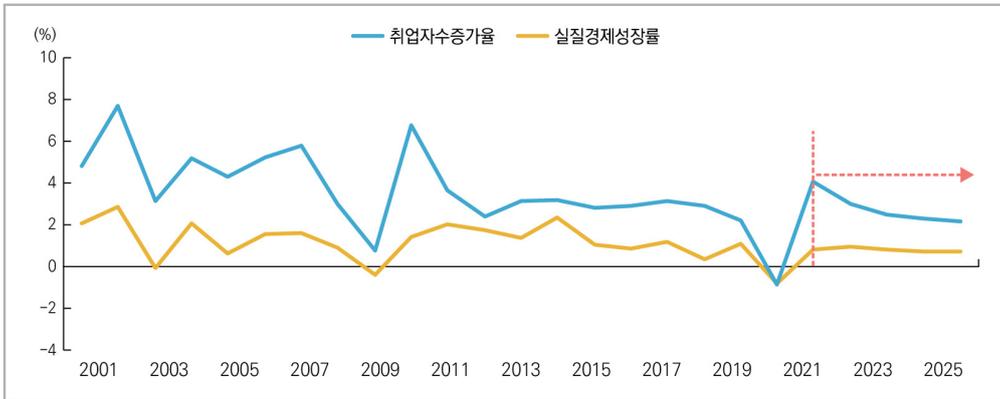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실질 GDP가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2.8%로 성장하여 노동수요가 완만히 증가할 전망
  - 실질GDP성장률(연평균, %): ('16~'20년)2.8→('20)-0.9→('21~'25년)2.8
  - 취업자수증가율(연평균,%): ('16~'20년)0.9→('20)-0.8→('21~'25년)0.8
  -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화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노동수급 간 미스매치가 심화될 가능성<sup>24)</sup>

24) 황수빈·박상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평가”, 한국은행 조사동계월보 (2021.2월) 참조.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수준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 채용부진, 노동생산성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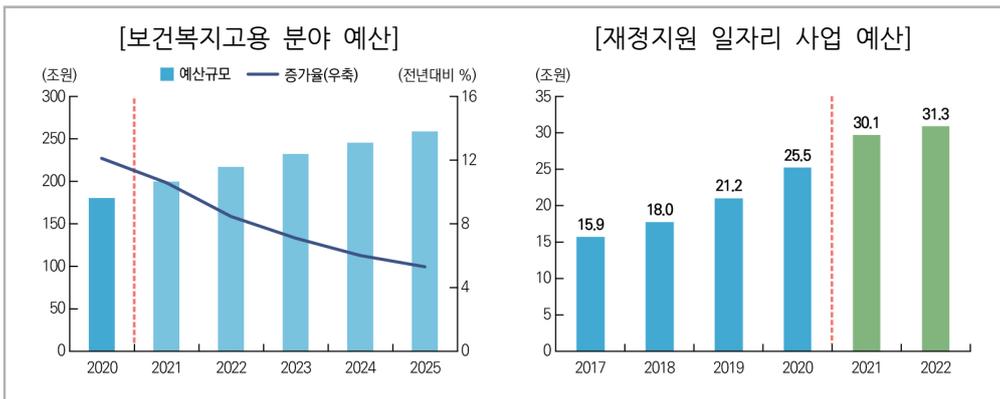
그림 128 |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의 적극적인 보건복지 및 고용정책의 영향으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공행정,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여성·고령층 등의 고용증가에 기여할 전망
  -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7.5% 증가하여 동기간 정부지출 증가율(5.5%)을 상회
  - 연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조원, 전년대비, %): (‘21)199.7(10.6%)→(‘22)216.7(8.5%)→(‘23)232.2(7.1%)→(‘24)246.1(6.0%)→(‘25)259.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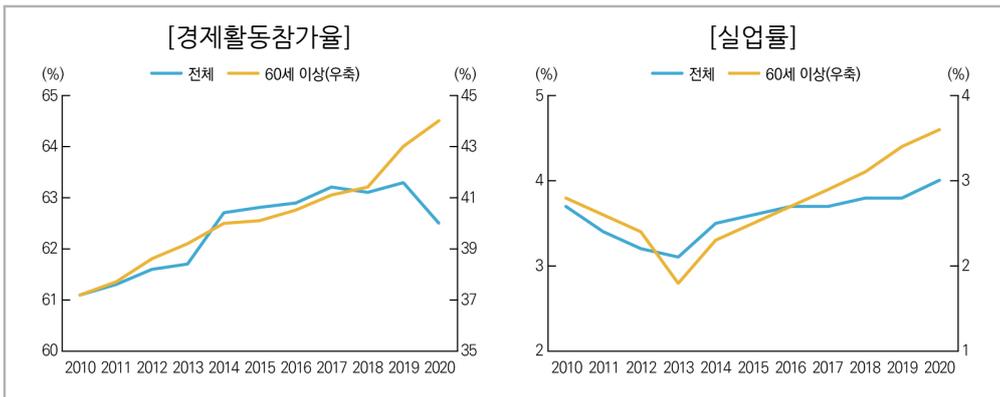
그림 129 | 보건복지고용 분야 및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주: 노인일자리 수는 2020년까지는 집행액 기준, 2021년 이후 예산안(목표치)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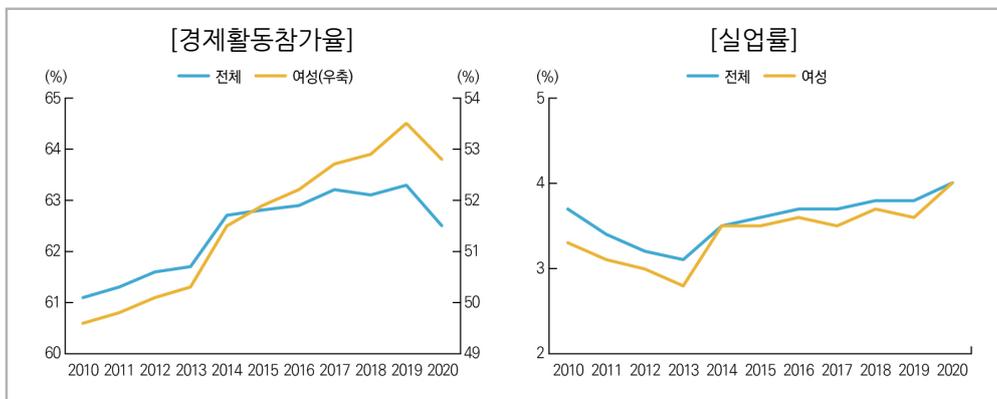
- 향후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이전 기간(연평균 3.8%)보다 소폭 상승하여 연평균 3.9% 수준이 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연령 진입 본격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등으로 완만히 상승하여 2025년 63.8%에 이를 전망
    -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완만히 상승하였으나 최근 2년간 2019년 43.0%, 2020년에는 44.0%로 가파르게 상승
    -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60세 이상을 제외한 주요 연령층에서 모두 하락하며 전년대비 0.8%p 하락한 62.5%를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연평균, %): ('16~'20년)63.0→('21~'25년)63.3
  - 실업률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며 2021년 4.0%에서 2025년 3.8%로 완만히 하락하겠지만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령층의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전 5년 기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할 전망
    -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과 제조업 등에서 온라인 소비활동 및 자동화 등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관련 일자리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
    - 실업률 전망(연평균, %): ('16~'20년)3.8→('21~'25년)3.9

| 그림 130 | 60세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131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 고용률은 2021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실업률의 하락으로 완만히 상승하여 2025년 61.4%(15~64세 기준 67.3%)에 이를 전망
  -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2021년 60.4%에서 2024년 61.1%, 2025년 61.4%에 이르고, 2021~2025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0.3%p를 기록하여 이전 기간에 비해 연평균 0.3%p 상승할 전망
  - 노동인구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15세 이상 인구 기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OECD비교 기준(15~64세) 고용률과의 격차가 소폭 확대될 전망
  -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 전망(연평균, %): ('16~'20년)60.6→('21~'25년)60.9
  - 15~64세 고용률(OECD비교 기준)과 15세 이상 인구 기준 고용률의 갭 전망(%p):('16~'20년)5.7→('21~'25년)5.8

| 표 15 | 주요 고용변수 중기 전망

(단위: %)

기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21	4.0	62.9	60.4
2022	3.9	63.1	60.7
2023	3.9	63.3	60.9
2024	3.9	63.6	61.1
2025	3.8	63.8	61.4
2016~2020 평균	3.8	63.0	60.6
2021~2025 평균	3.9	63.3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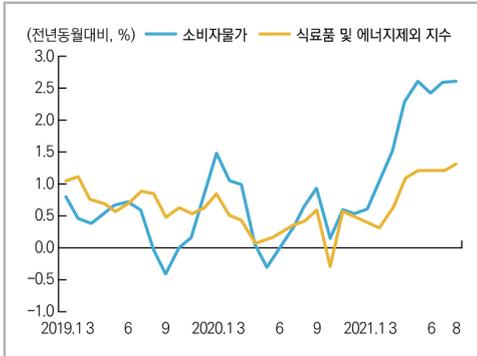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8. 물가

### 가. 202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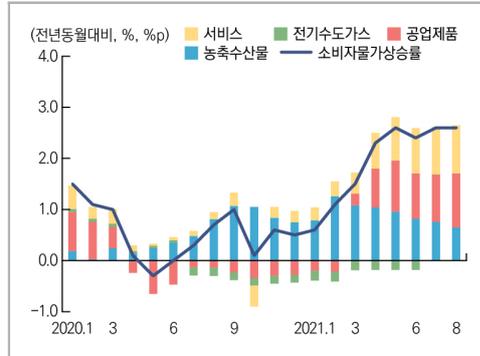
- 2021년 1~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업제품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서비스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0% 상승
  - 농축수산물 물가는 과채류와 축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8월 중 11.6% 상승
    - 봄철 이상기후<sup>25)</sup>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 작황이 부진하여 이들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
    - 또한, 축산물 물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달걀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반기 중 높은 오름세 지속

| 그림 132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133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지난해 석유류 제품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국제유가는 2021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회복과 공급부족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 시현

25) 2021년 중 3월 이상 고온 지속, 4월 한파와 초여름 날씨, 5월 눈과 잦은 비 등 급격한 날씨 변화가 나타남(“2021년 봄철 기후특성”, 기상청)

- 국제유가는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21.9%, 120.8% 상승<sup>26)</sup>
- 석유류 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1.1월)-8.6 → (3월)1.3 → (5월)23.3 → (7월)19.7 → (8월)21.6
-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전월세 등 집세 물가와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
  - 공공서비스 물가는 무상교육 추가시행 효과가 지속(고등학교 납입금 전년동월대비 100.0% 하락)되고 있으나, 하수도료와 국제항공료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하락폭 축소
  -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수요 증대,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외식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상반기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상승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등에 힘입어 1~8월 중 0.9% 상승
- 2021년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나 서비스물가와 에너지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높은 물가수준의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농산물의 수급이 점차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다만,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식용달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산란계의 감소<sup>27)</sup>가 이어지고 있으며, 산란계가 성장하는데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달걀가격의 오름세는 지속될 가능성<sup>28)</sup>
  - 공업제품 물가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하반기 중에도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
  - 공공서비스 물가는 하반기까지 무상교육 추가시행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관리물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축소될 전망

26) 브렌트, 두바이, WTI 3개 유종 평균(Bloomberg)

27) 2021년 2/4분기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6,587만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905만 마리(-12.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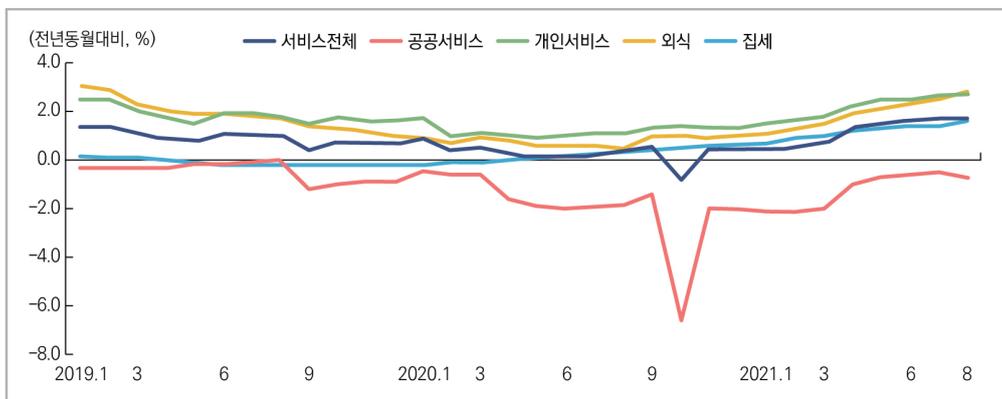
28)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특히 3개월 미만의 산란계가 크게 감소

3개월 미만 산란계(천 마리): ('20.6월) 11,112 → ('21.3)8,873 → ('21.6)9,071

- 개인서비스물가는 백신접종 진전 등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로 수요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2022년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 개선에 따라 서비스물가의 상승세가 확대되나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전년대비 1.6% 상승할 전망
  - 2022년에는 민간소비 확대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근원물가의 상승세가 높아질 전망
    - 교육비, 의료비 지원의 효과가 축소로 공공서비스 물가의 하락폭이 축소되는 점도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Box4 참고)
    - 2022년 중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납입금 하락효과가 소멸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지원 효과가 점차 축소

| 그림 134 | 품목별 서비스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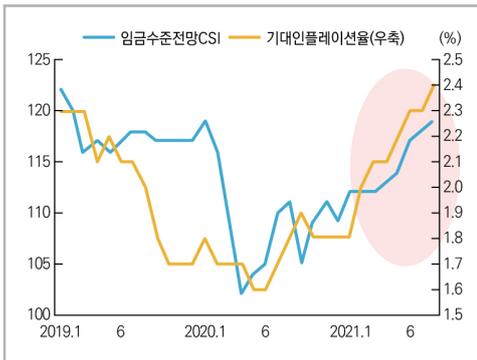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명목임금 상승폭 확대 등도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경제주체들의 가격결정 및 임금협상을 통해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2020년 중 1.6%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 8월 2.4%까지 상승

- 국내경기 회복과 수출증가 등으로 2021년 상반기 중 임금상승세가 확대 되었으며, 2022년에도 경기회복과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임금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그림 135 |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수준전망CSI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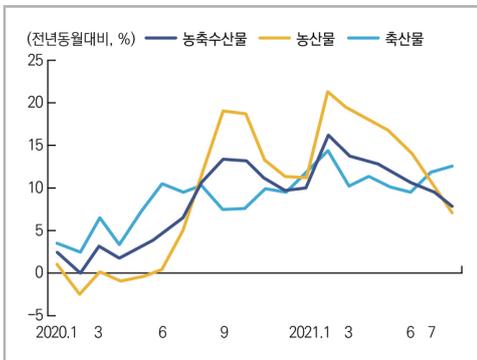
| 표 16 |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 가격 전망

		2021	2022
농산물 (센트/부셸)	옥수수	580	505
	소맥	650	600
	대두	1,400	1,238
금속 (달러/백만톤)	철광석	174.8	127.5
	구리	9,200	8,688
	알루미늄	2,300	2,097

주: 2021년 8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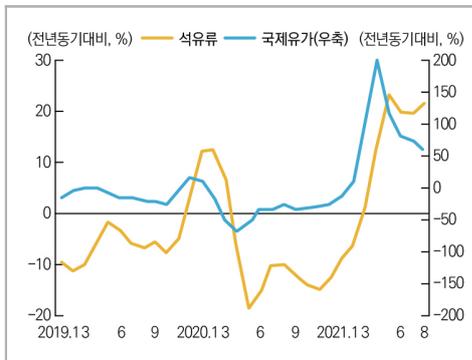
- 반면, 석유류 등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되어 상승세가 제한될 전망
  - 2021년에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으로 공업제품 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시현
  - 그러나, 2022년에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업제품 물가의 상승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

| 그림 136 |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137 | 석유류제품과 국제유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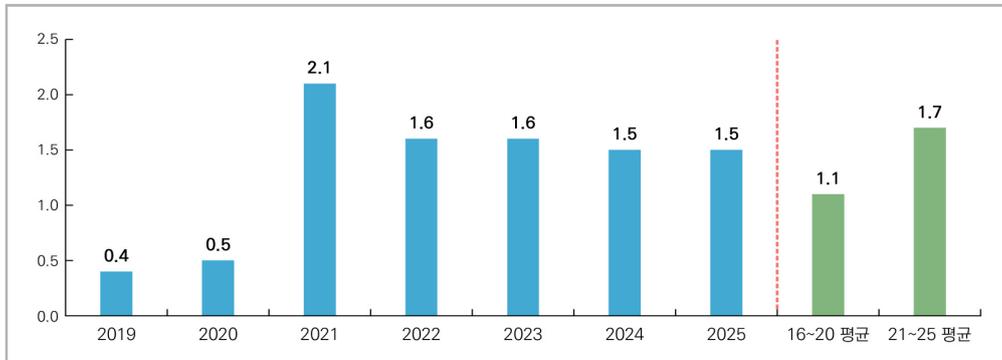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Bloomberg

- 농축수산물 물가는 2020~2021년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국제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 나. 중기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5년(1.1%)에 비해 높은 1.7%를 기록할 전망

| 그림 138 | 소비자물가 중기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요측면에서는 2022년부터 실질GDP갭이 양(+)의 값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수요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될 전망
  - 향후 5년 기간 중 실질GDP갭은 2021년까지 음(-)의 수준을 보이나 2022년 이후 양(+)으로 전환된 이후 2025년까지 양(+)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중국발 수출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입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어 공급측면의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운송료 등 물류비용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
  -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간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협이 부각되면서 주요국 간 자국 공급망의 구축 등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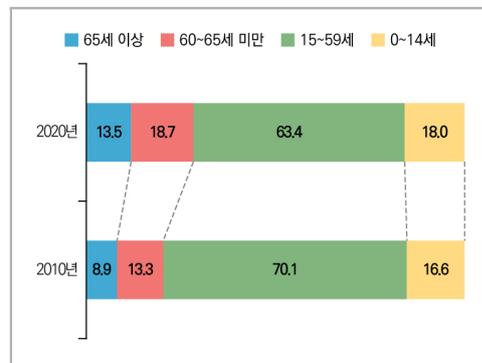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을 생산·수출하여 전세계 물가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점차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츰 중국발 수출물가가 높아질 가능성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인구 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3.4%에서 2020년 82.1%로 감소

| 그림 139 | 글로벌 제조업 공급업체 납품시간 추이



주: 글로벌 제조업 공급업체 납품시간 수치가 높을 수록 공급업체들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자료: IHS Markit

| 그림 140 | 중국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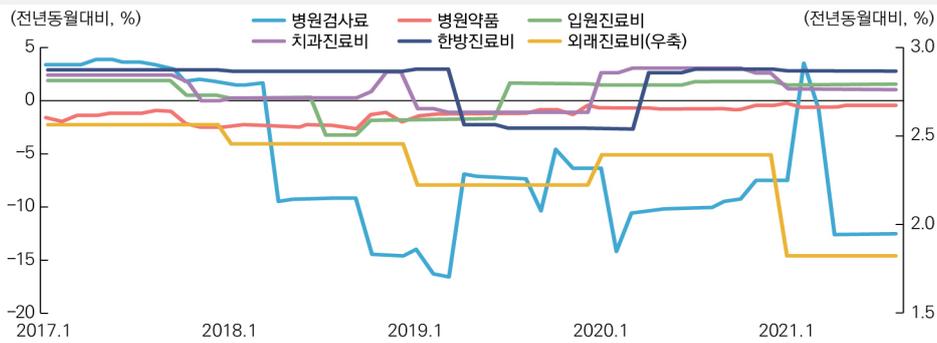
- 다만, 온라인 거래 확대는 유통단계 상 비용절감과 업체간 경쟁심화를 통해 가격을 낮춤으로써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하방요인으로 작용
  -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비대면 생활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입이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매 및 소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sup>29)</sup>

29) Goolsbee & Klenow(2018)은 미국의 2014~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온라인 물가와 CPI를 비교한 결과 온라인 물가가 1%p 더 낮다고 분석하였으며, Jo, Matsumura, & Weinstein(2019)은 일본의 가계 수입·지출 조사(NSFI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체가 상품가격을 최대 0.9%까지 낮출 수 있고, 고학력 인구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물가가 더욱 하락하였다고 분석

### [BOX 4] 관리물가 현황 및 전망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 영향으로 관리물가는 2018년부터 하락세
  -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로 의료비와 교육비 뿐만 아니라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담배가격 등이 포함되나 최근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봄
  -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시행되는 품목의 가격이 등락
    -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확대·적용, 치아진료 및 한방 대상 건강보험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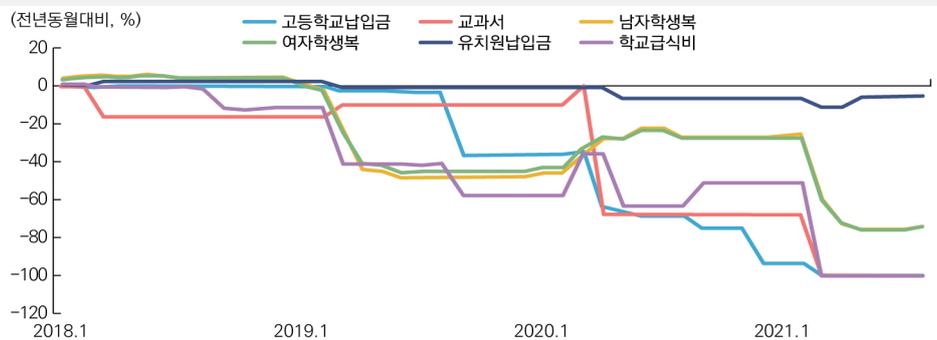
관리물가 중 의료비 항목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 2019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 무상급식 확대 시행, 무상교복 지급 정책, 누리과정 지원금 추가 지원 등으로 교육비 관련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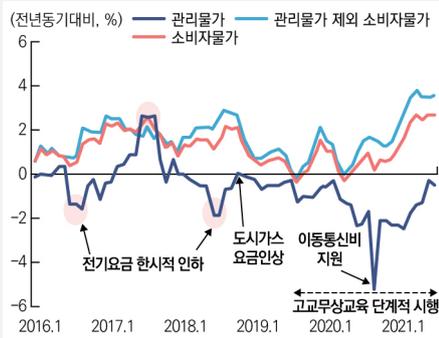
관리물가 중 교육비 항목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 이와 같은 관리물가 하락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p): 2017년(0.19)→2018년(-0.12)→2019년(-0.14)→2020년(-0.37)→2021년 1~8월(-0.33)
  - 특히, 교육비, 의료비 등 정책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대부분 근원물가에 포함(근원물가 가중치 785.9 중 관리물가가 183.7을 차지)되어 있어 관리물가로 인한 근원물가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관리물가와 관리물가제외 소비자물가 추이**



**근원물가와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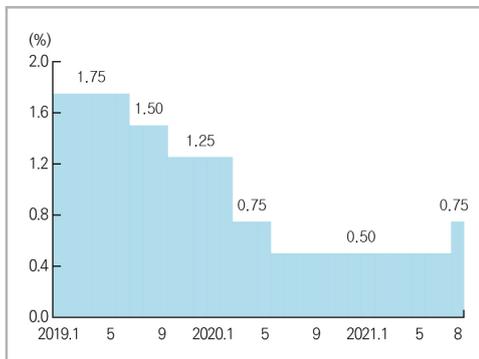
- 관리물가 하락세가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될 전망
  - 2021년 중에는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교육비 지원과 흉부 및 심장 초음파 급여화 등 의료비 지원 정책이 지속되며 관리물가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
  - 그러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가 2021년 중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이러한 효과가 소멸될 전망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으며, 2021년 3월 전학년으로 확대 적용
    -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1년 3월 고1까지 전면 시행
    - 다만,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이 추진되고 있어 급식비 하방압력은 여전히 상존
  -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2022년까지 시행 예정으로 하방압력이 지속되나 그 영향은 축소될 전망

## 9. 금리·환율

### 가. 202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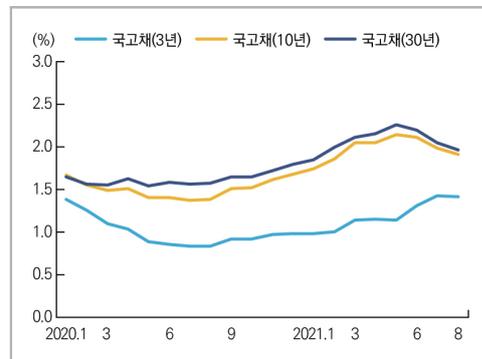
- 2021년 중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1.3%를 나타내어 전년 1.0%보다 상승할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20년 전년대비 -0.9%에서 2021년 4.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에서 2.1%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실물경제는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
    - 세계적인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2020년 경기침체로부터 국내경제가 빠르게 회복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20.4/4)-1.1→(‘21.1/4)1.9→(2/4)6.0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21.1월)0.6→(6월)2.4→(7월)2.6
  - 또한 금융불균형(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이 심화되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상향 조정 기대가 시장금리에 반영(8.26일 정책금리가 0.75%로 0.25%p 인상됨)
    - 이에 따라 3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1월 평균 각각 0.98%, 1.73%에서 8월에는 1.41%, 1.91%로 상승
  - 연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금리가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부 선반영하고 있고 세수호조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 개선으로 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 2021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1.3%를 나타낼 전망

| 그림 141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주: 월말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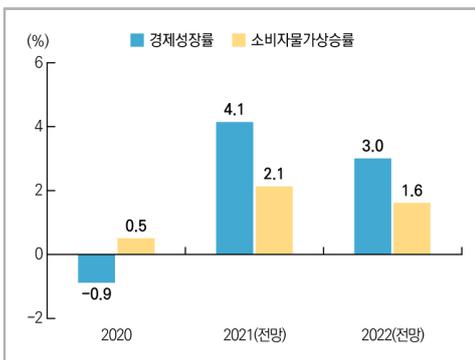
| 그림 142 | 국고채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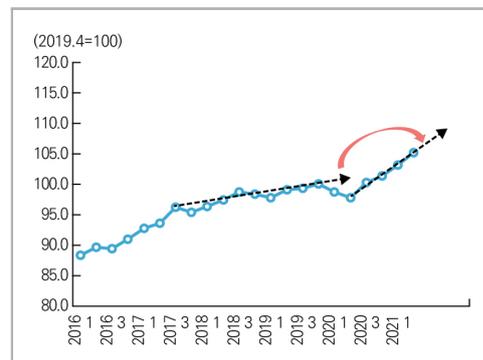
- 2022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정책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1년보다 높은 1.8%로 상승할 전망
  - 2022년 국내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0%, 소비자물상승률은 1.6%로 전망되어 모두 2021년보다 낮으나 양호한 수준
    - 명목GDP(계절조정)의 최근 4개 분기(2020.3/4분기~2021.2/4분기) 동향을 살펴보면 3분기 만인 2020.3/4분기에 코로나19 충격 발생 이전인 2019.4/4분기 수준을 초과
    -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경제성장 추세의 기울기가 높아져 실물경제 성장세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실물경제의 개선세는 경제주체의 자금수요 증가로 이어져 시중자금사정의 악화 및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임

| 그림 143 |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144 | 명목GDP 추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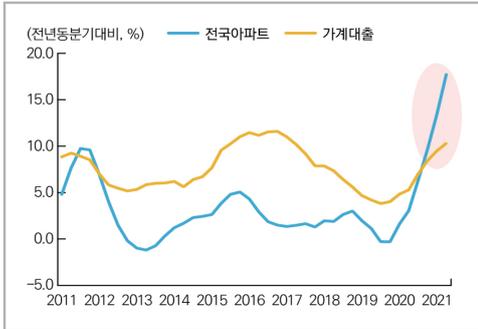


주: 명목GDP(계절조정)를 지수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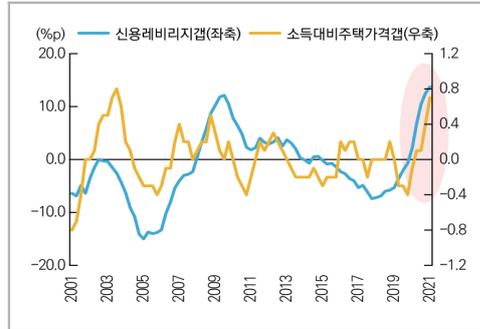
- 가계부채로 조달된 자금이 과도하게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으로 흐르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
  - 지난 8월 「향후 통화정책방향」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 유의’하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언급
  - 주택가격상승률과 가계대출증가율이 2020년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이를 통제할 필요성

- 신용레버리지 갭과 소득대비주택가격갭이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

**| 그림 145 | 전국아파트가격과  
가계대출 추이**



**| 그림 146 | 신용레버리지갭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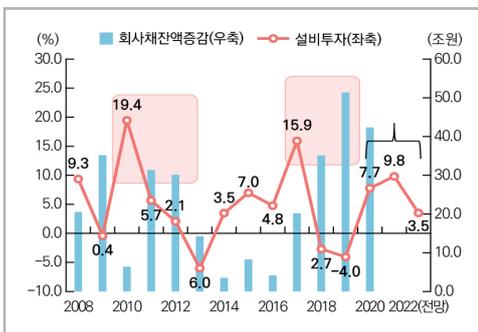


주: 신용레버리지갭은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의 장기 추세와의 격차, 소득대비 주택가격갭은 주택가격/1인당GDP 비율의 장기 추세와의 격차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회사채발행수요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가 예상되어 채권시장 내 수급도 악화될 전망
  - 설비투자가 급증하는 경우 1~2년 시차를 두고 회사채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설비투자자금수요보다 운전자금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임
  - 설비투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7.7%(2020년)→9.8%(2021년, 전망)→3.5%(2022년, 전망) 추이가 예상되고 있어 2021~2022년 중 회사채발행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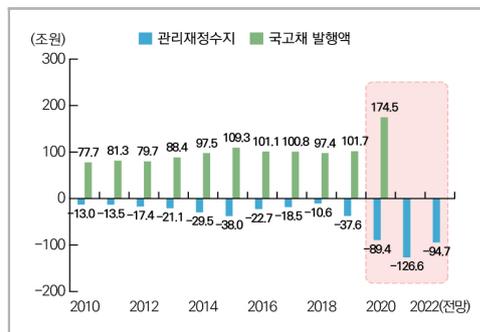
**| 그림 147 | 회사채잔액 증감과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주: 2021년, 2022년 설비투자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148 | 관리재정수지와 국고채  
발행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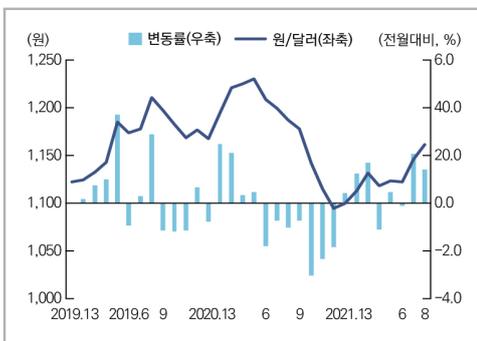


주: 2021년, 2022년는 기획재정부 전망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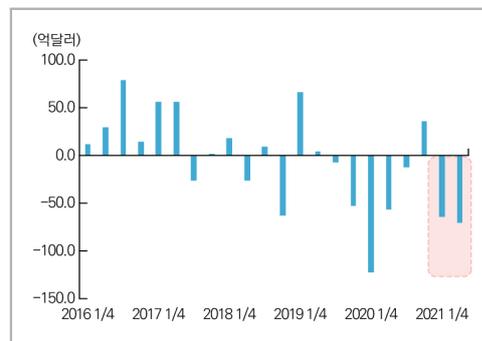
- 2021년 원/달러 환율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 회복에 힘입어 1,126원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
  - 세계적인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미·중 분쟁의 격화, 미국 연준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tapering) 가능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이에 따라 2020년 중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해외유출이 축소되었던 외국인국내주식 순매도가 2021년 들어 다시 급증하여 상반기 중 135.8억 달러가 유출
    - 원/달러 환율이 2021년 1월 평균 달러 당 1,099원에서 8월에는 1,161원으로 상승
    - 외국인국내주식투자증감(억달러): (‘20.4/4)34.8→(‘21.1/4)-64.8→(2/4)-71.0
  - 그러나 연중 평균으로는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한국투자의 안정성 상승,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내 달러화 유동성의 확대,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전년 1,180원보다 낮아질 전망

| 그림 149 |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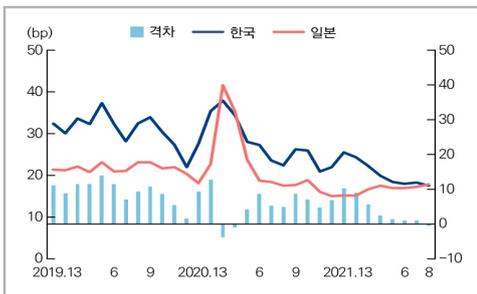
| 그림 150 | 외국인 국내주식 순투자 추이



- 2022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대내외 신용도에 힘입어 올해보다 소폭 낮은 연평균 1,121원 전망
  - 2022년 국내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나 견조한 성장세로 판단되어 외국인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유지될 것
  - 기축통화국인 일본의 외화표시 국채와 우리나라 국채(외평채)의 CDS프리미엄을 비교해볼 때 한국 국채의 신용도가 일본 국채를 상회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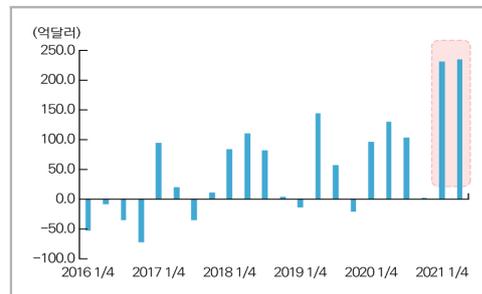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했던 2020.1월~2월을 제외하면 과거에는 일본 국채의 신용도가 한국 국채의 신용도를 크게 상회
- 그러나 2021.8월말 현재 일본 국채의 CDS프리미엄이 한국 국채보다 0.3bp 높은 것(5년 만기 기준)으로 나타나 한국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일본 국채보다 높아지기 시작

**| 그림 151 | 한국국채와 일본국채 간 CDS프리미엄 추이 비교**



주: 월말, 외화표시국채, 5년 만기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World Government B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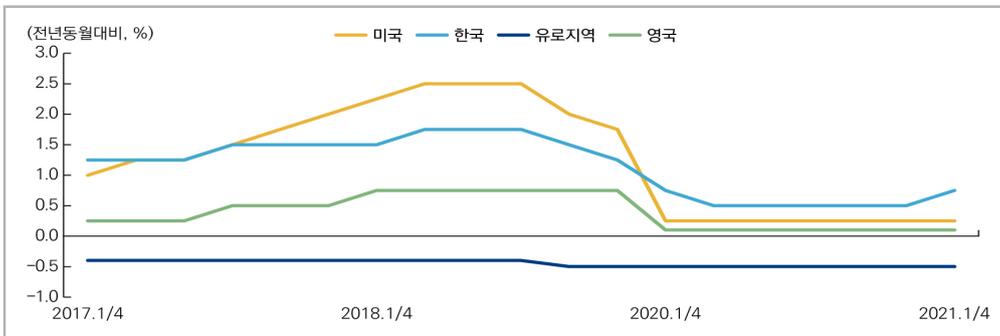
**| 그림 152 | 외국인 국내채권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선진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어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21년 상반기 중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464.2억 달러로 전년동기(225.1억 달러)의 2배 수준
  - 정책금리가 추가 인상된다면 국내외 금리 차의 확대로 2022년에도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임

**| 그림 153 | 선진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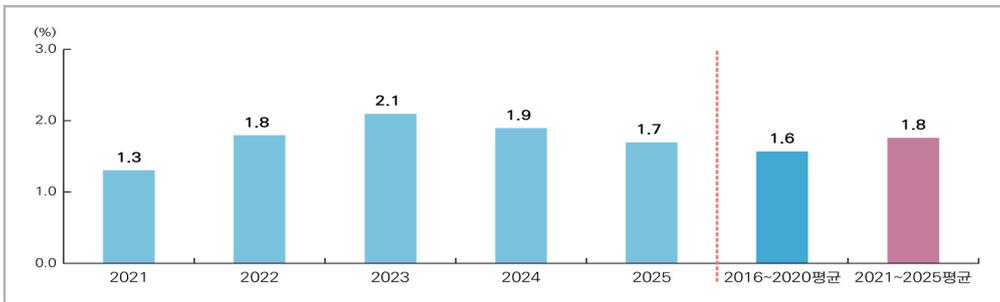


자료: 해당국 중앙은행

## 나.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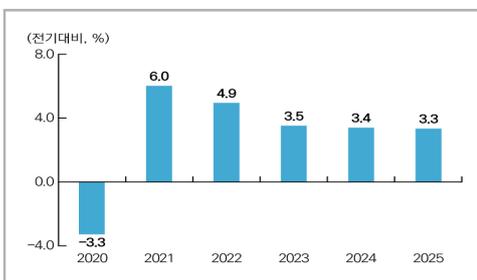
- 2021~2025년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연평균 1.8%를 나타낼 전망
  - 2016~2020년 연평균 1.6%보다 높은 수준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2021~2023년 중에는 경기회복과 정책금리 상승에 따라 시장금리가 높아질 것이나, 2024~2025년 중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둔화로 인해 하락할 전망

| 그림 154 | 중기 국고채금리(3년 만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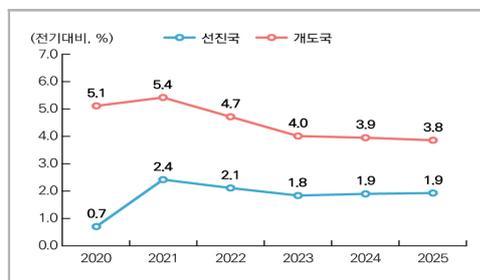


- 세계경제는 백신생산·보급의 진전, 치료제의 개발에 따라 경제회복세가 미국·중국에 이어 유럽 선진국, 신흥개도국으로 확산될 전망
  -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6.0% 성장한 후 중기적으로 3%대 초반으로 수렴하며 성장세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선진국은 1.9% 내외, 개도국은 3.9% 내외로 수렴할 전망
- 세계경제의 개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주어 국내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그림 155 | 중기 세계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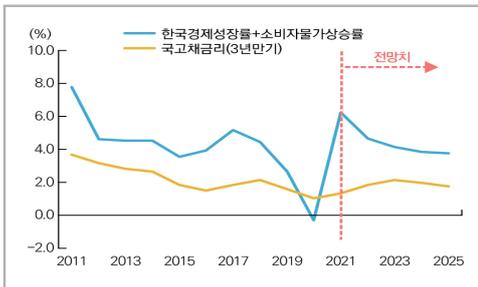
| 그림 156 | 중기 세계소비자물가 전망



주: 2021~2022년은 2021.7월 발표, 이후는 IMF 데이터베이스(2021.4월 발표)  
 자료: IMF

- 2022년에도 정책금리가 추가 상향 조정될 전망
  -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불균형, 세계적인 부채 증가, 미국 연준의 금융긴축 등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비
  - IMF는 미국 연준이 2023년부터 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

**| 그림 157 |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합과 국고채금리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158 | 미국 정책금리와 국채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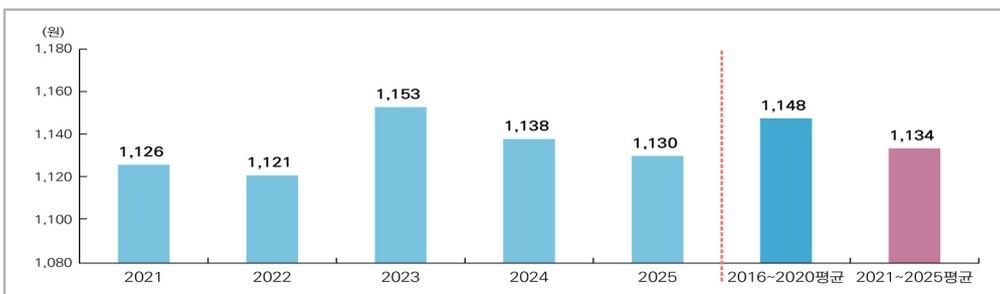


자료: IMF

**□ 2021~2025년 중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34원을 나타낼 전망**

- 2016~2020년 연평균 1,148원보다 낮은 수준
  - 국내외 경제회복, 우리나라 수출호조 및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임
- 2023년에는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의 영향으로 일부 외국인증권 투자자금의 유출이 예상됨에 따라 1,153원으로 상승할 전망
  - 2024~2025년에는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경상수지 흑자와 한국경제의 신뢰도 상승으로 1,130원대로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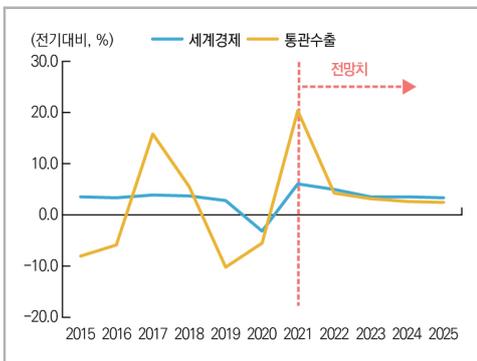
**| 그림 159 | 중기 원/달러 환율 전망**



자료: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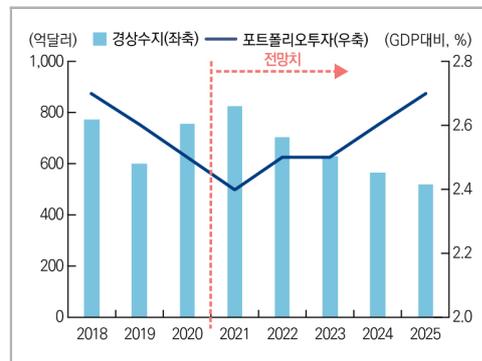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수출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코로나19 발생 이전 5년(2015~2019년) 간 세계경제성장률에서 통관수출증가율을 차감한 값이 연평균 4.0%p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5년(2021~2025년)은 연평균 -2.3%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개선에 따라 양호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중기적으로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투자수지도 흑자기조를 보일 것임
  - 경상수지는 코로나19 이후 5년(2021~2025년) 간 연평균 648억 달러 흑자가 예상되며, 다만 코로나19 이전 5년(2015~2019년) 연평균 831억 달러에 비해서는 축소될 전망
  - IMF는 한국경제보고서<sup>30)</sup>에서 둔화세를 보이던 포트폴리오투자수지 흑자가 2022년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림 160 | 세계경제와 통관수출 전망



주: 세계경제와 포트폴리오투자수지는 IMF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MF

| 그림 161 |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투자수지 추이와 전망



30) IMF, "Republic of Korea," IMF Country Report No. 21/64, Mar. 2021.

국회에산정책처





---

## 잠재성장률

1.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2. 투입요소별 중기 전망



### III. 잠재성장률

#### 1.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 잠재GDP는 실질GDP, 자본스톡, 노동투입 등에 대한 과거 시계열자료와 향후 5년 간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생산요소로 분해한 후 추정하고 전망
  - 생산함수접근법을 적용하여 실질GDP를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투입요소로 분해하고 투입요소별 잠재수준을 추정
    - 1970년부터 2020년까지는 실질GDP, 생산자본스톡, 노동투입 등 변수에 대한 과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고, 2021~2025년 중에는 관련 변수에 대한 전망치를 기초로 추정
    - 생산함수는 콥\_더글라스 형태로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가정 하에서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은 각각 0.6과 0.4로 전제<sup>31)</sup>
    - 투입요소별로 실질경제성장 및 잠재경제성장기여도를 추정하여 과거와 향후 5년 기간 중의 주요 성장요인의 변화를 비교 분석
- 2021~202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2~2.3% 수준이 될 전망
  -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급감하였던 고용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상승하고 자본의 기여도는 완만히 하락하며 연평균 2.3%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p): 노동 0.1, 자본 1.3, 총요소생산성 0.9

31)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자료에 따르면 2000~2020년 중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연평균 0.614임

-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생산인구증가세 둔화, 실업률 상승 등에도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
-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총고정투자가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이전 5년(1.5%p) 기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칠 전망
-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0.9%p)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이전 5년(1.2%p) 기간에 비해 0.3%p 하락할 전망

□ 과거 2000~2019년 중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하락 추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추정됨

- 기간별 잠재성장률 추정치(연평균,%): ('01~'05년)5.1→('06~'10년)4.3→('11~'15년)3.1→('16~'19년)2.7
  - 세계금융위기 이전 해인 2007년 4.6% 수준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 3.9%로 하락하였고, 이후 상승 반전되지 못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3%대로 급격하게 하락
  - 2013년 이후 3%를 하회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2016~2019년 중에는 연평균 2.7% 수준으로 하락
  - 2000년대 들어 노동인구의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투입이 정체된 가운데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기간별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p): ('01~'05년)2.3→('06~'10년)1.9→('11~'15년)1.4→('16~'19년)1.5
  - 금융위기 이후 총고정자본투자는 지난 2012년(-0.1%), 2018년(-2.2%), 2019년(-2.1%)에는 전년대비 감소하며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하락
-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p): ('01~'05년)2.8→('06~'10년)2.4→('11~'15년)1.5→('16~'19년)1.1
  -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급격하게 하락하였을 가능성

- 2016~2019년 중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연평균,%p): 노동 -0.1, 자본 1.5, 총요소생산성 1.3
  - 2016~2017년 기간 중에는 건설경기 및 반도체경기 호황 등에 기인하여 기업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동기간 15세이상 인구증가 둔화, 실업률 상승 등으로 노동투입이 둔화되며 노동의 기여도는 하락
  - 2018~2019년 기간 중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2년 연속 감소하며 부진하였고, 노동투입도 인구증가세 둔화 지속,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며 자본과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가 하락
-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우리 경제는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며 가파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완화될 전망
  - 2020년 중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취업자수 -21.8만명)과 민간 소비활동 위축(민간소비 -5.0%) 등으로 -0.9%를 기록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 그러나 2020년 중 총고정자본투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불구하고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반도체 등 IT업종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업종의 수출 호조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
    - 총고정투자(전년대비,%): ('18)-2.2→('19)-2.1→('20)2.6
    - 이는 지난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충격시의 총고정투자가 각각 1997년 -1.1%, 1998년 -20.5%, 2008년 -0.6%, 2009년 0.4% 등으로 위축되며 부진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임
  - 코로나19 이후에도 총고정투자는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전망 경로보다 확대된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sup>32)</sup>
    - 코로나19 이후 고정투자는 코로나19 이전 전망에 비해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6.3% 증가하여 누적적으로 3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2) [BOX] '코로나19 전후 고용 및 투자 전망 경로 비교와 시사점' 참조. 코로나19 이전 투입요소에 대한 전망 경로와 코로나19 이후 전망 경로를 비교하고, 투자확대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미칠 영향 분석.

-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노령층 경제활동참여 제고와 기저효과 등에 따른 고용증가와 견실한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며 세계금융위기 이어온 가파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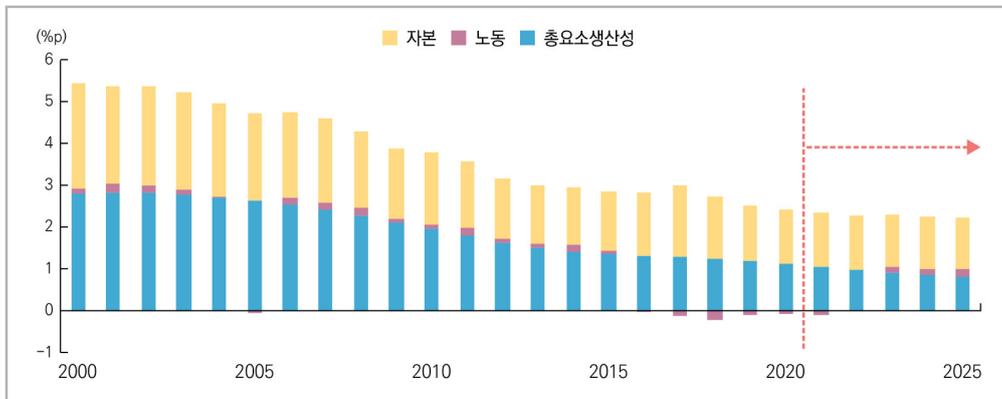
**| 표 17 |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단위: 기간평균, %, %p)

기간	잠재실질GDP 성장률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2001~2005	5.1	0.3	2.3	2.8
2006~2010	4.3	0.2	1.9	2.4
2011~2015	3.1	0.2	1.4	1.5
2016~2020	2.6	-0.1	1.5	1.2
2021~2025	2.3	0.1	1.3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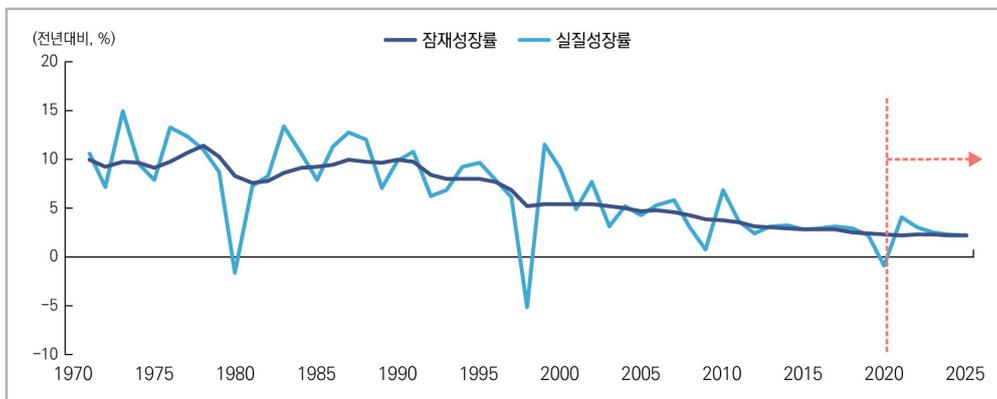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20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에 기초한 추정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162 | 투입요소별 잠재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  
 2) 2020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에 기초한 추정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163 | 실질GDP성장률과 잠재GDP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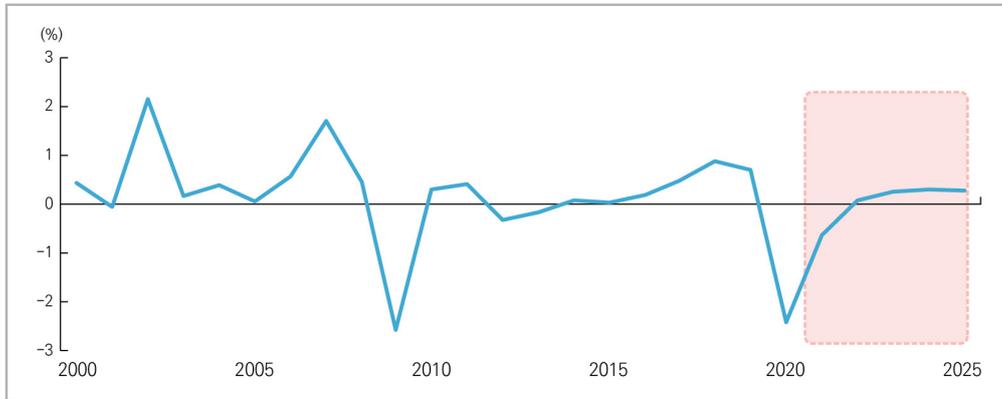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실질GDP갭<sup>33)</sup>은 2022년 이후 증가 전환되며 양(+)  
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하방압력  
에서 벗어날 가능성
- 실질GDP갭은 2014년 양(+)으로 전환된 이후 2019년까지 양(+)의 수준을  
유지하며 완만하게 확대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민간소비가 위  
축되며 지난 2009년(-2.6%)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
  - 향후 5년 전망 기간 중 실질GDP갭은 2020년을 저점으로 2021년까지 소폭  
음(-)의 갭이 유지되었으나 2022년 이후 양(+)으로 전환된 이후 2025년까지  
양(+)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측 물가하방압력에서 벗어날  
가능성
    - 2021년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소비활동 제한 등으로 민간소비  
가 완만하게 회복되며 실질GDP갭 소폭 음(-)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22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민간소비 및 고용 회복과 견실한 투자 증가  
세 유지 등으로 2025년까지 양(+)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됨
    - 민간소비(연평균,%): ('16~'20년)1.1→('21~'25년)2.6
    - 총고정투자(연평균,%): ('16~'20년)2.9→('21~'25년)2.9
    - 소비자물가(연평균,%): ('16~'20년)1.1→('21~'25년)1.7

33) 실질GDP과 잠재GDP 추정치 간의 퍼센티지갭으로 정의되며, 실질GDP갭 = (실질GDP - 잠재GDP)/잠재GDP×100으로 계산되며, 실질GDP갭이 양(+)이면 초과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 음(-)이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물가하락압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림 164 | 실질GDP갭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

## 2. 투입요소별 중기 전망

### 가. 총노동투입

- 총노동투입은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 등의 변수들을 이용해 추정된 총노동투입시간<sup>34)</sup>으로 측정
- 2021~2025년 기간 중 총노동투입은 지난 2020년을 저점으로 증가 전환되며 이전 5년 기간(연평균 -1.6%)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연평균 1.2% 증가할 전망
  - 총노동투입은 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의 완만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와 주당 근로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
    - 주요 기간별 총노동투입(연평균,%): ('01~'05년)0.5→('06~'10년)-0.2→('11~'15년)1.1→('15~'20년)-1.6
  -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총노동투입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을 저점으로 회복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18년 수준을 회복

34) 총노동투입시간 = 취업자수 × 주당근로시간 × (365/7)이고,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1-실업률)로 계산

- 이전 5년과 비교하여 15세이상 인구증가세 둔화(0.7%→0.4%), 실업률 상승(3.8%→3.9%) 등은 총노동투입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던 주당근로시간 증가 전환 등은 총노동투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지난 2018~2020년 기간 중 총노동투입은 15세이상 인구증가세 둔화, 주당근로시간 감소, 실업률 상승 등에 기인하여 연평균 2.8% 감소
  - 2018년 총노동투입은 15세이상 인구증가율 둔화(0.7%→0.6%) 및 경제활동참가율 하락(63.2%→63.2%), 실업률 상승(3.7%→3.8%), 주당평균근로시간 감소(41.5시간으로 전년대비 -3.0%) 등으로 전년대비 2.7% 감소
  - 2019년 총노동투입은 실업률이 전년수준(3.8%)을 유지한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0.6%→0.7%) 및 경제활동참가율 상승(63.1%→63.3%) 등으로 취업자수가 1.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근로시간 감소(-1.9%)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0.8% 감소
  -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실업률이 상승(3.8%→4.0%)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63.3%→62.5%)하며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0.8% 감소하였고, 주당근로시간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영업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총노동투입은 전년대비 5.0% 감소
    - 2020년 중 총노동투입 감소폭(-5.0%)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8.4%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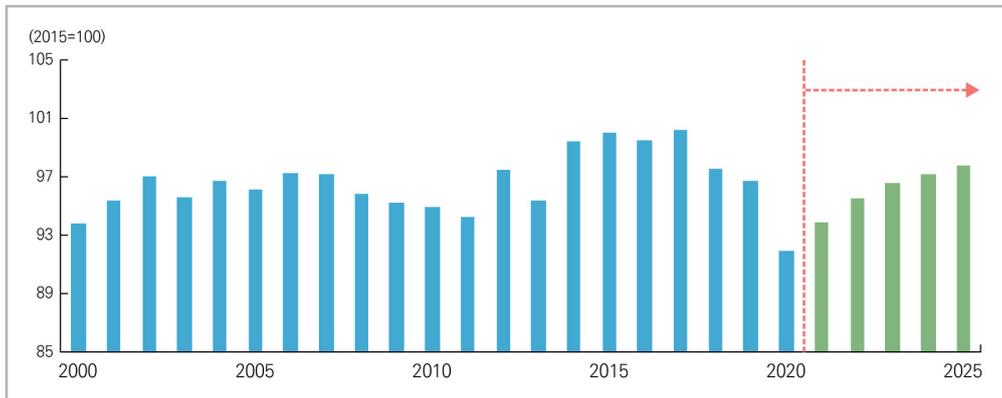
| 표 18 | 노동투입 결정 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연평균 %, 전년대비%)

기간	총노동투입 증가율	결정요인 추이 및 전망				
		생산인구	취업자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	주당근로 시간
2001~2005	0.5	1.0	1.5	61.9	3.7	-1.0
2006~2010	-0.2	1.4	1.0	61.6	3.4	-1.3
2011~2015	1.1	1.2	1.7	62.0	3.4	-0.6
2016~2020	-1.6	0.7	0.6	63.0	3.8	-2.2
2021~2025	1.2	0.4	0.8	63.3	3.9	0.4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20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치  
 3) 주당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그림 165 | 총노동투입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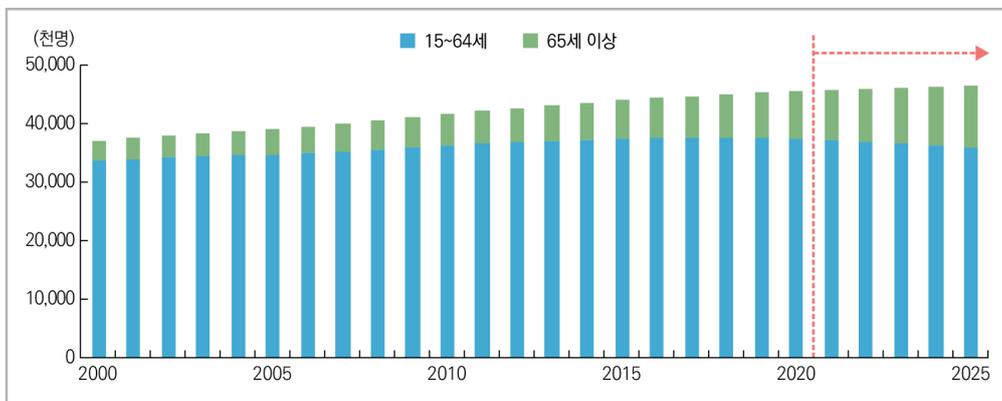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 15세 이상 생산인구는 2021~2025년 중 연평균 0.4%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65세 이상 연령대 진입 본격화로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

- 향후 5년 기간 중 1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0.4% 증가하여 이전 5년 기간(연평균 0.7%)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2024~2025년 중에는 0.3%로 낮아질 전망
- 생산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8.2%에서 2023년 이후 20%를 상회하여 2024년 21.8%, 2025년 23.0%로 상승할 전망
- 65세 이상 연령층이 생산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01년)10.1→('06)11.7→('11년)13.4→('16년)15.5→('21년)19.0→('25년)23.0

| 그림 166 | 15세 이상 생산인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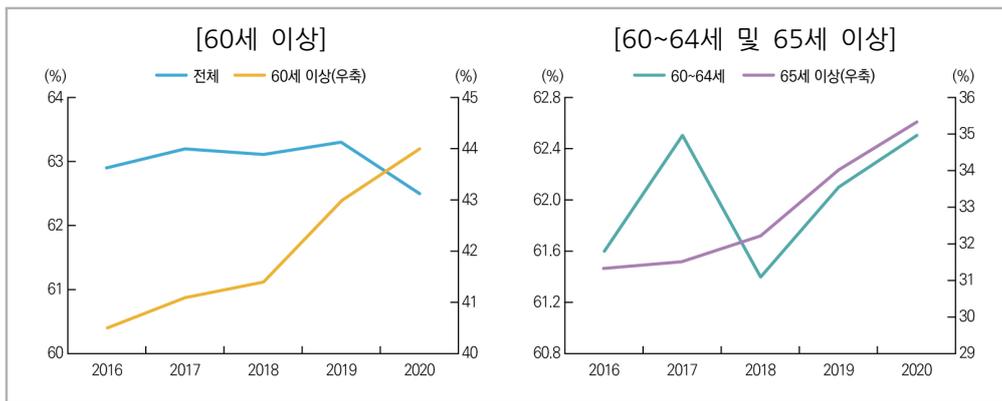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15~64세 핵심연령층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등으로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2025년 63.8%에 이를 전망
    -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60세 이상을 제외한 주요 연령층에서 모두 하락하며 전년대비 0.8%p 하락한 62.5%를 기록하여 지난 1998년(-1.9%p)과 2009년(-0.7%)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 그러나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완만히 상승하였으나 최근 2년간 2019년 43.0%, 2020년에는 44.0%로 가파르게 상승

- 여성과 고령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로 2023년 중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63.3%)을 회복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연평균,%): ('16~'20년)63.0→('21~'25년)63.3
-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16~'20년)69.1→('21~'25년)69.6

| 그림 167 | 60세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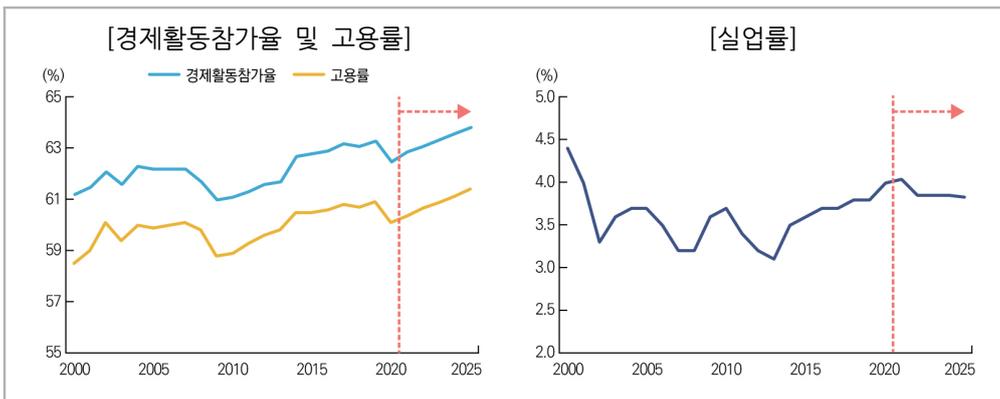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실업률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경기회복세 지속과 고용 여건 개선으로 완만히 하락하고 주당근로시간은 소폭 증가로 전환될 전망
  - 실업률은 2021년 4.0%에서 2025년 3.8%로 완만히 하락하겠지만 성장률 둔화와 고령층의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전 5년 기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할 전망
    - 실업률(연평균,%): ('16~'20년)3.8→('21~'25년)3.9
  -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과 제조업 등에서 온라인 소비활동 및 자동화 등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관련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 주당 근로시간은 장기간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될 전망
    - 2000년 이후 지난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주52시간근무제 시행 등의 효과로 지난 2018~2020년 중에는 연평균 3.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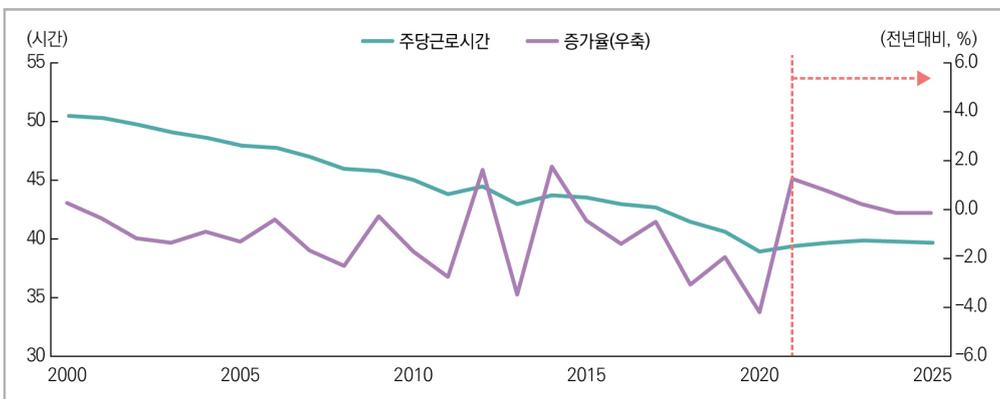
-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조치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효과로 전년대비 4.2% 감소
- 2021~2023년 중에는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와 경기회복세 지속, 서비스업 영업활동 정상화, 주52시간 근무제 정착 등의 효과가 더해지며 연평균 0.8% 증가 전환될 전망
- 다만 2024~2025년 중에는 다시 감소 전환되어 연평균 0.1% 감소할 전망
- 주당근로시간(전년대비,%,연평균): ('16~'20년)-2.2→('21~'25년)0.4
- 고용률은 연평균 60.9%로 지난 2016~2020년(60.6%) 기간에 비해 연평균 0.3%p 증가

| 그림 168 |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그림 169 | 주당근로시간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나. 생산자본스톡

- 생산자본스톡은 총고정자본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 대한 전망과 자본스톡의 감가상각률에 의해 결정
  - 총고정자본투자 전망은 자본재 형태별 전망 모형을 기초로 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짐
  - 감가상각률(% , 연평균): ('01~'05년)3.9→('06~'10년)4.0→('11~'15년)4.2→('16~'20년)4.3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5년 기간 중에는 4.3%에 달할 것으로 전제
- 2021~2025년 기간 중 생산자본스톡은 건설투자 둔화에도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을 중심으로 총고정투자가 확대되며 연평균 3.2% 증가할 전망
  - 2021~2025년 기간 중 생산자본스톡은 연평균 3.2% 증가하여 지난 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3.7%에 비해 0.5%p 둔화될 전망
    - 기간별 생산자본스톡(% , 연평균): ('01~'05년)5.7→('06~'10년)4.6→('11~'15년)3.6→('16~'20년)3.7
    - 2000년대 초반(2001~2005년 중) 연평균 5.7%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1~2015년 중)에는 장기간의 투자 부진으로 3.6%로 둔화되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7%로 소폭 상승

| 표 19 | 자본투입 추이 및 전망

(단위: 연평균, 전년대비 %)

기간	생산자본스톡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 자본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2001~2005	5.7	3.8	1.6	4.6	7.6
2006~2010	4.6	2.9	6.8	-0.1	6.2
2011~2015	3.6	2.5	2.6	1.7	4.8
2016~2020	3.7	2.9	3.4	2.1	4.4
2021~2025	3.2	2.9	4.5	1.3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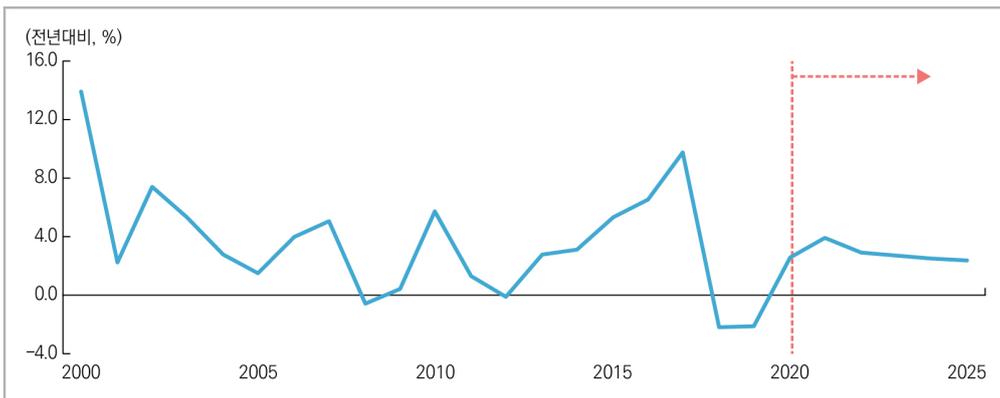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20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1~2025년 기간 중 총고정자본투자는 코로나19 이후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총고정자본투자는 건설투자가 증가 전환되고 주력 업종의 실적 호조, 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연평균 2.9%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와 반도체, AI, 배터리 등 신성장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확대 등으로 2021년 9.8% 증가하고 2022~2025년 중에는 연평균 3.2% 증가
    - 건설투자는 지난 3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되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2021~2025년 중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지출이 늘며 연평균 4.0%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총고정자본투자 중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
    -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투자 비중(% , 연평균): ('16~'20년)건설투자 49.5, 설비투자 29.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0.9→('21~'25년)건설투자 45.1, 설비투자 3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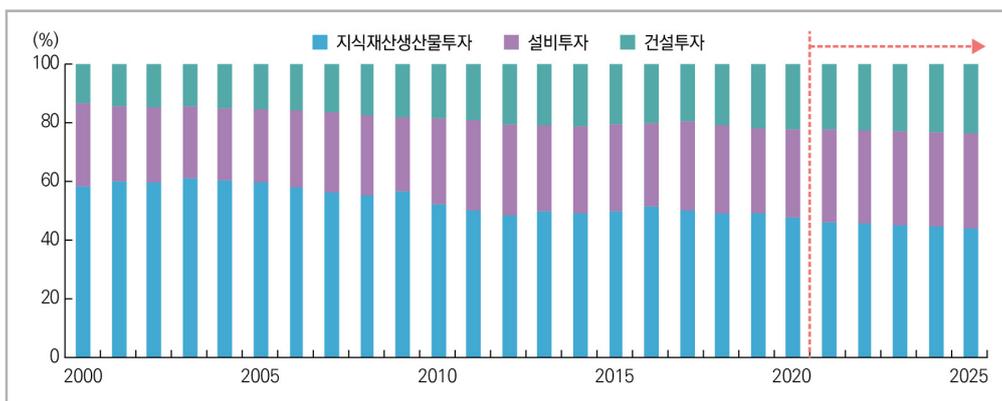
그림 170 | 총고정자본투자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주: 2020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 지난 2001~2019년 총고정자본투자증가율은 연평균 3.1%로 동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6%를 하회하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며 추세적으로 하락
  - 총고정자본투자(% , 연평균):('01~'05년)3.8→('06~'10년)2.9→('11~'15년)2.5→('16~'19년)3.0
  - 실질GDP성장률(% , 연평균):('01~'05년)5.0→('06~'10년)4.3→('11~'15년)3.1→('16~'19년)2.8
  -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 2004~2012년 중 건설투자가 연평균 -0.6%로 부진하였고, 2018~2019년 중에는 건설투자(연평균 -3.6%)와 설비투자(-4.9%)가 모두 2년 연속 감소하며 부진
  - 최근 5년 기간 중에는 2016년에는 건설투자가 건설경기 회복으로 10.0% 증가하고, 2017년에는 설비투자가 반도체 경기호황에 힘입어 16.5% 증가하며 총고정자본투자증가율이 연평균 2.9%로 지난 2011~2015년 기간 2.5%에 비해 0.4%p 상승
- 2020년 중 총고정자본투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충격으로 실질GDP가 -0.9%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대외여건의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및 비대면 IT서비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설비투자와 지식재산투자가 각각 전년 대비 7.1%, 4.0% 증가하며 건설투자 부진(-0.4%)에도 전년 대비 2.6% 증가
  - \* 상품수출(전년동기대비, %): ('20. 1/4)-0.3→(2/4)3.8→(3/4)6.4→(4.4)23.6

| 그림 171 |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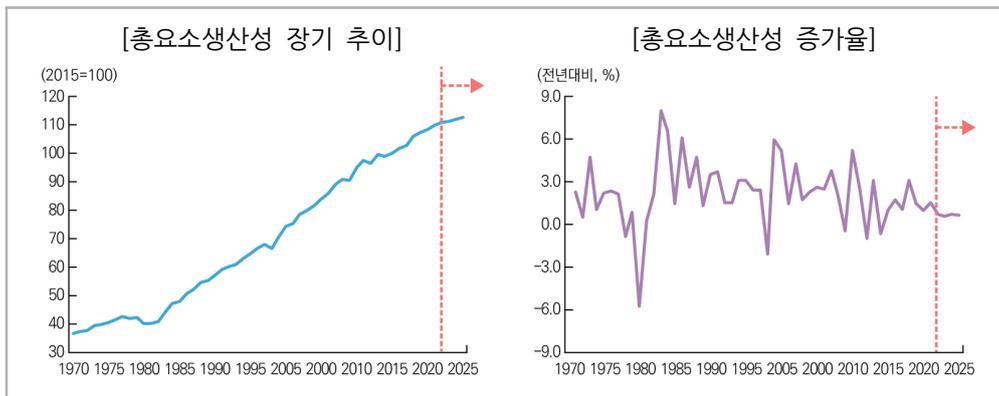


주: 2020년 이후는 자체 전망치를 기초로 한 추정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한국은행

## 다. 총요소생산성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은 자본과 노동 등의 투입 요소가 생산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 후 남은 부분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 생산함수에 총노동투입 및 생산자본스톡을 대입하여 남은 잔차항으로, 노동과 자본에 체화된 생산성 및 기술 발전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함
  
- 2021~2025년 중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8% 증가하여 이전 5년 기간(연평균 1.6%)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2021년 중 1.5% 증가한 이후 2022~2025년 중에는 연평균 0.6%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
  - 지난 2016~2020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 전년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998년 외환위기시(-2.1%), 2009년 세계금융위기시(-0.5%)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 기간별 총요소생산성(연평균,%): ('01~'05년)2.5→('06~'10년)2.6→('11~'15년)1.0→('16~'20년)1.6→('21~'25년)0.8

| 그림 172 | 총요소생산성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BOX 5] 코로나19 전후 고용 및 투자 전망 경로 비교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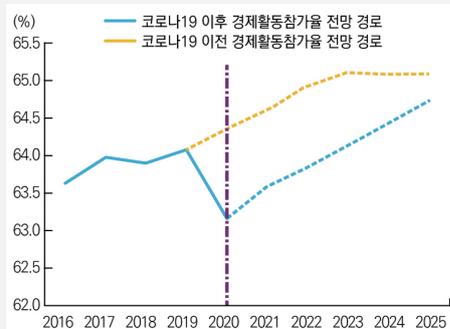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의 주요 투입요소와 생산에 대한 전망 경로를 기준선으로 이번 전망 경로와 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 전후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코로나19 이전(2019.9월)의 고용과 투자에 대한 전망을 기준선으로 코로나19 이후(2021. 9월) 전망 경로와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재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이는 고용, 투자, 실질GDP가 지난 2020. 9월 중 코로나19 충격의 와중에서 실시한 전망 경로와 비교해 투자를 중심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임
  
- 코로나19 이후 고용은 실업률이 완만하게 하락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며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전망 경로로 완만하게 접근
  - 실업률은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3.9%로 예상되어 코로나19 이전 전망에 비해 연평균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여 코로나19 이전 전망 경로에 접근
    - 코로나19 이전 전망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2023년 이후 64.2%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았음
    - 코로나19 이후 전망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
    -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연령층에서 모두 하락하였으나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43.0%)대비 1%p 상승하여 44.0% 기록
  -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전망에 비해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1.1% 감소하여 누적적으로 5.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수 감소폭은 기준선 대비 2021년 -1.5%, 2022년 -1.3%, 2023년 -1.2%, 2024년 -0.9%, 2025년 -0.5%로 추정됨
    - 다만 총노동시간으로 측정한 총노동투입 변수의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및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되며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5년 기간 중 증가 전환될 전망

### 코로나19 전후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비교

실업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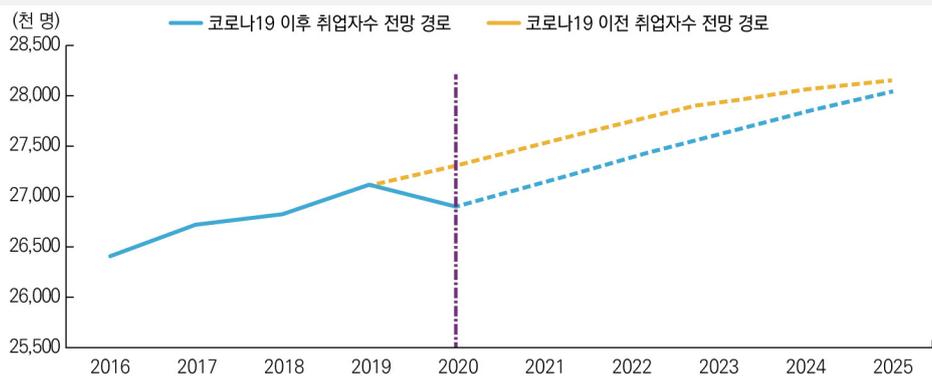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주: 전망시점은 코로나19 이전은 2019년 9월, 코로나19 이후는 2021년 9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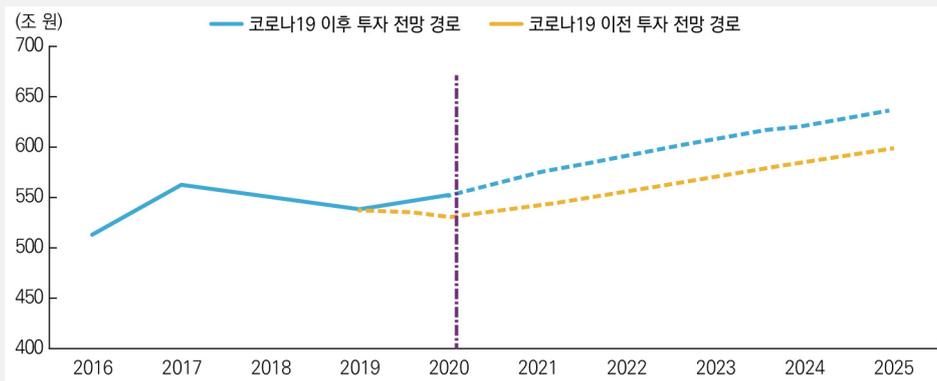
### 코로나19 전후 취업자수 전망 비교



주: 전망시점은 코로나19 이전은 2019년 9월, 코로나19 이후는 2021년 9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전망

- 코로나19 이후 총고정자본투자는 설비투자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 전환되어 코로나19 이전 전망 경로보다 확대된 증가 추세가 유지될 전망
  - 2018~2019년 중 총고정자본투자는 장기간의 건설경기 위축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2년 연속 감소세 지속
  - 그러나 2020년 중 총고정자본투자는 코로나19 충격과 서비스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IT업종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업종의 기록적인 수출 증가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증가 전환되며 호조세를 보임
    - 이는 지난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충격시 총고정투자가 각각 1997년 -1.1%, 1998년 -20.5%, 2008년 -0.6%, 2009년 0.4% 등으로 위축되며 부진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임
    - 총고정자본투자(전년대비,%):('18)-2.2→('19)-2.1→('20)2.6
    - 건설투자(전년대비,%):('18)-4.6→('19)-1.7→('20)-0.4
    - 설비투자(전년대비,%):('18)-2.3→('19)-6.6→('20)7.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년대비,%):('18)4.4→('19)3.1→('20)4.0
  - 코로나19 이후 총고정자본투자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코로나19 이전 전망에 비해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6.3% 증가하여 누적적으로 3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총고정자본투자 증가폭은 기준선 대비 2021년 5.9%, 2022년 6.3%, 2023년 6.5%, 2024년과 2025년 각각 6.4%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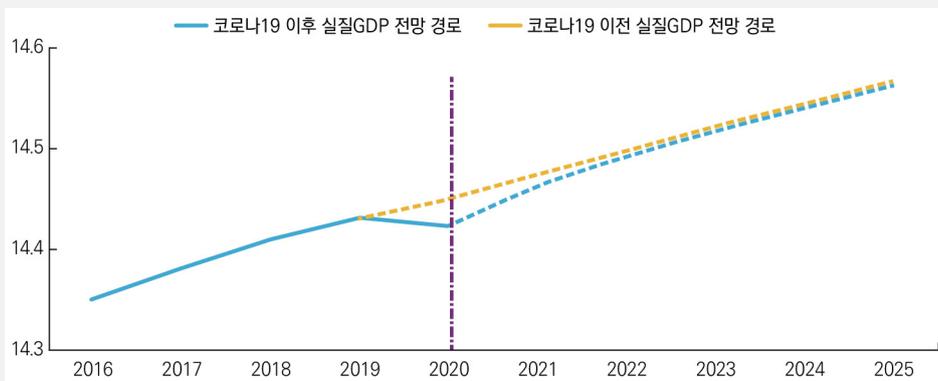
코로나19 전후 총고정자본투자 전망 비교



주: 전망시점은 코로나19 이전은 2019년 9월, 코로나19 이후는 2021년 9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전망

- 코로나19 이후 실질GDP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전 성장 경로로 빠르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이후 실질GDP는 코로나19 이전 전망 경로에 비해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0.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누적적으로 2.7% 감소
    - 실질GDP 감소폭은 기준선 대비 2021년 -1.1%, 2022년 -0.5%, 2023년 -0.4%, 2024년 -0.3%, 2025년 -0.3%로 각각 추정됨

코로나19 전후 실질GDP 전망 경로 비교



주: 1) 실질GDP는 자연대수를 취한 값임  
 2) 전망시점은 코로나19 이전은 2019년 9월, 코로나19 이후는 2021년 9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전망

-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완만한 고용회복과 건설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완화될 전망
  - 이는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고정투자가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설비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향후에도 건설한 증가 추세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경기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확대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지난 2020년 9월에 전망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4년 중 연평균 2.0%로 예상되어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연평균 0.6%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최근 1년간 주요 투입변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을 반영한 결과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3%로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0.3%p 하락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이전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국회에산정책처



# 4

##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1. 미국
2. 중국
3. 유로지역
4.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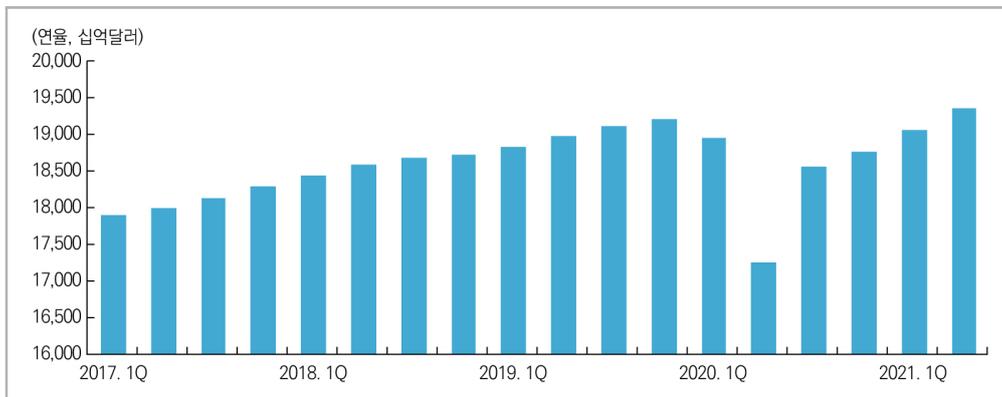
## IV.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 1. 미국

#### 가. 최근 경제동향

- 최근 미국 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가계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를 상회하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 2021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잠정치)은 6.5%(전분기대비 연율)로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빠른 경제 정상화 등에 힘입어 1/4분기(6.3%)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냄
    - 실질GDP 성장률(전기비 연율, %): (20.4/4분기)4.5→(21.1/4분기)6.3→(2/4분기)6.5
    - 개인소비는 서비스소비(12.0%)와 상품소비(11.6%) 모두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11.8% 증가하였고, 민간투자는 주택투자(13.3%→9.8%)가 부진하고 비주택투자(8.0%)에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냄
    - 2/4분기 실질GDP 수준은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4/4분기)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73 | 미국의 실질GDP 추이



자료: BEA

- 소비관련 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은 고용여건 개선과 경제활동 정상화 등으로 서비스소비가 회복되며 2/4분기까지 양호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7월 이후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춤한 모습
  - 실질개인소비지출(전기비, 연율): (‘21.1/4)11.4→(2/4)11.8→(7월)-1.7
  - 선행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8월 중 113.8로 전월(125.1)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난 2월(9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산업생산은 2/4분기 들어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망 애로 등으로 제조업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타 부문에서 늘며 견실한 증가세 지속
  - 전산업생산(전월비, %): (‘21.5월)0.8→(6월)0.2→(7월)0.9
  - 제조업생산(전월비, %): (‘21.5월)1.1→(6월)-0.3→(7월)1.4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지수는 5월(61.2)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 8월 중 59.9으로 전월(59.5)에 비해 소폭 상승 전환

표 20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실질GDP성장률 <sup>1)</sup>	2.3	-3.4	-5.1	-31.2	33.8	4.5	6.3	6.5	-
개인소비지출(실질) <sup>1)</sup>	2.2	-3.8	-6.9	-33.4	41.4	3.4	11.4	11.8	-1.7
산업생산 <sup>2)</sup>	-0.8	-7.2	-1.7	-12.9	9.6	2.0	1.0	1.5	0.9
주택착공호수 <sup>3)</sup>	129	138	149	109	144	158	160	159	153
실업률	3.7	8.1	3.8	13.0	8.8	6.7	6.2	5.9	5.4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sup>4)</sup>	1,996	-8,720	132	-18,201	7,195	1,759	736	1,693	943
소비자물가 <sup>5)</sup>	1.8	1.2	1.7	0.6	1.2	1.2	1.9	4.8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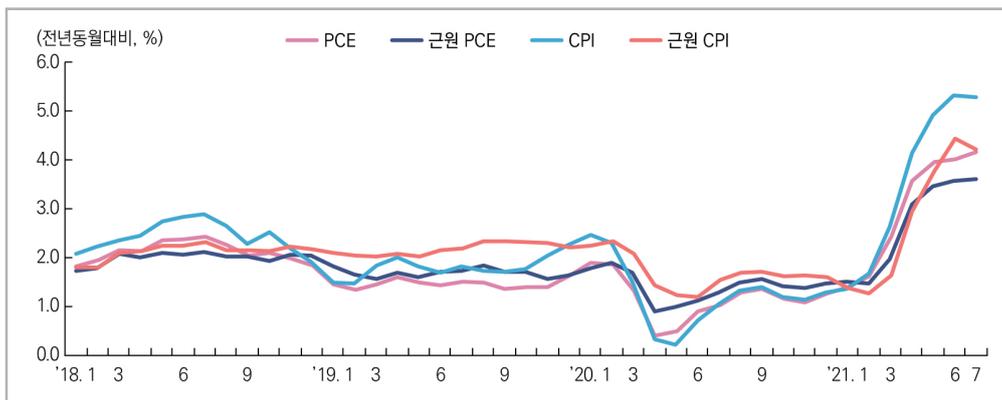
주: 1)전기대비, 연율(%), 2)전기대비, % 3) 연간 환산치, 만호 4) 전기대비 증감(천명), 5)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국 FRB, BEA, BLS, 컨퍼런스보드, ISM

- 고용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비농가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소비 증가에 따른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
  - 실업률(%): (‘21.5월)5.8→(6월)5.9→(7월)5.4→(8월)5.2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0.5월)61.4→(6월)96.2→(7월)105.3→(8월)23.5

- 다만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8월 비농가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나 고용 개선 흐름이 주춤한 상황
- 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소비증가와 유가상승, 공급망 애로 및 빠른 경제정상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 등에 기인하여 3월 이후 높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 7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3%로 6월과 동일하게 2개월 연속 5%를 상회하였고, PCE물가상승률은 4.2%로 전월(4.0%)보다 상승폭 확대
  - 7월 중 근원물가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전월(4.0%)에 비해 0.3%p 둔화되었고, 근원PCE물가 상승률은 3.6%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 유지

| 그림 174 |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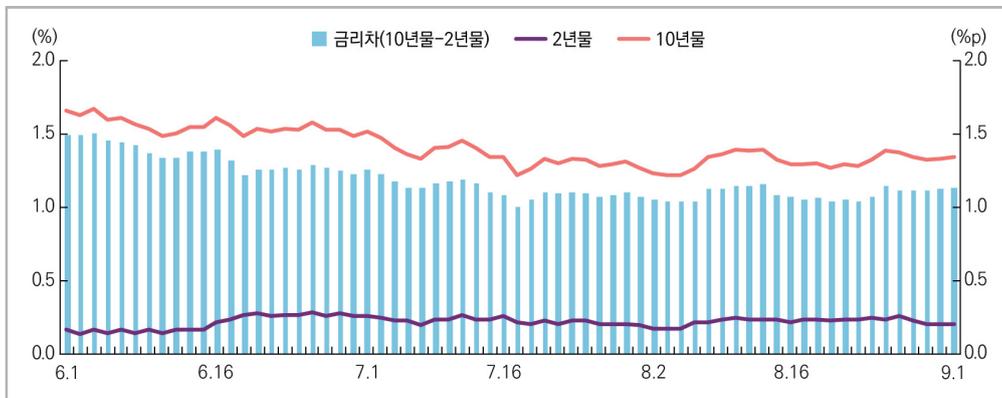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금리는 정책금리가 0.00~0.2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4월까지 빠르게 상승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6월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며 2년물과의 기간금리차가 다시 축소되는 양상
  -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경기지표 개선 등에 따른 연준의 조기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부각되며 4월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 (21.6월)1.32→(7월)1.10→(8월)1.06

| 그림 175 | 미국채금리 및 기간금리차 일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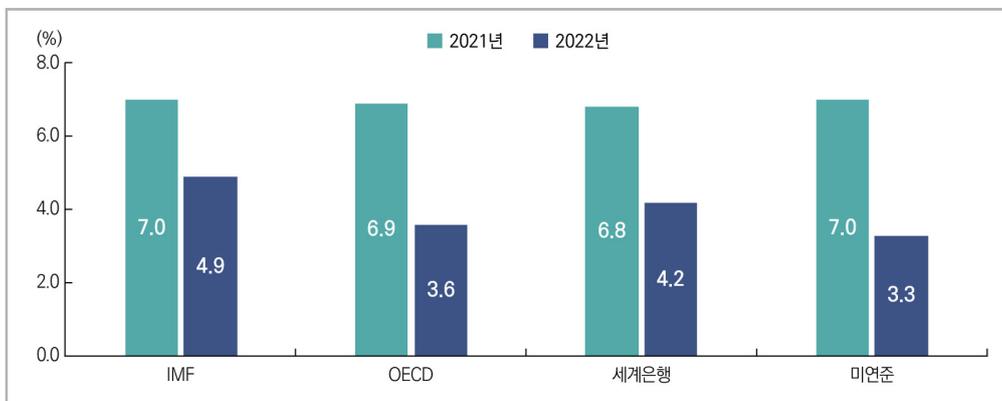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나. 미국 경제전망

- 향후 미국경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2022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미연준, IMF 등 주요 전망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신용공급 정책 등에 힘입어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2021년 6.8~7.0%의 성장률을 보이고 2022년에는 3.3~4.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미 경제의 회복경로는 코로나19의 진행 경로 및 백신접종 속도와 정책대응에 의존할 전망
    - 미연준은 6월 FOMC회의에서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당 폭 상향 조정하였고, 정책금리의 인상 시점이 2023년으로 앞당겨 질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7월 FOMC회의 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황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올해부터 자산매입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Powell 미연준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8.27일)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빠른 경제재개에 따른 공급망 애로와 서비스 부문 가격상승에 기인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완전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 그림 176 |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전망시점은 OECD 2021년 5월, 미 연준(전망치 중간값)과 세계은행 6월, IMF는 7월  
 자료: IMF, OECD, 세계은행, 미연준

- 미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1~2022년 중 실질GDP 성장률이 각각 5.3%,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sup>35)</sup>
  - 실질GDP는 2020년 -3.4%에서 성장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실업률도 8.1%에서 2021년 5.2%, 2022년 4.3%로 하락하고 2023년에는 자연실업률(미연준 추정치 4.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0%를 상회하여 2021년 이후 2.3%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2023~2025년 기간 중 성장률은 연평균 3.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35) 미국 행정부의 공식전망치는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등 3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통상 매년 11월에 확정되어 당해연도 1~2월에 발표되는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함

- 금리(10년만기 국채)는 2021년 0.8%에서 2022년 1.0%로 완만하게 상승한 후, 중기적으로 2025년에는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표 21 | 미국 행정부의 경제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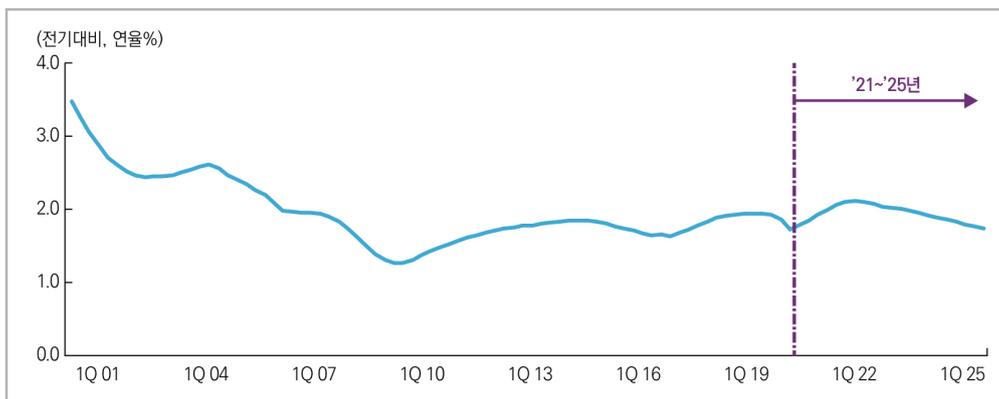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성장률	-3.4	5.3	3.9	3.3	3.0	2.9
소비자물가상승률	1.2	2.3	2.3	2.3	2.3	2.3
실업률	8.1	5.2	4.3	4.1	4.0	4.0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0.9	0.8	1.0	1.2	1.5	1.7

주: 2020년은 실적치

자료: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21, Chap. 10, Table 10-3(p. 308) 재구성

- 미국의 잠재성장률(CBO 추정치기준)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1.3%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코로나19 이전까지 2.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미 의회예산처(CBO)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3/4분기(전기비, 연율) 1.7%까지 일시적으로 하락
  - 2021년 이후 잠재성장세가 빠르게 회복되어 2022년에는 2.1%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25년에는 1.7% 수준일 것으로 전망

| 그림 177 | 미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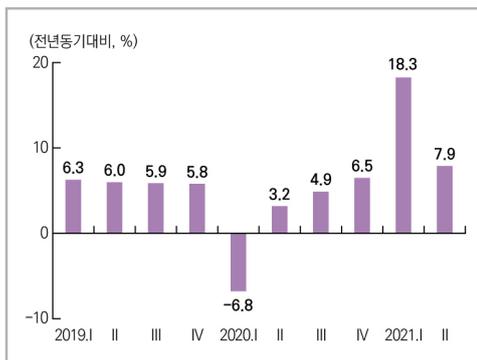
자료: 미 의회예산처

## 2. 중국

### 가.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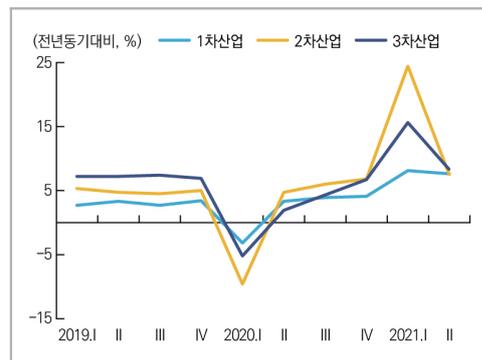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
  - 중국의 20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8.3%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9%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
    - 중국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0.3/4분기)4.9→(4/4분기)6.5→(21.1/4분기)18.3→(2/4분기)7.9
  - 산업별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며 광업·제조업 등이 포함된 2차산업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
    -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신차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도 감소하는 추세\*
    - \* 중국 자동차 판매 증감률(전년동일대비, %): (1월)29.9→(4월)8.8→(6월)-11.8
    - 1차산업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1.1/4분기)8.1→(2/4분기)7.6
    - 2차산업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1.1/4분기)24.4→(2/4분기)7.5
    - 3차산업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1.1/4분기)15.6→(2/4분기)8.3

| 그림 178 |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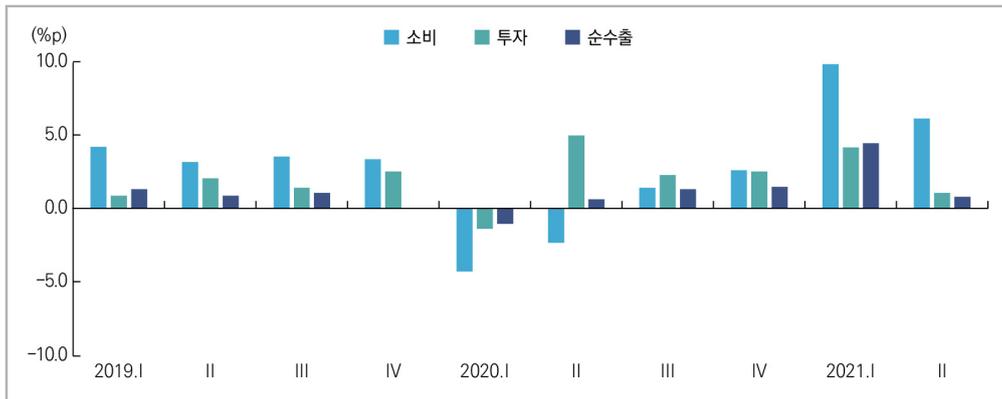
| 그림 179 | 중국 산업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CEIC

- 2021년 2/4분기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6.1%p로 소비가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음
  - 투자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1.0%p와 0.8%p로 성장세 지속을 위해서는 투자와 수출의 회복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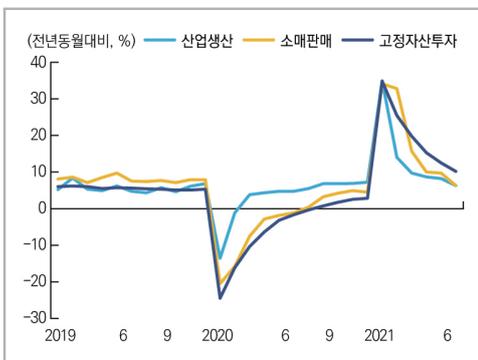
| 그림 180 | 중국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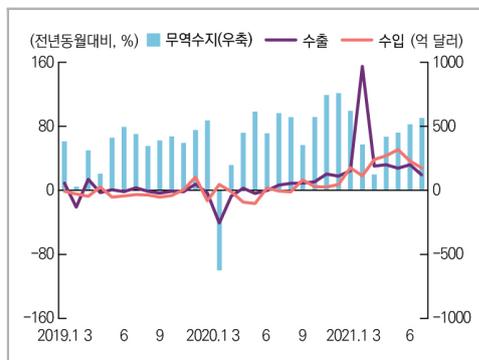
-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중국의 주요 실물지표들도 2021년 2/4분기 들어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
  - 중국의 2021년 1/4분기 산업생산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4분기에는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며 전년동기대비 8.8%의 증가율을 기록
  - 2021년 들어 중국 대부분 지역의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2021년 1/4분기까지의 누적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23.0%로 증가율이 둔화
  - 2021년 2/4분기까지의 누적 고정자산투자는 운송업·건설업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둔화되며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
-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세계 경기회복과 함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다만 2021년 2/4분기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3% 감소

| 그림 181 | 중국 주요 실물지표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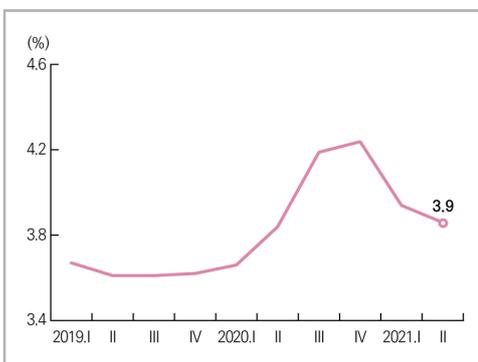
| 그림 182 |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 중국의 주요 고용지표인 실업률과 누적신규취업자수는 경기회복과 함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중국의 실업률은 3.9%를 기록하며 2020년 4/4분기의 4.2%에서 하락
  - 2021년 6월까지의 누적신규취업자수(도시지역)는 822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
-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물가의 하락세로 둔화된 반면,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세계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
  - 2021년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0%, 9.0%를 기록하며 두 지표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그림 183 | 중국 등록실업률 추이



자료: CEIC

| 그림 184 | 중국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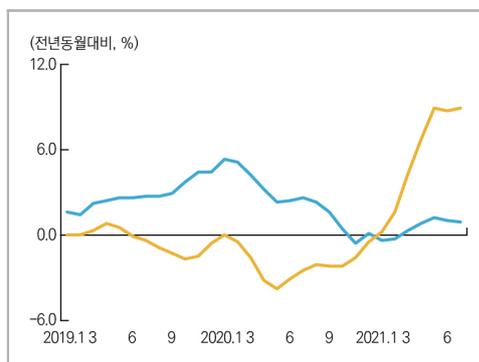


표 22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GDP성장률	6.0	2.3	-6.8	3.2	4.9	6.5	18.3	7.9	-
산업생산	4.8	2.4	-9.5	4.1	5.6	6.9	24.4	8.8	6.4
소매판매	8.0	-3.9	-19.0	-11.4	-7.2	-3.9	33.9	23.0	6.4
고정자산투자	5.4	2.9	-16.1	-3.1	0.8	2.9	25.6	12.6	10.3
수출	0.5	3.6	-13.6	-0.2	8.4	16.6	48.9	30.7	19.3
수입	-2.7	-0.6	-3.1	-9.4	3.7	5.6	29.0	43.4	28.1
실업률	3.6	4.2	3.7	3.8	4.2	4.2	3.9	3.9	-
소비자물가	2.9	2.5	5.0	2.7	2.3	0.1	0.0	1.1	1.0

- 주: 1) 소매판매의 분기, 연간지표는 연초부터 기간말까지의 누적값  
 2) 고정자산투자는 연초부터 기간말까지의 누적값  
 3) 수출입은 US달러, 통관기준  
 4) 실업률은 등록실업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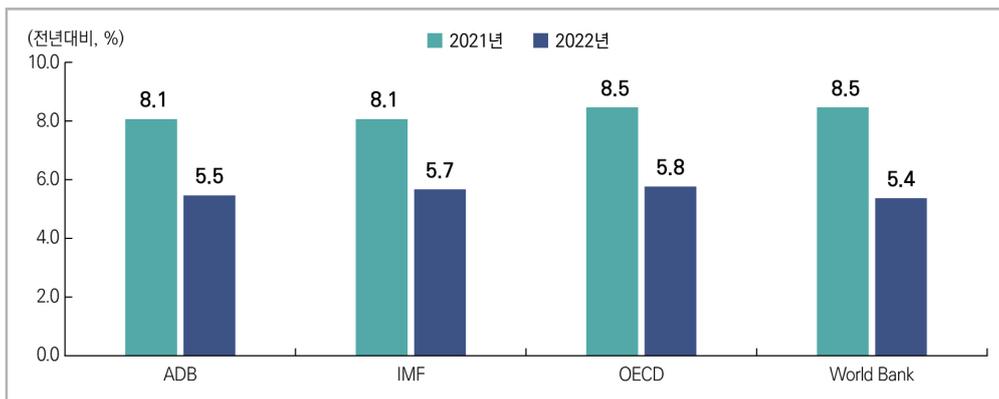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CEIC

## 나. 중국 경제전망

- 2021년 중국경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내수 개선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2년부터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질 전망이다
  - 중국 정부는 2021년 7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방정부채권 발행속도 관리,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의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발표
    - 2021년 7월까지 발행된 지방정부 전용채권 누적금액은 약 1.35조 위안 (2021년 배정액의 37%)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채권발행을 통한 재정자금 투입이 예상됨
    - 중국인민은행은 2021년 7월 기준을 인하를 통해 약 1조 위안의 장기자금을 시장에 공급
  - 소비심리 또한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소비자신뢰지수: (‘20.12월)122.1→(‘21.1월)122.8→(6월)122.8
  - 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률 둔화와 변이바이러스 재확산, 기업부채 부도 위험 등은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18년)151.0→(‘19년)151.9→(‘20년)162.3

-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2021년 8.1~8.5%, 2022년 5.4~5.8% 수준으로 전망
  - ADB는 2021년 7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8.1%, 5.5%로 전망
  - IMF는 2021년 7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8.1%, 5.7%로 전망
    - 공공투자를 포함한 재정지원 규모 축소로 2021년 경제성장률은 0.3%p 하향 조정됨
  - OECD는 2021년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8.5%, 5.8%로 전망
    -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잘 통제된다는 가정하에서 투자가 중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수출 증가로 산업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World Bank는 2021년 6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8.5%, 5.4%로 전망
    - 해외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을 0.6%p 상향 조정

| 그림 185 | 주요 국제기구의 중국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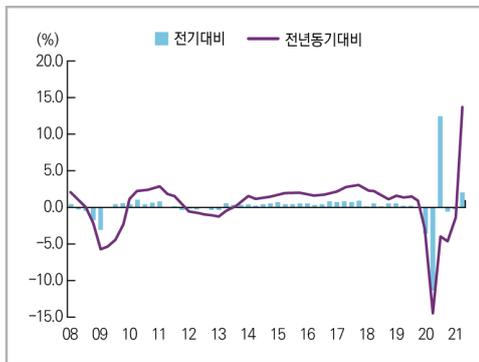
자료: ADB(2021.7월), IMF(2021.7월), OECD(2021.5월), World Bank(2021.6월)

### 3. 유로지역

#### 가.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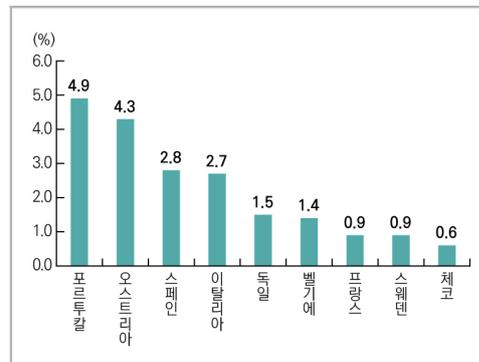
- 유로지역 경제는 주요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백신접종률이 상승<sup>36)</sup>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고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유로지역의 2021년 2/4분기 GDP는 전기대비 2.0%,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하여 지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반등
    - 유로지역 주요국 성장률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영향이 컸던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2분기 GDP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
  - 소비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지속
    - 산업생산은 3~4월 중 증가세를 나타내며 회복하는 모습이었으나, 5~6월 중 에너지부문과 자본재 생산이 줄면서 감소 전환
    - 소매판매는 경제주체들의 이동제한 해제 등으로 소비활동이 본격화되면서 5월과 6월 각각 전월대비 4.1%, 1.5%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

| 그림 186 | 유로지역 GDP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그림 187 | 유로 주요국 GDP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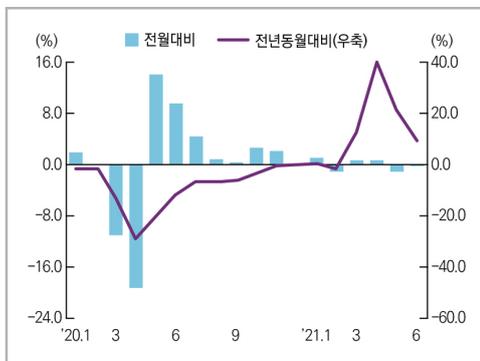


주: 2021년 2/4기 기준, 전분기 대비(%)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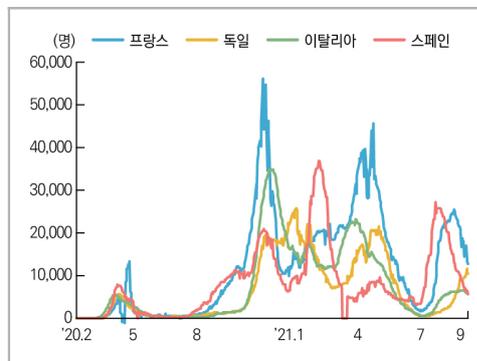
36) 유로지역 주요국 인구당 접종률(%): 벨기에(72.5), 프랑스(72.1), 독일(65.1), 스페인(78.3), 이탈리아(71.1) (자료: Our World in Data, 2021.9.3.일 기준)

| 그림 188 |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그림 189 | 유로지역 주요국 신규 확진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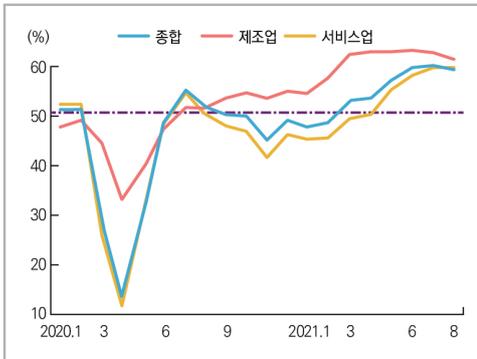
주: 7일 이동평균

자료: Our World In Data

- 유로지역 PMI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으며, 소비자신뢰지수도 2021년 들어 큰 폭으로 상승
  - 유로지역 종합 PMI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과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2020년 4월 중 사상 최저치인 13.6을 기록
  - 그러나 제조업 PMI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2021년 6월 63.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서비스업 PMI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2020년 11월 41.7을 기록
  - 이후 주요국의 이동제한 조치 완화와 백신접종률 상승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PMI는 7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1년 8월 59.7을 기록
  - 소비자신뢰지수<sup>37)</sup>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신규 확진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8월 -5.3을 기록(장기 평균치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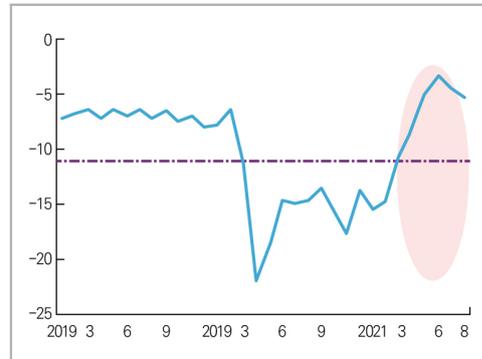
37)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으로 답변한 소비자의 비중 차이에 따라 산출됨.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등락폭이나 장기평균치와의 차이 등으로 판단

| 그림 190 | 유로지역 산업별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 그림 191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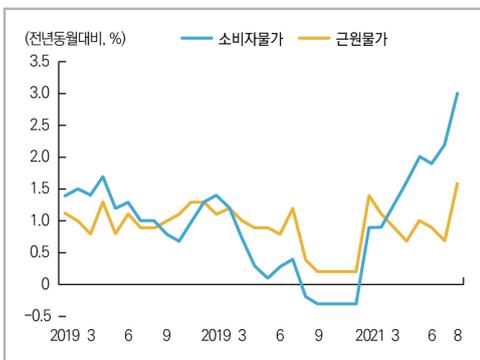
자료: EU 집행위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확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오름세 지속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
  - 국제유가 급등으로 3월부터 에너지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되어 10%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수요회복에 따라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8월 1.6%까지 상승
  - 특히 독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sup>38)</sup> 종료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sup>39)</sup>하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 상승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21.5월)2.0 → (6월)1.9 → (7월)2.2 → (8월)3.0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21.5월)1.0 → (6월)0.9 → (7월)0.7 → (8월)1.6
  - 에너지물가(전년동월대비,%): (21.5월)13.1 → (6월)12.6 → (7월)14.3 → (8월)15.4

38) 독일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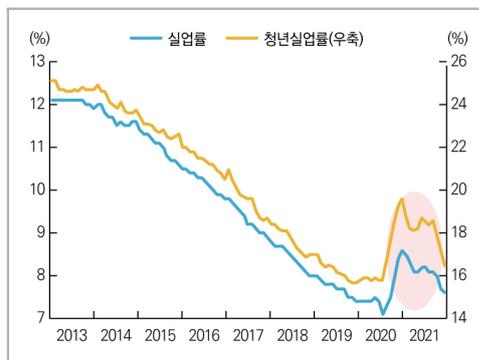
39) 8월 중 독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로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인 3.0%를 상회

| 그림 192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Eurostat

| 그림 193 |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Eurostat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1년 들어 개선세를 나타내며 7월말 기준 7.6%를 기록
  - 유로지역 국가별 실업률(20.7월→21.7월): 독일(4.0%→3.6%), 프랑스(8.6%→7.9%), 스페인(16.3%→14.3%), 그리스(16.8%→14.6%)

| 표 23 | 유로지역 주요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Q1	Q2	Q3	Q4	Q1	Q2	7월
GDP성장률	1.4	-6.6	-3.2	-14.4	-4.0	-4.6	-1.3	13.6	-
산업생산	-1.3	-8.6	-5.7	-20.2	-6.8	-1.4	3.5	23.3	-
소매판매	2.4	-0.9	-1.1	-6.6	2.5	1.6	2.5	12.4	-2.3
고정자본형성	6.6	-7.4	5.9	-20.2	-4.4	-10.7	-6.3	-	-
수출	2.8	-9.2	-1.5	-23.6	-8.7	-2.8	0.7	34.3	-
경상수지 (10억유로)	282.2	247.7	57.3	26.5	68.0	87.4	102.5	58.3	-
소비자물가	1.2	0.3	1.1	0.2	0.0	-0.3	1.1	1.8	2.2
달러/유로 환율	1.119	1.142	1.103	1.101	1.169	1.193	1.205	1.205	1.183
실업률	7.5	7.8	7.3	7.6	8.5	8.2	8.2	7.9	7.6

주: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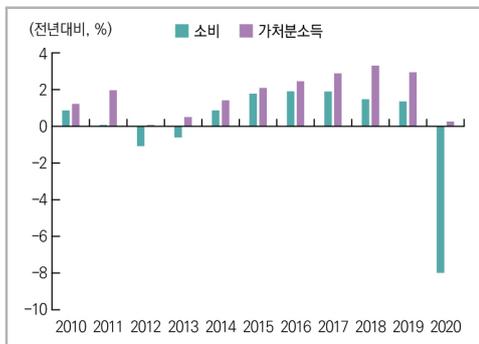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CB, Eurostat

#### 나. 유로지역 경제전망

- 유로지역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EU경제회복 기금 집행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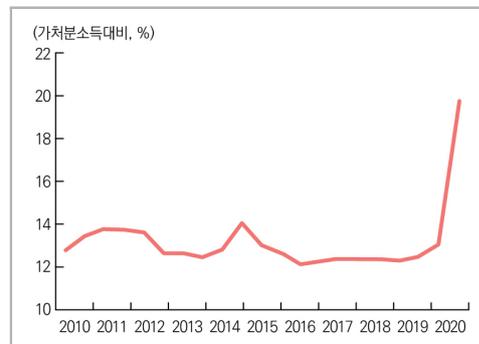
- 유로지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1년 1/4분기 중에도 이동제한과 봉쇄 조치가 지속되었으며, 재정확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성장세가 약한 모습을 보임
-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백신접종률이 상승하면서 봉쇄조치 등으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정상화되며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냄
  -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확산기와 같이 이동제한과 봉쇄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은 낮음
- 또한, 하반기부터 EU 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Recovery Fund)의 집행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21~2026년 7,5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으로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클 전망
  - ECB는 6월 경제전망에서 EU의 부양책 규모가 2021년, 2022년, 2023년 각각 GDP의 4.5%, 1.5%, 1.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확산 이후 나타난 큰 폭의 가계저축 증가가 향후 경제활동 재개시 이연된 소비로 이어지며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코로나19 이후 유로지역의 가처분 소득은 각국 정부의 가계소득 보전 정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소비는 전년 대비 8.0% 감소함에 따라 저축이 큰 폭으로 증가
  - 유로지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12~13%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2020년 19.8%로 가파르게 상승

| 그림 194 | 유로지역 소비와 가처분소득



자료: Eurostat, E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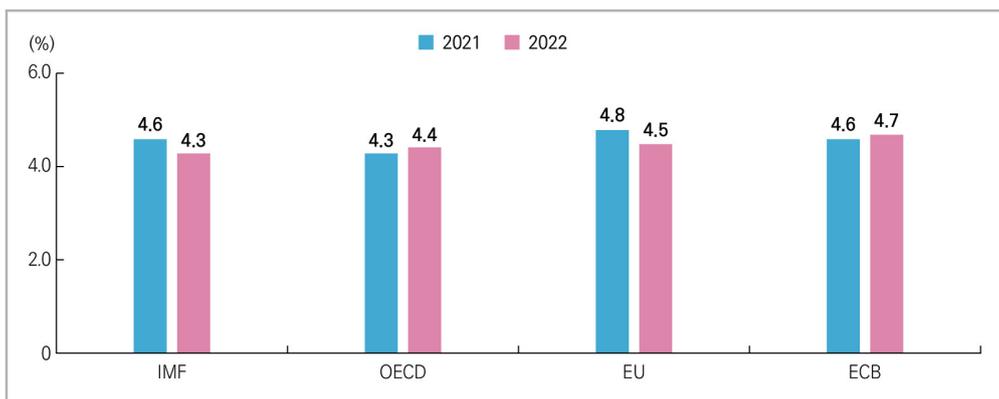
| 그림 195 | 유로지역 가계저축률 추이



자료: ECB

- 주요 기관들은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을 2021년 4.3~4.8%, 2022년 4.3~4.7% 수준으로 전망
- EU는 7월 하계 경제전망을 통해 유로지역 GDP가 2021년 4.8%, 2022년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서비스 및 관광 수요증가 등을 반영하여 5월 전망(2021년 4.3%, 2022년 4.4%) 보다 성장률을 상향조정
  - IMF는 2021년 7월 수정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1년과 2022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대비 각각 0.2%p와 0.5%p 상향조정한 4.6%와 4.3%로 전망
  - OECD는 2021년 5월 보고서에서 유로지역 성장률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4.3%,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지난 3월 전망 대비 2021년과 2022년 성장률을 각각 0.4%p, 0.6%p 상향조정
  - ECB는 6월 전망을 통해 2021년과 2022년을 각각 4.6%, 4.7%로 전망
    - EU회복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통화 및 재정정책이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총수요를 확대시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그림 196 | 주요기관의 유로지역 2020년 및 2021년 경제전망



주: IMF는 7월, EU는 7월, OECD는 5월, ECB는 6월 전망치임  
 자료: OECD, ECB, EU, IMF

## 4. 일본

### 가. 최근 경제동향

□ 2021년 상반기 일본경제는 주요 실물지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재선언으로 추가적인 성장동력은 미약한 모습

○ 일본의 20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3%로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6%를 기록

－ 일본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0.3/4분기)5.3→(4/4분기)2.8→(‘21.1/4분기)-1.1→(2/4분기)0.5

○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민간비주거투자(민간기업 설비투자), 수출이 성장세로 전환하였으나 3차 긴급사태\*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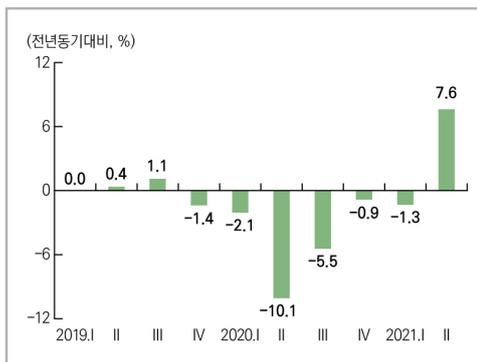
\* 일본 긴급사태 선언: (1차)‘20.4.7~5.25→(2차)‘21.1.8~3.21→(3차)‘21.4.25~

－ 민간소비 증가률(전년동기대비, %): (‘21.1/4분기)-2.6→(2/4분기)7.2

－ 민간비주거투자 증가률(전년동기대비, %): (‘21.1/4분기)-5.1→(2/4분기)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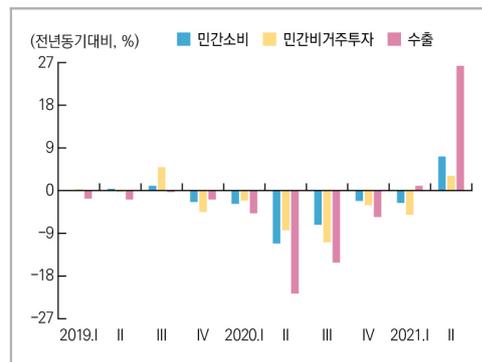
－ 수출 증가률(전년동기대비, %): (‘21.1/4분기)1.0→(2/4분기)26.3

| 그림 197 |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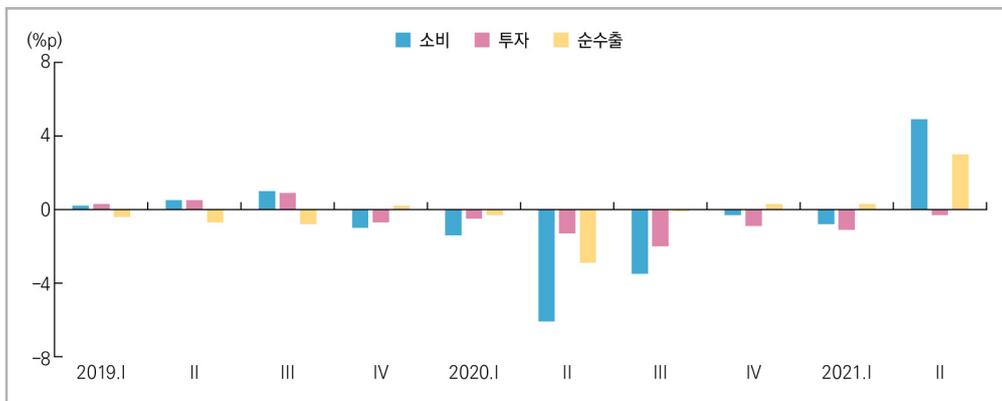
| 그림 198 | 일본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 2021년 2/4분기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소비와 순수출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21년 2/4분기 소비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4.7%p, 3.0%p로 두 부문이 2021년 2/4분기 일본경제의 성장요인으로 작용
  - 2021년 2/4분기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3%p로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투자부문에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음
- \* 민간 주거용 투자+민간 비주거 투자+공공 투자+재고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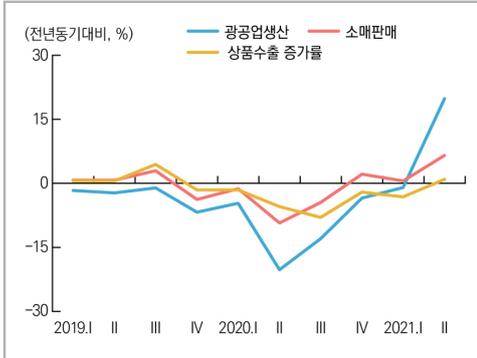
| 그림 199 | 일본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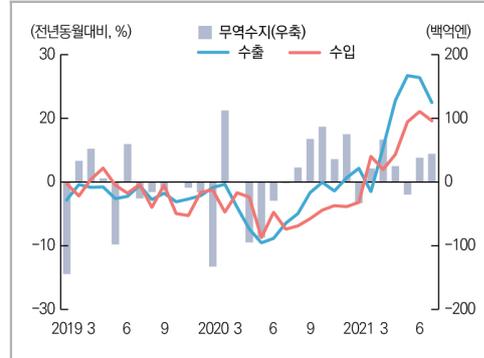
-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등 일본의 주요 실물지표들도 2021년 2/4분기 들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
  - 일본의 2021년 2/4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함께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제조업 부문 생산량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9.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일본의 2021년 2/4분기 소매판매는 2020년 2/4분기 마이너스 증가율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였으나, 2021년 7월 이후 긴급사태 발령지역이 추가되면서 3/4분기부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2021년 2/4분기 고정자본형성은 전년도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0.9% 증가에 그침
- 일본의 수출은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20.1월)6.4→(4월)38.0→(6월)48.6

| 그림 200 | 일본 주요 실물지표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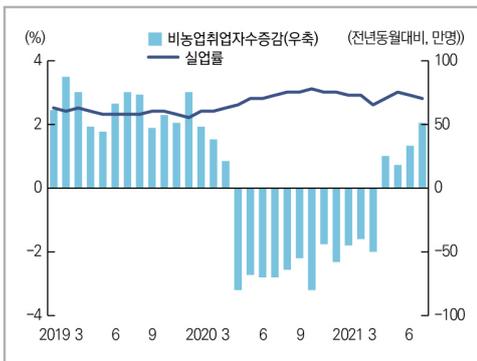
| 그림 201 |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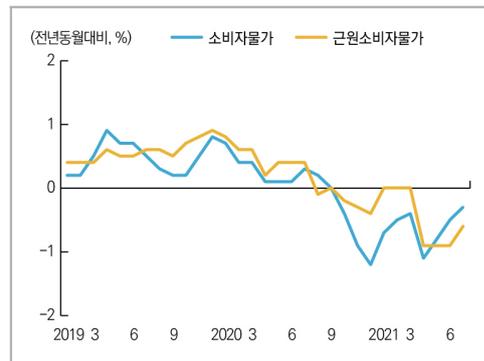
- 2021년 7월 일본의 실업률은 2·3차 긴급사태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용조정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 일본 후생노동성은 3차 긴급사태 연장으로 고용조정보조금 특례조치 기간을 기존의 2021년 9월 말에서 2021년 11월 말까지 연장
  - 일본 실업률(전년동월대비, %): (20.1월)2.9→(4월)2.8→(7월)2.8
  - 일본 비농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0.1월)-45→(4월)25→(7월)51
-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도 2021년 4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일본의 저물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그림 202 | 일본 실업률 및 비농업 취업자수 추이



자료: 일본 총무성

| 그림 203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일본 총무성

| 표 24 |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GDP성장률	0.0	-4.6	-2.1	-10.1	-5.5	-0.9	-1.3	7.6	-
광공업생산	-3.8	-9.5	-4.7	-20.3	-13.0	-3.5	-1.0	19.9	11.6
소매판매	-0.4	-2.8	-1.3	-9.3	-4.5	2.1	0.5	6.5	2.4
고정자본형성	0.9	-4.2	-1.6	-5.5	-8.0	-2.1	-3.2	0.9	-
수출	-5.6	-11.1	-5.5	-25.3	-13.0	-0.7	6.0	45.0	37.0
수입	-5.0	-13.7	-7.3	-15.8	-19.9	-11.8	1.9	23.8	28.5
실업률	2.4	2.8	2.4	2.7	3.0	3.0	2.8	2.9	2.8
소비자물가	0.5	0.0	0.7	0.1	0.0	-0.9	-0.5	-0.7	-0.3

주: 1) 고정자본형성=민간 주거용 투자+민간 비주거 투자+공공 투자

2) 수출입은 일본 엔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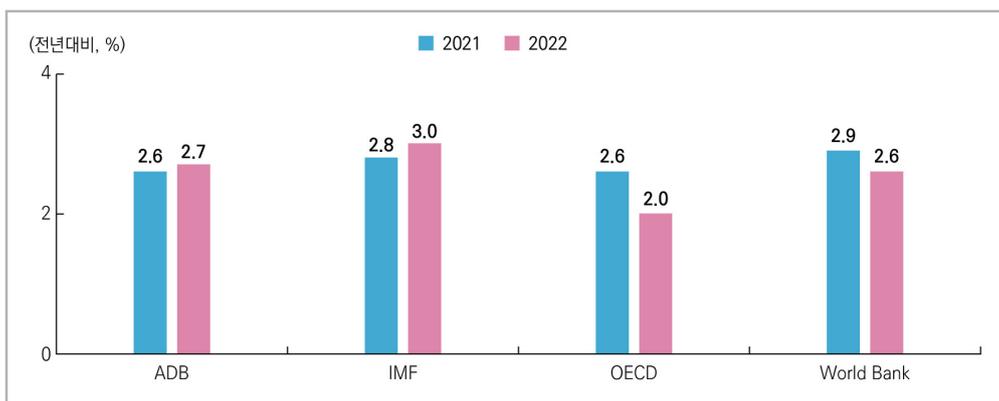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Bloomberg, CEIC

#### 나. 일본 경제전망

- 2021년 일본경제는 공공투자 지속,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변이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연장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는 2022년까지 완만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 2020년 12월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재해방지 및 국토개발을 위한 3개년 긴급 대책」의 기한을 5년 연장한 「재해방지 및 국토개발을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을 발표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재해방지·국토개발과 관련된 공공 인프라 부문에 15조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 2021년 3월부터 수출이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도 수출이 일본의 경제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 다만 변이바이러스 재확산으로 2021년 4월에 시작된 3차 긴급사태가 하반기까지 연장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도 상존

- 주요 기관들은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2021년 2.6~2.9%, 2022년 2.0~3.0% 수준으로 전망
  - ADB는 2021년 7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6%, 2.7%로 전망
    -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모두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IMF는 2021년 7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8%, 3.0%로 전망
    - 2021년 상반기 긴급사태의 영향으로 2021년 성장률은 0.5%p 하향 조정되었으며 백신 보급과 함께 2022년에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OECD는 2021년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6%, 2.0%로 전망
    - 세계경제 회복과 정부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 모두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World Bank는 2021년 6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9%, 2.6%로 전망
    - 대외수요 확대와 회복세인 국내경제 활동을 반영하여 2021년 성장률을 0.4%p 상향 조정

| 그림 204 | 주요 국제기구의 일본경제 전망



자료: ADB(2021.7월), IMF(2021.7월), OECD(2021.5월), World Bank(2021.6월)

##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

발간일 2021년 9월 30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6788 · 3775)

---

ISBN 979-11-6799-009-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6-001573-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